

건축 · 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유광흠 Yu, Kwang Heum
오성훈 Oh, Sung Hoon
조상규 Cho, Sang Kyu
성은영 Seong, Eun Young

(a u r i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지은이: 유광흠, 오성훈, 조상규, 성은영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2월 26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3216-21-9

발간물번호: AURI-기본-2008-9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유광흠 · 연구위원

- ▮ 연구진 오성훈 · 부연구위원
 조상규 · 부연구위원
 성은영 · 연구원

- ▮ 연구심의위원 김상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차주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상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안창모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정인하 ·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최근 건축·도시 분야의 사회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수행 주체가 다변화되고 관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품질 자체가 현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뒷받침하고 다양한 정책 주체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기록 관리 체계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최적의 설계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설계현상공모에 제출된 설계 작품들이 마땅한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도심재개발시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자 해도 개발 이전의 역사적인 공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적절한 계획이나 설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건축·도시 공간 만들기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록과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시행령(2008.6.20 제정)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이러한 공간기록정보의 사회적 생산과 유통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실천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실천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시범 기록 구축 연구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

기록물 관리학 분야에서의 아카이브 개념은 개인 혹은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총체, 혹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흔히 주제별 수집물로서의 아카이브 개념과, 기록물의 총체로서의 아카이브의 개념을 다소 혼동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건축 아카이브는 건축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공 및 민간 기록물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 아카이브 개념은 건축가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록물 관리의 개념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의 건축·도시분야는 빠른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으며, 이를 감안할 때 건축 공간의 변화는 도시 차원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과정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관련된 공공 기록물은 다른 분야의 기록물에 비해 역사기록물 단계로 이행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관리에 있어서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 중심의 기록물 관리 정책은 정책적 유용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건축 행위를 포함하는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기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체계로서 재정의하였다.

제3장 관련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건축·도시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공공 기록물에 관한 제도는 기록물과 정보의 관리와 법률에 관련된 제도 및 법제와, 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조사·기록에 관한 법·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의 기록정보에 관련된 법률은 크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책 결정과 사업 시행의 각 단계의 기록물 생산 및 기록물 관리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정보와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도시분야의 공공 정보와 기록물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투기 우려와 정책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공개가 제한되어 왔다.

계획 수립 단계의 공식화된 조사 중, 미시적인 건축·도시공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의 현황조사 단계가 의무화 되어 있다. 개발 사업에 따른 조사·기록에 관한 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있지만 이들 중에서 현재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없다. 또, 역사적·문화적 관점의 조사 기록이 목표인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도 현존하는 구조물 보다는 과거의 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역사적·문화적 관점의 기록 구축의 개념은 취약하지만, 도시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국토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정보와 결합된 3차원 국토정보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국토정보사업의 공간기록이 건축 공간 재현에 있어서 충분한 정밀도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국토 정보는 각 장소에 대한 기록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인 공간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반면 프랑스나 네델란드와 같은 건축·도시분야 선진국의 경우, 현재 활동하는 건축 및 도시분야 전문가의 활동과 담론을 전시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아카이브 시설을 통해 관련

기록물의 축적·관리하며 각종 컨퍼런스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 논의를 생산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4장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대상과 기록화 전략 연구

건축·도시공간의 기록은 물리적 형상의 기록 및 관련 정책과 사업 과정 기록의 총체로서 접근해야 하므로 건축 행위를 수반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기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건축적 스케일의 기록을 구축할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주요 기록 부문은 계획 및 정책, 사업, 장소의 세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디지털 국토 정보 정책에 의해서 계획 및 정책은 필지 단위의 토지이용 규제 변화까지 정보가 구축되고 있지만, 장소 그 자체에 대한 기록과 사업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기록 구축 자체를 강화하고,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도시 개발 사업 중심의 기록화 전략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장소 자체에 대한 참조적 기록 구축 부분이며 이는 다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피맛골로 알려진 서울시 종로구 일대의 청진도시환경재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기록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5장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방안

국가적 차원의 건축·도시공간 기록 정책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이 우리 문화의 정수이며, 이에 대한 기록은 관련 분야의 정책 개발과 연구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건축·도시분야의 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분야 및 학술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 계획 및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 기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기록관리 시설의 확보, 관련 기록 생산 및 관리의 고도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의 개발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정책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실제 도시 개발 사업의 주체는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서울 도심부 등, 공간의 역사적 기록 구축이 시급한 지역을 (가칭)장소 기록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현황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 및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에 소장된 건축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넘어서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의

동적인 변화에 관한 기록을 구축·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연구가 건축·도시분야의 공공기록물에 국한되었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가의 설계 활동에 관한 민간 기록물과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서적 등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과정에서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대상지의 참조적 기록 구축을 통해서 피맛골의 원형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장소 그 자체를 보존하고 가꾸는 사회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비로소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주제어: 건축 기록물, 도시공간 기록물, 아카이브, 기록화, 박물관

차례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구성	6
II.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	9
1. 건축 아카이브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10
1)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	10
2) 선행 연구 검토	13
2.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특성	14
1)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유형	14
2) 건축 공간 자체의 기록 방법	16
3) 건축·도시 기록물의 관리 특성	18
3. 소결	19

III.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21
1. 관련 제도 검토	22
1) 개관	22
2) 공공기록물 관리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2
3) 문화재 보존 관련 기록제도 및 기록현황	27
2. 국내의 건축도시 정보 구축 사업	31
1)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보화 사업의 현황	31
2) 공간이력 기록 사업	42
3. 해외의 건축도시 기록정보 관리와 활용	43
1) 해외의 건축 기록물 관리와 활용	43
2) 건축·도시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 사례	44
3) 해외의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	50
4. 소결	58
IV.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대상과 기록화 전략 연구	61
1. 개관	62
2.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 체계	62
1) 공간계획 및 사업의 체계	62
2) 공간계획 및 사업 현황	68
3. 시범 기록 구축 : 피맛길	75

1) 조사 개요	75
2) 공간 이력조사	78
3) 현장 탐문조사	80
4) 물리적 환경 기록화	83
5) 조사결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84
4. 소결	86

V.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방안89

1.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90
1) 정책 추진 배경	90
2) 정책 목표	91
3) 기본 방향	93
2. 중점 추진 과제	94
1)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건축·도시공간 기록구축 방안	94
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활용 체계 강화	96
3) 전문 기록 관리 기관 확보	96
3. 추진 전략	97
1) 추진 체계	97
2) 세부 추진 전략	98

VI. 결론	101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2
2. 맺음말	103
• 참고문헌	106
• summary	109
• 부록 1. 종로 피맛길 관련 문헌 및 현장탐문조사 결과	119
• 부록 2. 종로 피맛길 일대 3D 실측조사 결과	169

표 차례

〈표 1〉 도시 만들기 체제의 시대적 변화	2
〈표 2〉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록의 유형	14
〈표 3〉 공간 기록물의 범주	15
〈표 4〉 기록물의 생애주기	19
〈표 5〉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대상	24
〈표 6〉 기관 정보 비공개 사유	26
〈표 7〉 2007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심판 사례 중 일부	27
〈표 8〉 문화재 지표조사 내용	28
〈표 9〉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 현황(2008년)	30
〈표 10〉 문화재 실측기록화 사업현황(2008년)	31
〈표 11〉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내용	32
〈표 12〉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내 7개 부처 9개 정보시스템 목록	33
〈표 13〉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사업추진 경위 및 관련 법률	36
〈표 14〉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대상범위	39
〈표 15〉 조사 대상 기관의 일반현황	44
〈표 16〉 일반 대중을 위한 콘텐츠	51
〈표 17〉 전문가를 위한 콘텐츠	52
〈표 18〉 정부사용자를 위한 콘텐츠	53
〈표 19〉 지역개발계획 관련 콘텐츠	54
〈표 20〉 런던 지역정보에 대한 콘텐츠	55

〈표 21〉 런던 공공지역서비스 콘텐츠	56
〈표 22〉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정부 계획정보시스템 콘텐츠	57
〈표 23〉 도시계획사업 현황	69
〈표 24〉 연도별 도시개발사업 현황	70
〈표 25〉 도시개발사업 시행현황	71
〈표 26〉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 현황	71
〈표 27〉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72
〈표 28〉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72
〈표 2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73
〈표 30〉 도시계획시설 현황	73
〈표 31〉 2007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현황	74
〈표 32〉 문헌조사 결과	78
〈표 33〉 피맛길 일대 재개발사업 이력	79
〈표 34〉 피맛길 현장탐문조사 현황	81
〈표 35〉 인터뷰 구성안	81
〈표 36〉 현장탐문 결과 기록자료	82

그림 차례

〈그림 1〉 건축 행정 전산화 이전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3
〈그림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지적고시 도면	3
〈그림 3〉 연구의 구성	7
〈그림 4〉 NAI가 소장한 P.J.H. Cuypers의 설계 도면	12
〈그림 5〉 구글 어스에서 제공되는 3차원 도시 형상	16
〈그림 6〉 실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본 구글 어스의 3차원 도시 형상	17
〈그림 7〉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에 의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청구 건수 변화 추이	26
〈그림 8〉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결과	27
〈그림 9〉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절차	29
〈그림 10〉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배경	32
〈그림 1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주요 항목	34
〈그림 12〉 기존의 수치지도 건물 및 KLIS 정보체계와 비교	34
〈그림 13〉 추진경과	35
〈그림 14〉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	37
〈그림 15〉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현황	37
〈그림 16〉 시군구 도시계획정보체계 참조시스템의 개선방향	38
〈그림 1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5단계 사업	40
〈그림 1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활용의 예	40
〈그림 19〉 건축물 대장의 정보	42
〈그림 20〉 우리나라 공간계획 체계	63

〈그림 21〉 도시기본구상도 예시	64
〈그림 22〉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64
〈그림 23〉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65
〈그림 24〉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65
〈그림 2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66
〈그림 26〉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조직의 변화(일본 롯뽀기 힐즈 사례)	67
〈그림 27〉 지역별 마을·도시만들기 현황(2006)	68
〈그림 28〉 도시계획사업현황(2007)	70
〈그림 29〉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추진현황	76
〈그림 30〉 시범 기록구축 대상지역(종로 피맛길)	77
〈그림 31〉 시범 기록구축의 구성 및 구현방법	77
〈그림 32〉 폐업, 건물철거 작업 및 임대 안내문	80
〈그림 33〉 현장탐문조사 업소현황	82
〈그림 34〉 3차원 레이저측량 데이터로 작성된 피맛길의 영상	83
〈그림 35〉 시범 기록자료의 구동기반(ALRIS) 예시	84
〈그림 36〉 피맛길 실내외 VR 영상구축 화면 예시	85
〈그림 37〉 피맛길 3D 실측 동영상	85
〈그림 38〉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추진 체계	97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 u 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건국 이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도시 만들기 체제는 빠른 속도로 고도화 되었고,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기록물과 정보 또한 도시 만들기 체제의 발달에 따른 정책적·행정적 필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함께 발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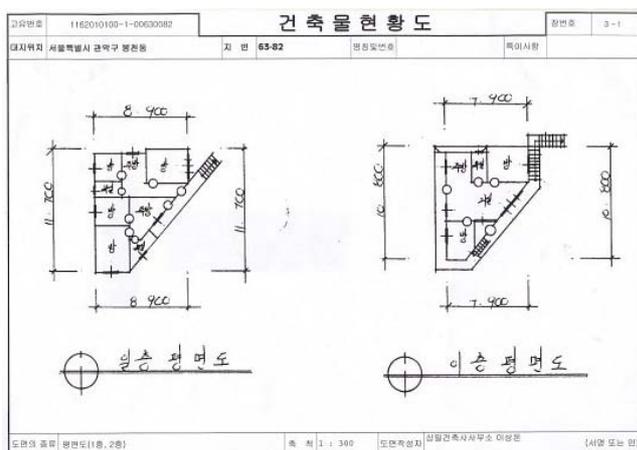
우리나라 도시 만들기 체제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1기 신도시 공급과 2기 신도시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2세대, 3세대 도시만들기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도시 만들기 체제의 시대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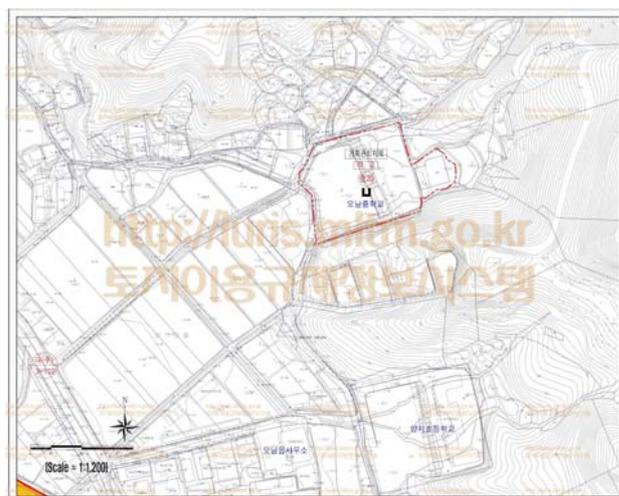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시기	정부수립~1980년대	1980~199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건축·도시공간 공급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량 확보 •안전과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량공급 시스템의 고도화 •조화로운 개발미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조성 •품질과 품격을 갖춘 공간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공급규제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공급 •품격있는 공공공간 조성
민간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공급 •규제에 의한 공공공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과 도시 공공공간의 조화
정부와 민간의 관계	일방적	일방적	쌍방향

1세대 도시만들기 체제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1기 신도시 공급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는 대지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공 위생이나 안전 등의 기본적인 공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축법과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건축물과 도시 공간이 공급되던 시기이며,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공간의 특성화나 설계 측면의 고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낮았던 시기이다.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의 공공 기록물은 이 시기의 기본적인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생산되기 시작한 기록물로서, 이들은 건축물의 법률적 존재를 증명하고, 기초적인 건축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건축 행정 전산화 이전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그림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지적고시
도면 (남양주시 학교시설)

2세대 도시 만들기 체제는 1기 신도시 계획 이후부터 2기 신도시 계획 이전까지의 도시 만들기 체제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공간의 대량 공급과 더불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간의 특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도시설계 수법이 고도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도시설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 구역에만 적용되는 건축적 규제인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 자체가 고도화되었다. 규제의 고도화로 인해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종류의 계획과 규제 정보가 급증하게 되었고, 관련 기록물 및 정보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은 GIS기반의 토지이용정보 및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긴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2기 신도시 계획을 전후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공간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공공간 디자인과 건축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는 등 건축·도시공간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 들어서는 건축·도시 분야의 사회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수행 주체가 다변화되고 관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품질 자체가 현격히 높아졌다.

그런데 건축·도시분야의 기록물과 정보 관리 체계는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공공이 수행하는 공공 건축 사업에서 더 나은 설계 대안을 찾기 위해 현상 공모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상 공모에 제출된 설계 작품들은 기존의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에 마땅한 관리 기준이 없어 심사 이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¹⁾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역량이 총집결되지만, 이러한 경험이 이후의 국책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심부 재개발의 경우,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자 해도 재개발 이전의 역사적인 공간의 모습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과거와 달리 건축·도시 공간 만들기에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록과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관련된 기록정보의 사회적 생산과 유통 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정책 품질 향상 및 국가적인 건축도시 분야 역량 강화

1) 공공시설사업 중 연간 약 700여건의 사업은 설계안에 대한 현상공모가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이후에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건축사협회 입찰정보 기준).

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6월 20일 제정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실천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실천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시범 기록 구축 연구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건축·도시공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에 관련된 기록물의 생산, 관리, 활용체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관련 기록물의 생산 단계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었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국내 및 해외의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단,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상세한 논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새로 조사가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간략한 분석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본고의 정책 제안 부분은, 포괄적인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체계의 구상 및 도시개발 사업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기록 생산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시범 기록구축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각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 조사는 기록물 관리학 분야의 아카이브 개념에 관한 연구서들과, 건축 분야의 아카이브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디지털 국토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선행 연구, 기록물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제도, 서구의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분야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설정하고,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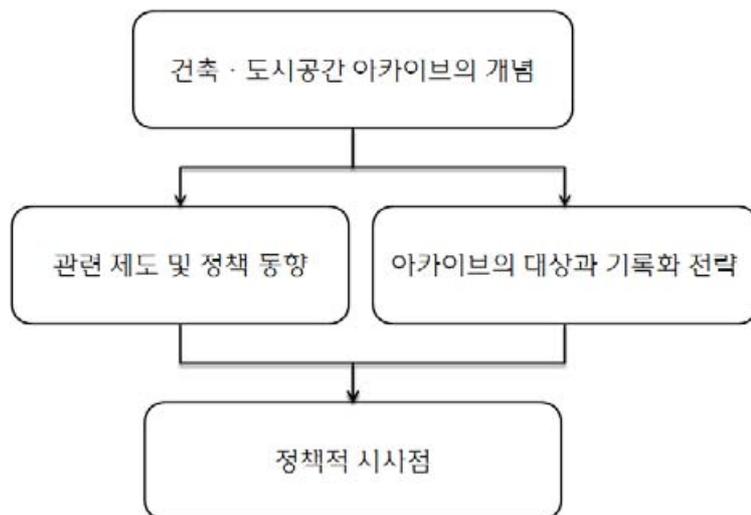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련 정보 기술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기록화가 추진되어야 할 대상들에 대한 의견을 채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범 기록구축 조사연구는,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일대의 피맛골 구간을 사례 대상지로 하여, 재개발 이전의 모습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기록의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3차원 기록, 장소에 대한 인문사회적 기록, 정책적·계획적 사항에 대한 기록을 입체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했으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3차원 기록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준의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²⁾ 실제 수집된 기록 자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넷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동된 연구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제 기록화 작업을 통해, 사라져가는 역사 공간에 대한 기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감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 검토,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대상과 기록화 전략 연구,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피맛골에 대한 현장 조사 작업은 서울대학교 도시건축보존계획 연구실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했음을 밝혀둔다.



〈그림 3〉 연구의 구성

우선,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 검토 부분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에서의 아카이브 개념과 건축 아카이브 개념의 비교·분석, 국내 선행 연구 검토,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

뒤이어,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에서는 건축·도시공간 기록에 관련된 국내 제도와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정보 구축 사업 등의 동향 분석 및 해외의 건축 기록물 활용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후 정책적 시사점 부분에서 기본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을 도출의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대상과 기록화 전략 연구 부분에서는 사례 대상지에 대한 실제 기록 구축 조사 연구의 개요 및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피맛골에 대한 기록 구축 조사 과정에서 시도된 다양한 기록 구축 방식과 기술적 대안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자 하며, 이러한 기록 구축 조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할 정책 제안의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그리고 세부 실천 전략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이다.

II.

건축 · 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

1. 건축 아카이브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2. 건축 · 도시공간 기록물의 특성
3. 소결

(a u r i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

1

건축 아카이브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1)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

(1)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아카이브란 후세의 이용 가치를 위해 보존하는 기록물의 총체 혹은 그러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구를 말한다. 아카이브의 개념은 연구자들에게조차도 일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대 사회는 기록물에 의해 구축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지탱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보 기술과 매체가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인간의 두뇌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 저장된 정보는 모두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기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저술을 남겼다고 해도, 이는 도서관의 관리 대상이지 기록물 관리기관의 관리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기록물 관리 분야의 견해이다(김정하, 2007). 오히려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 각종 자료의 구매 영수증, 지인들과 주고 받은 편지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³⁾

3) 물론 이러한 구분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정부간행물의 경우 일정한 정보 전달을 목

이러한 구분은 기록 관리의 목적과 도서관 운영의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 사회적인 지식의 확산 및 전파에 있다면, 기록물의 관리는 그러한 지식의 원천이 되는 1차적인 사실 관계의 근거를 지속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한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도서관에 소장된 오래된 책으로부터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내용이 아카이브의 기록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 증명이 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건축 도서에서 유명 건축가의 설계 도면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나, 이보다는 공문서 기록관에서 같은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의 준공 허가 관련 문서와 준공도면의 원본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사실 증명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연구와 지식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기록물의 관리는 기록물 생산 시점에서의 사회적 경험을 후세에 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용성은 후세에 기록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초에 화재 사고로 소실된 남대문의 경우, 실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복원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90년대의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에는, 관련된 기록물이 망실되고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했다. 그 이후, 대규모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도면 등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통계나 주택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멸실되는 건축물에 대한 기록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통계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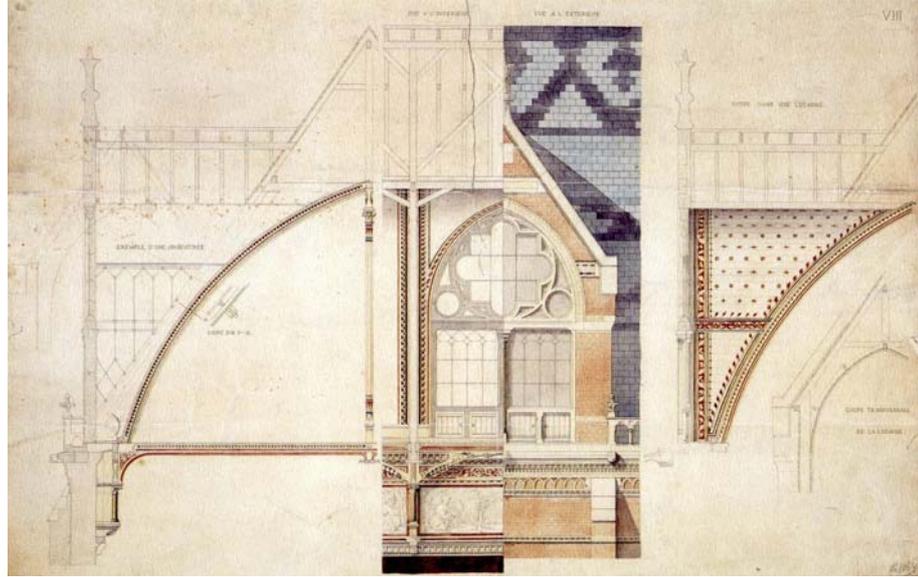
(2)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

건축분야에서의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은 기록물 관리학 분야에서 인정하는 기록물의 개념과 더불어 도면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별 수집물로 볼릴 수 있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재는 아마도 서구의 건축 박물관 또는 건축 아카이브라 불리는 기관의 활동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인다.

서구에서는 건축 기록물 중에서 공공 기록물에 속하는 부분은 국가 차원의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민간이나 학계의 건축 기록물은 주로 건축가 개인이나 건축사 사무소가 소장하는 기록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적으로 생산되는 서적이지만, 정부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정부 간행물의 경우에는 주로 도서관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국가기록원 같은 기록물 관리기관에서도 정부간행물을 공공기록물로 간주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건축 아카이브가 외견상 타 분야의 아카이브와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점 중의 하나는, 건축 아카이브에서 도면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일 것이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도 도면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반적인 기록물의 개념은 주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 중심을 이루지만, 건축과 도시 분야는 인간에 의해 설계되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림 4〉 NAI가 소장한 P.J.H. Cuypers의 설계 도면

설계 도면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 비문자적인 형상 정보가 주를 이루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문자 정보로 변환될 수 있는 정확한 수치와 건축 구법 등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준공도면(as-built drawings)은 마치 건축 공간의 DNA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의 건축물이 준공 도면에 담겨 있는 정보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건축 아카이브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도면 컬렉션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서구의 대표적 건축 기록물 관리 기관인 네덜란드 건축원(The Netherlands Architect Institute: NAI)의 웹사이트에는 이 기관의 기록물 수집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는데, 이는 건축 아카이브가 단순한 도면 컬렉션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준다.

4) 설계나 계획 이전의 현황에 관한 부분은 건조 환경에 대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혹은 측량에 의해 도면에 기록되기도 하므로, 이 관계가 항상 일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기록물 수집을 목적으로 해 왔다. 우리 기관의 소장품에는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도면뿐만 아니라, 스케치와 초기 단계의 설계, 중간 단계의 미완성 도면,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의 서신, 사진, 모형, 언론 보도 내용, 출판된 문헌 등이 포함되어 있다.”⁵⁾

이러한 NAI의 기록물 수집 방침은 건축 설계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건축 행위 전 과정의 기록물이 포괄적으로 수집·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⁶⁾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에서 건축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는 정인하(2003)⁷⁾, 전봉희 외(2004)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인하(2003)는 한국의 현대건축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아카이브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봉희 외(2004)는, 현존하는 건축물은 건축 행위의 결과물일 뿐이며, 그러한 건축물의 생산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을 통해서 건축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술 연구의 기반으로서 건축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전봉희 외(2003)⁹⁾의 연구에서는 건축 아카이브의 필요성 뿐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관점의 논의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시대 학교건축물 도면의 정리 및 해제와, 3차원 건축형상 구축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건축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건축 아카이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건축 관련 기록물의 학술적 중

5) “Our goal has always been to collect complete archives. Besides museum quality drawings, you also find sketches, preliminary designs, working drawings, business and personal correspondence, photographs, models, collections of press clippings, and published articles.”

6) 기록물 관리학자들은 주제별 기록물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록물은 기관이나 개인의 업무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며, 기록물은 기록이 현용기록물 단계일 때의 원질서 속에서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이는 인물이나 장소 등 기록물의 원질서 이외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주제별 기록물을 구성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건축 및 도시에 대한 기록물이 종합적인 기록물 관리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7) 정인하(2003), “한국 현대건축사 연구와 아카이브”, 건축

8) 전봉희·우동선·이우종(2004),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3), p101.

9) 전봉희 외(2003), “건축 아카이브의 보존, 운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요성을 환기시키고, 건축 기록물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는 도면 기록물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관련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건축과 도시 분야의 통합적 기록물 관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공간에 대한 기록화 방식에 관한 논의 등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논의를 보완하여,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록물의 구축 및 관리와 활용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2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특성

1)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유형

(1) 공간 기록물과 비공간 기록물

종이 위에 수록된 도면이 핵심적인 건축 기록물로 취급 받던 19세기와는 달리, 현재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에 관한 기록이 생산되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물리적 공간 자체를 규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기록과(공간 기록물), 기관 및 개인의 활동에 관한 기록(비공간 기록물), 그리고 기관이 생산한 서적이나 보고서 같은 복합 기록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록의 유형

범주	사례	관리수단
공간 기록물 (Spatial Records)	물리적 공간상의 참조점을 가지는 기록물	지구단위 계획
비공간 기록물 (Aspatial Records)	기관이나 개인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등의 기록물	경관계획
혼합 기록물 (Mixed Information)	관련 서적, 보고서 등	건축디자인 기준

(2) 참조적 기록과 계획설계적 기록

공간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참조점을 가지는 기록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주로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발달되어 온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취급되는 공간 데이터는 표준화된 좌표 시스템 상의 참조점을 가지는 전자적 데이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 기록물이란, 이러한 기술적 기반이나 표준에 의하지 않고서라도 특정한 공간을 규정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이 공간 기록물의 범주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건축·도시 분야가 본질적으로 인간 정주지의 계획, 설계, 관리 등을 주된 업무 영역으로 하기 때문이다.

〈표 3〉 공간 기록물의 범주

범주		사례
2차원적 공간 기록물	참조적 기록	지도, 위성영상, 동영상, 준공도면, 연속지적도
	계획설계적 기록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본계획, 평면도,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3차원적 공간 기록물	참조적 기록	3차원 GIS 자료(DEM 등), 레이저 측량 기록, 사진, 파노라마 촬영 기법 등
	계획설계적 기록	건축 모형(디지털 모형, 실물모형), 계획도면

공간 기록물은 공간 묘사의 방식에 따라 2차원적 기록과 3차원적 기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록의 의도에 따라서는 참조적 기록과 계획설계적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참조적 기록과 계획설계적 기록의 관계가 엄밀하게 양분되기는 어렵지만, 참조적 기록은 주로 현재 공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산되며, 계획설계적 기록은 미래의 공간을 규정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적 기록과 계획설계적 기록 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기록 내용과 실제 물리적 공간간의 관계가 얼마나 확정적이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준공도면(As-built drawings)은 공간에 대한 계획적·설계적 의도의 최종 산출물이지만, 실제 건축물의 물리적 공간은 불법적인 구조 변경과 같은 비공식적 행위의 결과를 제외한다면, 준공도면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물의 준공도면은 참조적 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계획설계적 기록물은 기록된 내용과 물리적 공간의 관계가 불확정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차원의 계획 및 설계의 경우 계획 및 설계의 내용이 물리적 공간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계획의 내용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에 대

한 구상이나 계획도면의 내용 역시, 실제로 지어지는 건축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종류의 기록이 모두 소중한 연구의 재료가 될 것이다.

2) 건축 공간 자체의 기록 방법

기록의 형태가 평면적인지 입체적인지는 주로 기록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어떤 도시에 대해 정확한 3차원적 공간 기록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기술적·비용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때문에, 거시적인 스케일의 공간 기록에는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과 같이 원격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 기록의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원격 탐사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종류의 기록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된다. 공공에서 제작하는 지도나 GIS 정보는 대부분 이와 같은 원격 탐사 기술로 취득된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 탐사 기반의 공간 기록 방식은 3차원적 건축 공간 기록의 방법으로는 정밀도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3차원적 건축물 형상 정보를 포함한 공간 기록을 구축하는 일 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림 5〉 구글 어스에서 제공되는 3차원 도시 형상

물론 구글 어스와 같은 민간 정보 업체에서 이에 대한 시험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3차원 지리 정보는 도시 전체의 경관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건축 공간의 원형을 재현하기에는 기록의 정밀도 자체가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구글 어스에서 제공되는 3차원 도시 형상 정보는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현실감 있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일견 근사해 보이는 3차원 지리 정보는 인간의 눈높이로 전환해 보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한계는 본질적으로 3차원 지리정보가 원격탐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상용 GIS에서 쓰이는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의 측정 오차는 약 60센티미터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 공간을 재현하기 위한 기록 수단으로서의 지나치게 해상도가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축 공간은 아무리 거칠더라도 센티미터 단위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정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6〉 실제 사람의 눈 높이에서 본 구글 어스의 3차원 도시 형상

건축 공간 스케일의 참조적 3차원 공간 기록 기술 중 가장 정밀한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레이저 스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물리 공간에 대한 측정 및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짧게는 반경 수 미터로부터 수 킬로미터 내의 물리적 공간을 수 밀리미터 내외의 오차 범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건축 공간의 원형을 담고 있는 정밀한 준공도면이 실재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완전한 기록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도면에 의해서 생산된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기록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건축 설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산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근시일 내에 준공도면 자체가 3차원 전산 모형으로 생산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도면정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구축 및 관리보다는 계획 과정이나 건축가의 아이디어 전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확보와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건축 공간 기록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진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에 의한 기록은 도면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공간적 정황이나 공간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사진에 촬영된 공간의 계측이나 재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3차원적 공간 기록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2장 이상의 사진을 통해서 사진에 촬영된 피사체의 공간적 위상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사진계측술(Photogrammetry)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하지만, 그 정밀도나 활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¹⁰⁾

3) 건축·도시 기록물의 관리 특성

기록물은 생산 및 폐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통해, 현용기록물, 준현용기록물, 역사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용 기록물은 기록물이 사실 증명, 시설 관리 등과 같은 생산 기관의 일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단계로, 이 단계의 기록물은 생산 기관에 머무르게 된다. 준 현용 기록물은 기록의 사용 빈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업무상에 참조가 되는 기록물로서 생산기관에서 관리되거나 혹은 준현용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별도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록물의 생애주기상 최종적인 단계는 역사기록물 단계이다. 기록물이 업무 목적의 사용이 끝나게 되면, 기록 전문가의 평가 과정을 거쳐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 처리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사후의 활용을 위해 보존되게 된다. 아카이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역사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 항공영상 분야에서는 사진계측술을 이용한 도시 차원의 모델링 기술이 새로운 기술적 시도로 각광받고 있다.

〈표 4〉 기록물의 생애주기

구분	개념	특징
현용기록물	기록물이 증빙, 관리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계	생산기관에서 관리
준현용기록물	기록의 사용 빈도가 줄었으나, 여전히 보존할 이유가 있는 기록물	생산기관 혹은, 준현용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관리
역사 기록물	실무적인 사용은 중단되었으나, 연구 목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의 관리를 받거나 폐기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은 역사 기록물 단계로 이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건축·도시공간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은 기록물과 관련된 건축물 혹은 도시 시설의 내구 연한이 다하거나 혹은 교체될 때 까지 현용기록물 혹은 준현용기록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민간기록물 역시, 회사의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을 역사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공간에 관한 기록물 이외에는 정책적 대상이 되기 어렵다. 사실상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 기록물 중 정부수립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은 대부분 행정 기관으로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

소결 :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개념의 제안

3

이상에서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 및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록물 관리학 분야에서의 아카이브 개념은 개인 혹은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총체, 혹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건축 분야의 아카이브 사례를 살펴 보면, 주제별 수집물로서의 아카이브 개념과, 기록물의 총체로서의 아카이브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건축 아카이브는 건축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공 및 민간 기록물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공공 기록물 중 도면류의 관리 및 서구의 건축 아카이브 사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기존의 건축 아카이브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건축적 공간의 변화에 대한 기록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토와 도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도와 위성영상, 각종 통계 등에 의한 기록 정보 구축과 활용 체계가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반면에, 미시적인 건축적 공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건축 설계 도면과 사진 기록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기록 수단 그러나 건축 설계 도면에 기록된 정보만으로는 건축물과 여러 가지 시설물의 집합으로 구성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다. 사진은 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의 실제 모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3차원적인 공간감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도면과 사진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는 최근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3차원 레이저 측량 기록술이나, 사진 측량, 전방위 파노라마 사진 촬영 기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 후반부의 시범 기록화 작업의 과정에서 그 효용과 특성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축 아카이브 개념을 확장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건축 아카이브 개념은 건축가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록물 관리의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의 건축·도시분야는 빠른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축 공간의 변화는 도시 차원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과정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련된 공공 기록물은 다른 분야의 기록물에 비해 역사기록물 단계로 이행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관리에 있어서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 중심의 기록물 관리 정책은 정책적 유용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건축 행위를 포함하는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기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체계로서 재정의하고자 한다.

III.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1. 관련 제도 검토
2. 국내의 건축·도시 정보 구축 사업
3. 해외의 건축·도시 기록정보 관리와 활용
4. 소결

(a u r i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1 관련 제도 검토

1) 개관

건축·도시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공공 기록물에 관한 제도는, 기록물과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제도 및 법제와, 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조사·기록에 관한 법·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 기록물과 정보의 상당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다. 이 중에 정식 문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그 관리를 총괄하며, 국가 기록원에 이관되기 이전의 기록 및 공공 행정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 가능 여부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은 이들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록물의 생산과 관련된 사항(의무 기록 대상, 기록 및 편철 방법 등)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2) 공공기록물 관리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의 기록정보에 관련된 법률에는 크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먼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 기록물 관리 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책 결정과 사업 시행의 각 단계에서 기록물 생산 및 기록물 관리 전문 기관 설치의 의무를 가지며, 이렇게 설치된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와 기록물을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도시분야의 공공 정보와 기록물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투기 우려와 정책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공개가 제한되어왔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기록물 중 상당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록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기구의 설치, 기록물 생산의 의무,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등이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법 제9조, 영 제6조)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이 설립 및 운영중이며, 공공기관의 기록관(법 제13조, 영 제10조,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법 제17조 제1항, 영 제17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법 제17조제3항, 영 제19조)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행전·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표 5〉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대상

(전략)
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⑥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⑦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⑧.....
⑨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당해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⑩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 (중략) ... ,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조사·연구소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영 제18조).

건축·도시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사업 시행 전후의 모습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품질이나 기록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시행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각급 기관별 기록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제별·분야별 기록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된 바 없으며, 정부의 기록관 설치 이행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요 회의의 회의록 생산은 법규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저항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이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및 보유 정보의 목록 공개, 비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 및 제7조)는 다음과 같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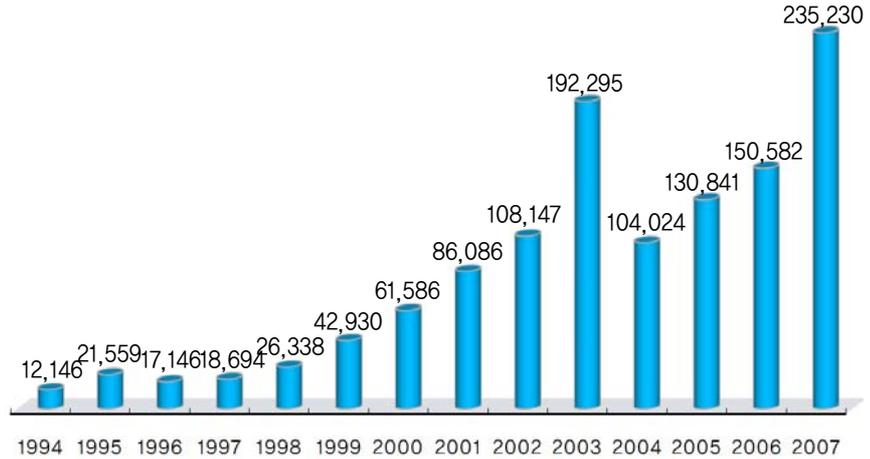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청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출처: 2007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그림 7〉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에 의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청구 건수 변화 추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보면 자료 부존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기관 정보 비공개 사유 (단위: 건수)

구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제1호)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타
계 (%)	18,180 (100)	4,149 (23)	103 (1)	186 (1)	851 (4)	1,111 (6)	2,888 (16)	913 (5)	486 (3)	6,624 (36)	869 (5)
중앙 행정 기관	7,885 (100)	1,265 (16)	89 (1)	114 (1)	640 (8)	553 (7)	1,522 (19)	392 (5)	121 (2)	2,761 (35)	428 (5)
지방 자치 단체	8,946 (100)	2,606 (29)	13 (1)	69 (1)	188 (2)	333 (4)	1,061 (12)	484 (5)	341 (4)	3,434 (38)	417 (5)
사도 교육 청	1,296 (100)	275 (21)	1 (0)	3 (1)	19 (1)	220 (17)	302 (23)	32 (2)	24 (2)	399 (31)	21 (2)
기타 공공 기관	53 (100)	3 (6)	0 (0)	0 (0)	4 (8)	5 (9)	3 (6)	5 (9)	0 (0)	30 (56)	3 (6)

구체적인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공개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도면 등의 정보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영업상의 기술이나 비밀의 보호 등의 이유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007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심판 사례 중 일부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결과	사유
848	신축건물로 일조권의 침해, 자료로 건축허가 도면사본 요청	영등포구	기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에 의거 이해당사자인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공개” 요구
849	동작구 사당동000-00 건축물 건축허가도면	동작구	기각	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은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당해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내용

이의신청 오산, 화성, 평택의 도시기본계획 공개			
- 등록기관명	행정안전부	- 등록일자	2008-01-24
- 공개 청구 내용			
오산, 화성, 평택의 도시기본계획 공개			
- 처분기관			
경기도			
- 처리결과			
기각			
- 이유(처리결과 요지)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인 관할시장이 판단할 사항임.			

〈그림 8〉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결과

또한, 주요 정책 의사결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공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문화재 보존 관련 기록제도 및 기록현황

(1) 문화재 지표조사

개발사업에 따른 공간의 조사·기록에 관한 제도 중의 하나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제91조에 따라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의 조사¹¹⁾를 말하며, 이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의 훼손·멸실·수몰을 방지하고 문화재 주변경관의 훼손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3만 m²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대상이며 이외에도 지하굴착

11)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2008. 6. 10. 개정)

이주가 되는 사업,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른 부지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¹²⁾등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표조사의 시기는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인 입지선정시에 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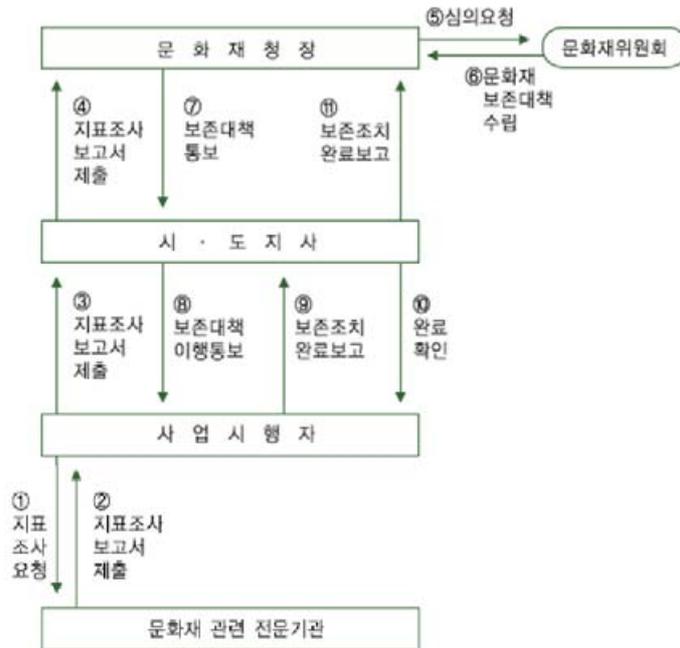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게 위탁하여 시행하며 지표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 및, 대상지의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와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요소 등을 조사 분석하고 그 관련대책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표 8〉 문화재 지표조사 내용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유상 지표 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1)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2)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2) 현장조사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의 좌표값(경위도-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담애면 등에서 확인가능한 토층유구층,토양색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외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3) 탐문 및 설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자료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2008)

- 12)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임목(임목)·죽(죽)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등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 1. 최종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되었으나 1999.7.1 당시 착공전인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1999.7.1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 중인 장기 계속사업, 연차 또는 분할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사업계획 승인전인 사업 중 잔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3.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성된 부지(택지, 공장용지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그림 9〉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 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의 위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조사에는 사전조사(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 및 탐문조사를 행하고 있다.

2008년 11월 말 현재, 문화재청에 접수된 착수현황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지표조사는 6,297건 3,257km²의 지역에 대해서 시행¹³⁾되어 왔고, 시행완료된 지표조사에 투입된 비용은 342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렇게 시행된 지표조사들은 모두 유물과 유적, 그리고 마을의 민속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유물·유적 관련 부분을 제외한 조사 내용의 기록은 조사시행자의 시점으로 구성된 탐문내용과 현황사진이므로 이를 통해 그 지역의 삶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표조사의 본질은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발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지, 지표상에 드러난

13)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 통계, 문화재청(2008)

유적·유물은 조사지역 유적들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표 9〉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 현황

연도별	지표조사		발굴조사		계		비고
	건수	비용 (억원)	건수	비용 (억원)	건수	비용 (억원)	
2005	1,510	108	1,152	1,647	2,662	1,755	
2006	1,382	120	1,300	2,148	2,682	2,268	
2007	1,530	114	1,259	2,182	2,789	2,296	
'08.8	1,060		593		1,653		
계	5,482	342	4,304	5,977	9,786	6,319	

자료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08)

(2) 건축문화재 실측 기록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해 등에 의해 소실될 위험에 대비하여 건축문화재들의 정밀 실측 자료를 구축·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남대문 화재 등으로 인한 문화재 소실로 인하여 문화재의 실측기록화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사찰이나 고건축물 뿐만 아니라 구러시아 공사관, 원효로성당, 정동교회 등 근대건축물에 대한 정밀 컴퓨터 정밀 실측작업의 실시를 통한 조사보고서와 이를 기록한 CD-ROM을 제작하고 있으며 각 건축물의 연혁 및 문헌내용, 건축물의 특성 및 양식, 건축도면, 관련사진 등을 통해 필요시 실제 모습을 복원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측기록 작업은 건조물이나 유적 등의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3D 스캔이나 영상촬영, 정밀실측 등을 통해 기록하고, 기·예능 등과 같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영상기록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건축 및 도시공간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일반인의 관심도 증대되어 이러한 수요에 의해 구축된 기록물은 기록문화유산포털(<http://memorykorea.go.kr/>),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사이버 문화재 탐방(<http://visit.ocp.go.kr>)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기록 자료 및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표 10〉 문화재 실측기록화 사업현황

사업명	총 대상 (건수)	완료 (건수)	'08년 계획 (건수)	비고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정밀실측	150	112	3	실측기록
근대건축물 기록화	372	115	19	
전통가옥 기록화	147	27	7	
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76	34	17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71	22	6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176	81	3	
천연기념물공룡발자국화석지 3D기록 보존	3	0	3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64	46	2	영상기록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123	104	7	
신규명승 경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8	0	8	
계	1,190건	541건	75건	

자료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08)

국내의 건축·도시 정보 구축 사업

2

1)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보화 사업의 현황

(1)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기반으로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국토의 이용과 보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80개 법령사항을 비롯하여 공간자료, 속성자료, 관련 법령을 DB화함으로써 지자체 토지행정업무를 정보화하고 있다. 공간자료는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을, 속성자료는 토지거래, 개별토지특성, 지가자료 등을, 그리고 관련법령으로는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을 지칭한다. 이들의 DB 구축을 기반으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는 행정업무 관리, 정책수립 지원, 그리고 민원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법령 정비 및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지

침 마련, 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표 11〉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내용

	공간 자료	속성 자료	관련 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거래, 개별토지특성, 지가자료 등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응용시스템 개발	행정업무 관리	정책수립 지원	민원서비스
	토지거래허가, 공사지가, 개별 주택가격, 부동산중개업관리등 토지행정업무 관리	토지정책, 공간계획 등 정책수립 지원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열람/발급, 중개업소 열람 등 민원 서비스
제도 정비	법령 정비 및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홍보 및 교육
	법령 정비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마련	홍보 및 교육
시스템 운영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토지관리정보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토지관리정보망

자료 :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방안시스템의 발전방향(국토해양부, 2008)



자료 :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방안시스템의 발전방향(국토해양부, 2008)

〈그림 10〉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배경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등 7개 부처의 9개 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국토의 이용 및 보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데 연계 및 통합의 대상인 9개의 시스템은 <표 14>와 같다.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국토통합정보체계의 구현을 위하여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국토관리체계 구축, 국토지식체계 구축, 그리고 3D 기반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국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2〉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내 7개 부처 9개 정보시스템 목록

부처	시스템	데이터	
		주요자료	제작축척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자체 (지적, 용도지역지구)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1/500~1/25,000 지적·지형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KLIS 준용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종합정보시스템	농업진흥도, 농지전용허가도 등	KLIS 준용
국토해양부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연안정보도	수치해도
	갯벌정보시스템	해양보호구역, 갯벌전자지도	-
환경부	생태자연도	정밀녹지자연도, 임상도 생태권역도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현황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경지정리현황도	1/25,000
산림청	산지관리정보체계	수치산림이용구분도	KLIS 준용
문화재청	문화재GIS종합정보망	국가지정문화재관리도면 지정문화재대장	KLIS 준용

자료 :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방안시스템의 발전방향(국토해양부, 2008)

단계별 추진목표로서 1단계 2008년까지는 국토조합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 2011년까지는 보전용도 정보체계를 강화하며, 3단계 2011년 이후에는 국토통합정보체계를 고도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과학적 국토관리의 지원, 토지정책 및 의사결정의 지원, 공간자료의 유통, 지자체 토지관리업무의 지원, 민간 비즈니스의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간 DB 공동활용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건물공간정보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의 건축물대장 기본속성정보 등을 건물단위로 통합한 정보를 의미한다.



자료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이한주, 2008)

〈그림 1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주요 항목

건축물의 속성자료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공간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업무의 수행 및 대민서비스의 수행에 있어 제약과 비효율성, 그리고 자료 불일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는 건축물의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하고 나아가 건축물자료와 토지자료를 통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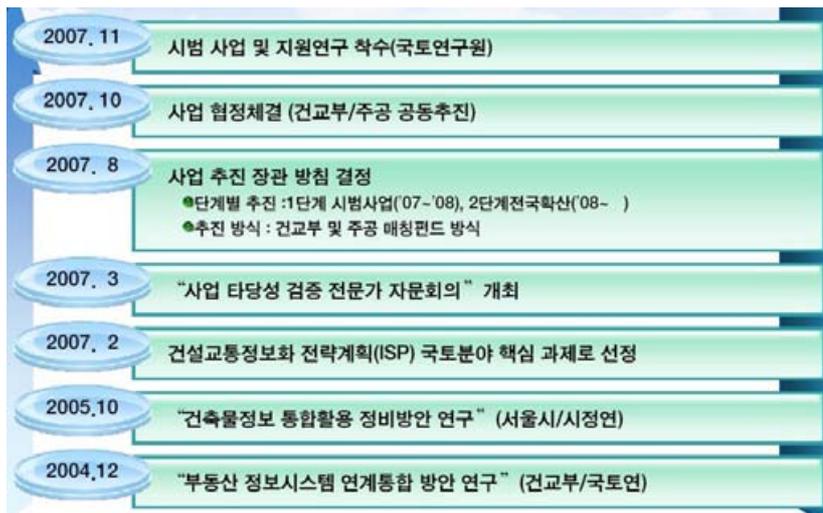
구분	수치지도 건물	KLIS 건물	건물통합정보
제공정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도 일괄 갱신으로 건물자료 갱신 기간이 길어 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구조화 편집 관리체계 부재로 지형도 갱신지역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KLIS지형도, AIS 건축물대장을 결합하여 구축 AIS 건축물평면도를 활용하여 지속적 갱신
속성내용	건물명, 축척, 건물형태	건물명, 건물형태, 건물용도, 지형지물부호, 국가기본도코드 ...	고유번호, 건물명, 토지코드, 건물높이, 주용도, 건물종류,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 ...
최신성	낮음	낮음	높음
위치정확성	높음	높음	높음
연계활용성	낮음	낮음	높음

자료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이한주, 2008)

〈그림 12〉 기존의 수치지도 건물 및 KLIS 정보체계와 비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통합정보의 DB 구축'이다. 전국 지자체의 건축물 약 680만동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제공하는 건물경계(공간정보), 세움터(e-AIS)에서 제공하는 사용승인일, 구조,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추후 예정된 가격정보 등을 통합하여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다. DB 관리는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지자체 보급 → 지자체 건축행정업무 전산처리과정시 건물통합정보의 갱신 → 건물통합정보를 건교부로 취합하여 분석 및 활용 순으로 수행된다. 셋째,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의 지원연구'이다. 연구를 통하여 시범 및 본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검토하여 연구에 피드백하는 순환시스템을 통하여 건물통합정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은 수요층에 따라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앙정부의 주택/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고,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시 지원하며, 국토공간계획 분석을 고도화/과학화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토지/건물 공시가격 산정에 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건축인허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세업무 및 유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얻을 것이다. 유관기관과 관련해서 도시정비, 택지개발, 토지보상 업무의 지원, 경찰청 및 소방방재 업무의 지원, 통계청 인구주택 센서스 조사업무의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민간의 경우 각종 LBS(Location-Based Service), 상권분석 및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이한주, 2008)

〈그림 13〉 추진경과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 12월에 “부동산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방안연구”의 착수를 시작으로 2007~2008년에 1단계 시범사업 및 2008년 이후 2단계 전국적 확산의 과정을 따르고 있다. 2007년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소사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 바 있고, 2008년 3월에서 8월까지 서울 6개 구청, 대구 전역, 광주 전역 등 6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추진중이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건물통합정보 DB구축 및 건물통합정보관리 시범시스템 개발이다.

(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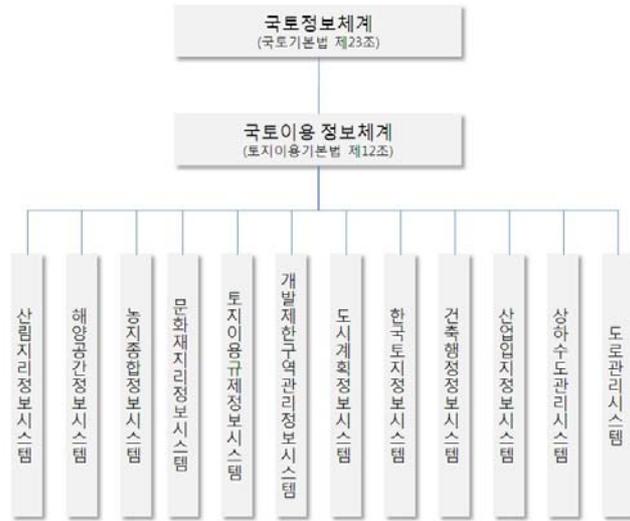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 관련법에서 규정한 도시, 비도시 지역의 계획 및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현황자료, 이력자료 등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유지 및 관리, 갱신하고 행정업무 전산화와 계획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환경을 구축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인력, 조직, 교육, 제도 등의 기반환경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말한다.

〈표 13〉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사업추진 경위 및 관련 법률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사업명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연구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범사업 I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범사업 II
주요내용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방안 제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업무프로세스정형화(BPR)	프로토타입구축 국토이용정보체계 기본구상
관련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구 분	2005년	2007년	2008년
사업명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전략 연구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1차년도)
주요내용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시범시스템 구축	DB구축 원가산정기준 UPIS구축사업추진방안 시군구 참조시스템개선방안 건교부 및 광역시도 시스템 구축방안	10개 지자체 DB구축 시군구참조시스템 개선 건교부시스템개발 광역시도참조시스템개발
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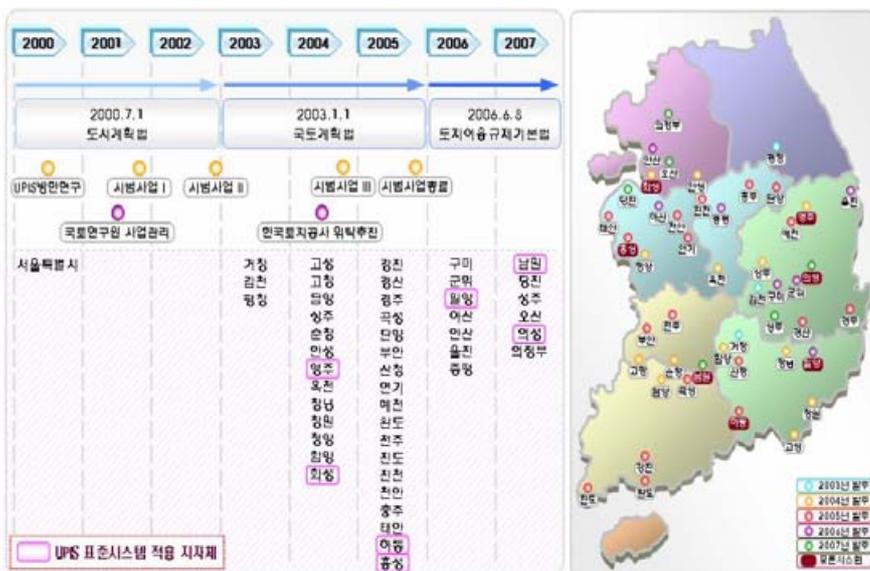
자료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안중옥, 2008)



자료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안종욱, 2008)

〈그림 14〉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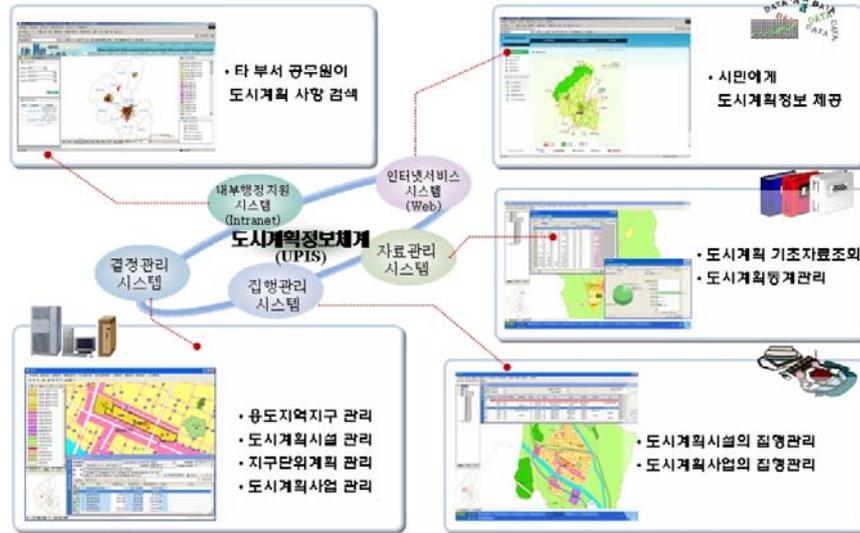
조사결과 2008년 1월 현재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포함하여 약 80개(35%) 자치단체에서 UPIS 구축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이다.



자료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안종욱, 2008)

〈그림 15〉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현황

2008년 추진되는 UPIS 확산사업에서는 기구축된 표준시스템을 일선 시군구의 요구 및 국토해양부, 광역시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안종욱, 2008)

〈그림 16〉 시군구 도시계획정보체계 참조시스템의 개선방향

(4)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는 첨단정보기술과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대상범위는 크게 국토현황분석, 도시재생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지원, 그리고 국토시뮬레이션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에서 국토정책 및 계획과정을 지원한다.

〈표 14〉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대상범위

국토현황분석	도시재생계획	도시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지원	국토시물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현황다차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지표 분석모형 -공간분포 분석모형 •공간구조 측정 모형 •인구변화분석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적 인구변화 모형 -미시적 인구이동 모형 •토지수요-공급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용지 수급 예측 -산업용지 수급 예측 •지역개발사업관리지원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내부공간관리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잠재력 분석 -개발용량 분석 모형 -부지특성 분석 모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특성 분석 모형 -지구지정 지원 모형 •개발밀도계획지원모형 •경관계획지원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관모형 -미시경관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입지계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문화체육시설군 입지분석모형 -공간시설군입지 분석모형 -교통시설군입지 분석모형 -유통공급시설군 분석모형 -방재시설입지 분석모형 -환경기초시설 입지분석모형 •기반시설공급적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부하량측정 모형 -시설개발가능용량산정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개발가능지 분석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잠재력분석 모형 -보존잠대력분석 모형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별 적지분석 모형 -용도별 입지배분 모형 •토지이용-교통파급효과 측정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행수요발생모형 -통행수단선택모형 -입지선택모형 -통행배분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시물레이션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시물레이션모형 

자료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임은선, 200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단계의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2006년에는 제1단계로서 “연구사업 및 실험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2007년에는 제2단계로서 “모형의 추가개발 및 시스템 기능 향상”을 수행하였다. 2008년 현재, 제3단계로서 “시스템의 실용화 및 모형의 추가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료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임은선, 2008)

〈그림 1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5단계 사업



자료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임은선, 2008)

〈그림 1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활용의 예

(5) 3차원 GIS 정보화 사업

국토해양부는 2007년 3월부터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GIS)를 이용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도시계획지원시스템, 도시침수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지자체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 이미 수원, 인천 등 5개 지자체와 2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펼친 바 있고, 2008년에는 오산, 대구 등 6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RFID 전자태그를 활용한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에 방문할 때에 먼저 대구관광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여행정보 및 3차원 GIS에 기초한 대구지리를 사전에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성남시는 ‘3차원 입체영상활용 예측행정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인데 성남 전지역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과 항공 레이더 촬영을 통해 3차원 입체영상지도로 제작하여 지형과 건축물, 시설물을 입체화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업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예측행정시스템은 이외에도 재개발 시뮬레이션, 3차원입체영상 사이버관내도, 그리고 연도별 도시변천사 비교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자료와 연계해 도시계획 및 지적, 건축정보 등 다양한 행정기초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GIS 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체계는 전국의 문화유적을 DB로 구축하고 유적정보와 지리정보를 통합하여 인터넷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문화재 주변 유적지의 1:5,000 축척의 정밀수치지형도에 현재의 지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3차원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6) 건축물관련 정보유형 및 자료속성

계획 및 설계과정의 정보들은 인허가 과정의 도서를 제외하고는 주로 민간 설계사무소나 건설시공사에서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건축물의 준공시 건축계획서(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기본설계도서(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설비도 등)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도서 정보가 구축될 수 있다.

건축물의 생성, 이기, 전환, 말소 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현황 및 소유자 현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일반건축물(상세현황) 저장 닫기

◆ 동별개요

주부구분	주건축물	주부일련번호	1	외필지수	<input type="checkbox"/>
건축물명칭		동명칭 및 번호			
층도		특이사항			
지붕		구조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면적	m ²	용적률상정용 면적	m ²	용적률	%
세대,오/가구	/	지하/지상층수	/	층	높이
부속건축물	m ²				m

동별현황 소유자현황 행위자/부대시설 관련지번

◆ 소유지현황

변동일		주민등록번호	선택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지분	/				
주소	주소검색				
※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주소 중 (읍/면/동) 명을 입력 하신 후 Enter를 치시면 해당 주소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당동 → Enter					
변동일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림 19〉 건축물 대장의 정보 (자료 : 세움터 건축물대장 사용자매뉴얼)

건축물의 위치나 필지 내 입지, 주변여건 정보에 대해서는 수치지형도와 항공도를 통해 정보를 구축할 수 있으며, 최근 위성영상지도서비스로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포털사이트¹⁴⁾들을 통한 정보구득이 용이해졌다.

2) 공간이력 기록 사업

(1) 지감(地感)자료 구축

기성시가지의 과밀 및 노후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 대상지 및 정비사업 대상지를 전면철거 후 개발(scrap & build)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단절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원주민들이 공간에 대한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도록 돕고,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

14) <http://earth.google.com> 등

적 지속성이 구현된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신도시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 대상지역에 실제해 온 기존 공간을 기록하는 작업은 국내에 선례가 없어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도되고 있는 일부 신도시, 뉴타운 개발 대상지 사례에서도 그 기록 방법이나 범위 등에 대한 특별한 법적, 내용적 기준이 없는 채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이 공간정보화사업의 중요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광고 사업지구 내 민속, 문화, 생태 및 생활사 자료를 수록하기 위하여 4년간 발굴,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분류·수록하여 국내 신도시로는 최초로 지감보감(地感寶鑑)을 발간한 바 있다. 더불어 지감유물 134종 550여 점, 사진 6천여 점, 동영상 3시간 20분, 소리음원 2시간 등을 광고신도시 내 홍보관에서 상시 전시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 마을의 유산 및 개발의 전과정을 기록하여 도시컨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기타 공간 기록 사업

한편, 공간기록을 도면이나 사진 등의 전통적인 기록매체가 아니라 공간 내에서 영위되는 삶을 그대로 기록하는, 좀 더 확장된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인시티(Art in City) 사업에서는 소외되거나 사라져 가는 도시공간에 거주민들과 함께 주민참여형 공공미술을 추진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사진과 동영상, 책으로 기록하여 타임캡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 대상지로 광명시 철산동 재개발구역, 광주광역시 중흥동 재개발구역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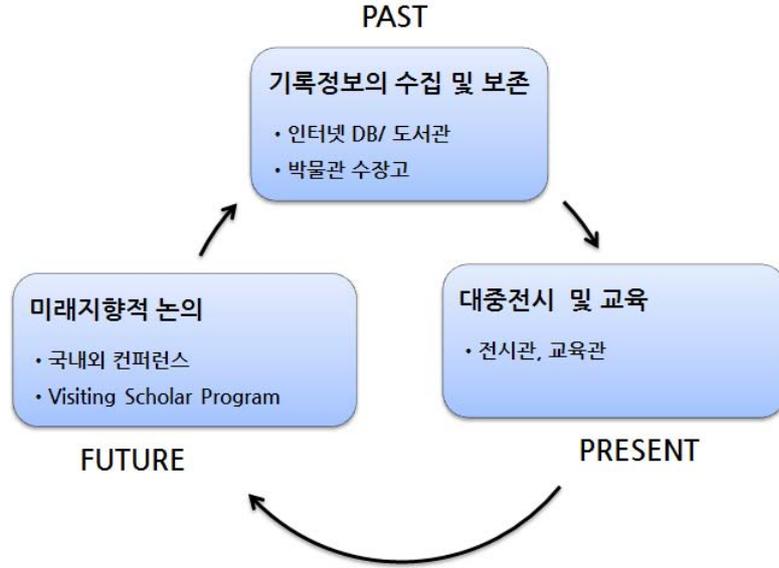
해외의 건축·도시 기록정보 관리와 활용

3

1) 해외의 건축 기록물 관리와 활용

프랑스, 네덜란드 등 건축문화 선진국의 경우, 기초 자료의 수집 및 관리(아카이브), 현재 활동의 전시 및 대중화(전시관/박물관), 미래지향적 논의(컨퍼

런스 등)로 이어지는 건축·도시문화 기록정보 활용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자국의 건축문화 증진에 선순환고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2) 건축·도시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 사례¹⁵⁾

(표 15) 조사 대상 기관의 일반현황

명칭	주요활동	연면적(m ²)	기타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산관	전시, 교육(아동 및 학교, 시민, 전문가 등), 아카이브,	22,660	작업실+수장고 2,540m ²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 보관소	아카이브	2,000	
네덜란드 건축협회	전시, 교육(학교, 전문가), 아카이브, 연구 등	9,230	수장공간 4,500m ²
독일 건축박물관	전시, 아카이브, 행사유치 등	3,155	자료관 600m ²
캐나다 건축센터	전시, 교육(학교, 시민, 전문가), 아카이브, 연구 등	14,900	
미국 국립기록관리소	아카이브		
미국 에이브리 도서관	도서관, 전시 등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전시, 아카이브	1,400	

15) 이하의 내용은 파리의 '20세기 건축기록보존소'와 '빠비용 드 라흐스날'(김도년외, 2003.08), 콜럼비아 대학교 에이브리 건축 및 예술 도서관(정현태, 2003.08), 독일 건축 박물관(백경무, 2003.08), 네덜란드 건축협회: 복합적 프로그램 운영의 조직적 구현(신승수외, 2003.08)을 인용 및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관련주체

조사 대상 기관들은 대개의 경우 공공의 주도로 건립되었지만, 일부는 민간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산관,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관소, 미국 국립기록관리소, 그리고 싱가포르 도시갤러리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록보존, 문화향유의 기회확대, 시민홍보, 도시/국가마케팅 차원에서 건립되었다. 이에 반해 독일 건축박물관과 캐나다 건축센터의 경우 민간에서 건립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이다. 독일 건축박물관은 현재 재단의 회장인 하인리히 클로츠(Heinrich Klotz)의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건립되었고, 캐나다 건축센터 역시 필리스 램버트(Phyllis Lambert)의 주도적 활동을 통하여 건립되었다.

기관운영을 전담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협회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개관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재단을 통하여 운영되며 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 외에 운영상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 건축박물관, 캐나다 건축센터 등은 독립재단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현재는 이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기관운영은 새로운 관장 및 직원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2) 재정확보방안

대부분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산관,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관소, 미국 국립기록관리소,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등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의 재정지원이 당연시되는 곳들이다. 그러나 독일 건축박물관은 입지한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사실상 예산의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네덜란드 건축협회는 운영주체가 독립재단임에도 국가/지방정부로부터 약 85%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캐나다 건축센터의 경우 국가/지방정부의 예산지원비중은 약 10%로서 대부분의 예산을 기증 및 기부를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미국 국립건축물박물관(National Building Museum)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총예산의 약 50% 이상을 기증 및 기부를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발달한 북미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낮은 장점이자 동시에 경기 호황 또는 불황에 기관운영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3) 기관의 성격

조사 대상 기관의 성격은 크게 도서관, 아카이브, 그리고 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결합, 박물관 내 아카이브 및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전통적인 의미의 역사박물관과는 다른 독특성을 갖는다.

도서관은 문헌자료의 수집, 체계화, 열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며 역사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의 경우 별도의 보존방식을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전시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네덜란드 건축협회, 콜럼비아 대학교 에이브리 건축 및 예술 도서관 등이 도서관에 해당된다.

아카이브는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문헌자료를 다루지만 정부 또는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물 전부 혹은 일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갖는다. 즉, 당장의 활용가치를 찾지 못할지라도 기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존하는 기관이다.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관소, 미국 국립기록관리소 등이 아카이브에 해당된다. (네덜란드 건축협회는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도시건축분야의 박물관에서는 주로 모형자료 및 심미적 가치를 갖는 도면류,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갖는 문헌류 등을 소장하거나 수장한다. 전통적 박물관에서 진품여부를 중시했다면 현대의 박물관에서는 전시 및 학습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기록물' 관리 기관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박물관에서는 전시관 외에 도서관 및 아카이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산관, 독일 건축박물관, 캐나다 건축센터, 미국 국립건축물박물관 등이 박물관에 해당한다.

(4) 기록물의 수집방식

네덜란드 건축협회의 경우, 19세기 중반 '네덜란드 건축문화증진협회'와 '건축과 건축인 협회'의 활동이 현재 컬렉션의 기초가 되었다. 이어 1923년 빌헬미나(Wilhelmina) 여왕의 통치 25주년 기념 건축전시회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자발적 작품기부를 통하여 컬렉션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과정에서 건립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1955년에 설립된 건축박물관재단, 이 재단의 요청으로 1972년에 설립된 정부운영지원조직인 네덜란드 건축문헌센터, 그리고 건축시장의 소비자조직인 주택재단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각각 수집 및 보존해 오던 자료들이 통합되어 현재의 컬렉션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램 콜하스 등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의 사무소로부터 기록물을 기증받는 형식을 통하여 점차 컬렉션을 추가하고 있다.

20세기 건축기록보존소의 경우, 19세기 말 이후의 대표적 프랑스 건축가들의 자료의 발굴 및 보존이 목적이다. 건축자료를 영구보관하지는 않으며, 일정기간(5~6년간) 보관 후 파리지 기록보존소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집자료는 1890년부터 1990년도까지의 건축자료로서 도면, 모형, 스케치, 서신 등인데 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건축가 중심으로 수집 및 소장하고 있다. 위 자료는 해당 건축가가 설계사무소를 폐업하는 등 활동을 마감하면 자료를 전달받으며, 사후에는 유가족들의 기증을 받아, 자료관에서 최초로 이용되는 시기(5~6년간)까지만 보관한다. 자료의 선정이나 폐기를 위해 역사가, 기록보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교 에이브리 건축 및 예술 도서관은 1890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설립자인 새뮤얼 에이브리(Samuel Avery)와 매리 에이브리(Mary Avery) 부부가 건축, 고고학, 장식예술과 관련된 저서 2,000권과 원본도면을 기증하며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기금지원을 통하여 5년 후에는 약 13,000권의 장서규모를 갖게 됨. 또한 장서목록을 작성하여 1958년, 1968년 두 권이 출판되고, 1972년, 1975년, 1977년에 걸쳐 3권의 부록이 첨가되었으며, 1978년 이후에는 모든 목록이 디지털화되어 1988년 후부터 컴퓨터 검색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CD로 제작되어 세계 각지의 대학과 건축 관련단체에 판매중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 및 도시분야의 기록물 수집업무는 몇 차례의 이벤트로는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및 관련종사자들의 기증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경우, 각급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기업,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그리고 도시계획용역 수행업체 등 관련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증/기부 주체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록물의 보존방식

콜럼비아 대학교 에이브리 건축 및 예술 도서관의 자료는 형태에 따라 희귀본, 드로잉 및 문서, 서적, 그리고 잡지로 분류할 수 있다. 건축가들의 초기 드로잉이나 서신 등 건축역사 연구에 핵심적인 자료들을 별도의 실에 관리하고 있다. 이것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만 사용할 수 있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원의 도움을 받아야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다.

20세기 건축기록보존소에서는 도면, 스케치, 사진 그리고 모형을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의 3개 층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사진보관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향온, 항습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지하층이라서 저온유지가 가능하다.

독일 건축박물관은 전시시설을 타박물관이 밀집한 '박물관거리'에 위치시키고, 전문적인 자료보관 및 효과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자료관을 인근에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협회는 2003년 기준으로 450종류의 아카이브, 150종류의 컬렉션, 35,000권의 도서 및 정기간행물, 수천여개의 전시패널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의 소장을 위해 18km 길이의 선반을 설치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특수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기도 한다. 내용물로는 도면, 스케치, 주요인사와의 서신, 모형, 사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 도서, 정기간행물, 전시패널 등이 있다. 최근 디지털화 작업이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물리적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장자료의 가치를 재검토하여 폐기함으로써 공간이용을 효율화한다.

(6) 기록물의 활용방식

20세기 건축기록보존소에서는 수집 및 보존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 특별전시를 주최한다. 대표적 예로 2001년에 건축가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의 특별전을 들 수 있다. 한편, 2001년도에 국제기록보존협회에 건축부문의 신설과 건축관련 기록보존지침서를 출간하는데 참여한 바 있다. 해외의 건축전문 기록보존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파리시 도시건축 자료전시관의 상설전시는 "파리, 도시와 계획안"전으로 파리시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해당지역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판과 모형 등을 통하여 보여준다. 전시내용물은 원도 56점, 모형 18점, 도면과 스케치 100점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순회전시에 사용되고 전시내용의 정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새로운 계획안들이 추가되고 있다. 이 외에 파리시에서 수행되는 현상설계의 작품과 내용, 시의 전략적인 도시개발계획 등이 일반시민에게 홍보된다.

독일 건축박물관의 자료관에는 18만 여건의 건축평면 및 스케치, 600개의 모델, 그리고 다수의 사진과 가구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 수집자료를 전시를 위하여 전시관에 제공하거나 전세계의 박물관에 대여하고 있다. 오디오리움에서는 각종 관련회의, 기자회견, 프레젠테이션 및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특

정분야의 주제에 대하여 정기토론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되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축가들의 강연 프로그램도 있다. 연보형식으로 현대건축과 독일의 최근건축에 대한 정보를 발행하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교 에이브리 건축 및 예술 도서관의 핵심업무는 콜럼비아 대학 건축대학 및 예술사학 전공학생들을 일상적으로 보조하는 일과 미국 및 전세계에서 오는 건축관련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일이다. 방문연구자, 교수, 박사과정 학생들과 일부 석사과정 학생들은 도서관 내에 좌석을 신청해서 할당받을 수 있다. 좌석과 함께 제공되는 책장에 연구자가 자주 보는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다. 이때, 대부분의 서적들이 대출이 불가능한 대신, 손쉽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 간의 교류가 촉진되는 측면이 있다. 피라네지(Giovanni Battista Piranesi)의 원본 초판 도면들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르 꼬르뷔제를 비롯한 근대건축가들의 도면과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학기중에 소규모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본을 통한 건축역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소장 기록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을 발행하여 국내외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기록물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목록 대신 연보를 발행하기도 한다.) 소장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특정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강연회, 토론회, 행사 등을 함께 개최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서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기록물의 단순열람을 넘어 일정기간 동안의 적당한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국제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7) 정리

건축 및 도시분야의 기록물 관리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자국의 근대이후 건축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역사학자, 기록물보존 전문가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특정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나, 때로는 가치판단이 모호할 경우에 평가를 유보하고 우선 수장하기도 한다.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는 전시품으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는 전시기획 및 순회전시, 관련행사 개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자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같이 자발적인 근대건축 운동을 겪으며 풍부한 건축자산이 형성된 경우 이를 전시, 행사, 출판 등에 적극 활용하여 방문매

력도를 증대시키고, 자국의 발달된 건축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위의 유럽 3국에 비해 후발주자격인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적 인지도를 갖는 현대건축가(렘 콜하스 등)를 중심으로 전시기획 및 행사개최를 진행하여 자국 건축역량의 홍보 및 국제적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도시갤러리의 경우 이와 반대로 전시 및 홍보시설로 운영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아카이브시설을 도입하는 사례로서 기록물의 축적과 활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건축 및 도시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적당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학문발전 및 위상제고를 꾀하고, 연구자 간 교류를 통하여 복합센터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3) 해외의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

(1) 해외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의의

해외의 정보시스템의 특성은 정보의 통합화, 표현의 직관화, 그리고 해독 난이도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시스템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되는 다양한 층위의 관련 법제가 통합되어 한 곳에서 one-stop 서비스로 제공된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활용하여 기존의 2D 및 텍스트 위주의 표현에서 3D 표현으로 전환함으로써 직관적인 이해를 지원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일반시민의 활용을 고려하여 정보의 구조 및 내용을 설계함으로써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공간정보의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해와 이용에 있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배경지식과 경험이 없을지라도 학습하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하여 공간계획의 수요를 정책 및 계획에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어 창의적인 민관협력프로젝트의 수립 및 시행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들 시스템은 양방향 소통의 지원을 통하여 정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일반시민이 기존에 수립된 공간계획을 이해하고, 수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 역시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제안을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통할 수 있다.

(2) Planning Portal¹⁶⁾

영국정부가 운영하는 공간계획정보시스템으로서 여러 지방정부의 계획 및 건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제공한다. England와 Wales의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에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해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정보 및 규제들을 확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General Public, Professional User, Government User 등 각각의 사용자에게 대한 필요한 정보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을 위한 계획 인허가 및 건축규제 승인에 대한 가이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양방향 계획이 가능하다. 계획지구 지정 등을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직접 시뮬레이션 및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Planning Applications). 또한 사이트를 통한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표 16〉 일반 대중을 위한 콘텐츠

Building Work	Common Projects	Local Information	Identify your local authority
	Case Studies		View development plans
	Your Responsibilities		Learn about dev.plans
Planning Applications*	LDS Data base		
Appeals*	Search for applications		
Having Your Say	LDF Search		
Planning	The Planning System		Useful Tools
	Guide for Businesses	Householders Guide	
	Greener Homes	LDF Guide	
	Guide for Farmers	Volume Calculator	
	Mobile Phone Masts	Fee Calculator	
	Glossary	Service Desk	
	Permitted Development	Availability	
Building Regulations	Links	Service Management	Changes and Enhancements
	Example Projects		Business Plan 2008-11
	How to get approval		Product Development
	Determinations and Appeals		
	Legislation		
	Contacts		
	Links		
Disclaimer	FAQ and Help		

자료 : <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genpub/en/1115313928610.html>

16) <http://www.planningportal.gov.uk>

전문가에게는 계획인허가, 계획에 대한 연구, 건축규제정책 등에 대한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방정부 등의 정책 및 계획에 대안과 조언 등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축 및 개발하기 전에 해당인이 자신의 계획서상의 정보를 기초로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볼 수도 있다.

〈표 17〉 전문가를 위한 콘텐츠

Applications	Make a new application	News	News archive			
	My applications		Comment & Analysis			
Building Regulations	Water efficiency	Local Information	Identify a local authority			
	Code for Sustainable Homes		View a Dev. Plan			
	EPC for Construction		LDS Database			
	The Future of Building Control: Consultation		Search for applications			
	Legislation	LDF Search	Study Planning			
	Technical Guidance	Jobs and Training	Conferences & Events			
	Approval Process		Planning Portal Events			
	Workmanship and Materials		Info for Planning Agents			
	Determinations and Appeals	Info for Planning Agents	Planning Agents FAQs			
	Policy Implementation		CAD Guidance			
Explanatory Booklet	LDF Guidance					
Contacts	Major Application Guidance					
Links		Glossary	Glossary: A ~ Z			
Appeals	Availability	Links	Architecture			
	Online Tutorials		Countryside			
	Make an appeal online		Govt Agencies			
	Search for an appeal online		Govt Info Services			
	Comment on an appeal online		Govt Offices & Depts			
	Advice Notes		Govt Regional			
Planning Casework Service	Information Services					
Policy	What's New		Legal			
	Planning Reform		Ombuds & Standards			
	Policy Documents		Directories & Websites			
	Legislation		Planning Aid			
	Good Practice Guides*		Professional Bodies			
	Parliamentary Answers			Useful Tools	Transportation	
					Scotland & Nireland	
		Wales				
		Additional sites				
		Antenna Guide		Service Management	House holders Guide	
		LDF Guide			Changes and Enhancements	
		Volume Calculator*			Business Plan 2008-11	
		Fee Calculator		Product Development	FAQ and Help	FAQ and Help
		Service Desk				
Availability						

자료 : <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018433960408.html>

지방자치정부의 사용자를 위하여 온라인 양방향 계획 수행에 관련한 업무 지침 및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Planning and Regulatory Services Online project 사이트의 계획 관련 정책 및 기술지원 등의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아카이브로서 기능하고 있다(PARSOL Archive).

〈표 18〉 정부사용자를 위한 콘텐츠

Applications	Search for new applications	LPA Forum	Issues register
	Calculate application fee		Change request wish-list
	Administer Planning Attachment Options	Information for LPAs	LPAs status
EPC for Construction	Working with us		
The Future of Building Control : Consultation	Supplier Directory		
Legislation	Info and Guidance		
Technical Guidance	Unlawful Advertising/ Fly-posting		
Approval Process	Contact Us		
Workmanship and Materials	Deliverables		
Determinations and Appeals	PARSOL Archive		
Policy Implementation	Glossary		Glossary:A~Z
Building Regulations	Explanatory Booklet		Links
	Contacts	Countryside	
	Links	Govt Agencies	
	Availability	Govt Info Services	
	Online Tutorials	Govt Offices & Depts	
	Make an appeal online	Govt Regional	
	Search for an appeal online	Information Services	
	Comment on an appeal online	Legal	
	Advice Notes	Ombuds & Standards	
	Planning Casework Service	Directories & Websites	
Policy	What's New	Useful Tools	Planning Aid
	Planning Reform		Professional Bodies
	Policy Documents		Transportation
	Legislation		Scotland & N Ireland
	Good Practice Guides		Wales
	Parliamentary Answers		Additional sites
News	News archive	Service Management	Antenna Guide
	Comment & Analysis		Householders Guide
Local Information	Identify a local authority	FAQ and Help	LDF Guide
	View a Dev. Plan		Volume Calculator
	LDS Database		Fee Calculator
	Search for applications		Service Desk
	LDF Search		Availability
Jobs and Training	Study Planning	FAQ and Help	Changes and Enhancements
	Conferences & Events		Business Plan 2008-11
	Planning Portal Events		Product Development

자료 : <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government/en/1102332404148.html>

(3) planning inspectorate¹⁷⁾

지역개발계획 및 LDFs¹⁸⁾와 관련하여 그 계획과정의 참가, 의견개진 및 이의신청 등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외에도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고용, 교통 및 도로 등의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혹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사례 및 사례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직접 계획안을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과 관련된 지식 및 서식을 제공하고 이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각 단계별 안내가 되어 있어 초보자들이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lanning Appeals).

〈표 19〉 지역개발계획 관련 콘텐츠

Quick Find	A -Z	Large Inquires	A3 HindHead
	Contact us		A303 at Stonehenge
	Employment		Bathside Bay
	Forms		Dibden Terminal
	Search		Felixstowe South Reconfiguration
	Access Appeals		Finningley Airport
	Advertisement Appeals		Highways and Transport
	Call-Ins		London Gateway (Shell Haven)
	Enforcement Appeals		New Forest National Park
Appeals and Other Casework Types	Environment Appeals	Agency Information	South Downs National Park
	Hedgerow Appeals		Thames Gateway Bridge Inquiry
	High Hedge Appeals		Decisions on appeals
	Land Compensation Appeals		Freedom of Information
	Lawful development certificate Appeals		Making a complaint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and development plans		Mission values and objectives
	Planning Appeals*		Performance Information
	Purchase notices		Publications
	Rights of way		Selling to the Planning Inspectorate
	Temple Quay Building Information		
	Visiting us		
	What we do		
	Who's who		

17) <http://www.planning-inspectorate.gov.uk>, 소위 '계획심의관' 조직의 사이트로서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 소속

18) Local Development Framework (LDFs)로서 지역개발엔 대한 큰 방향과 윤곽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4) Virtual London¹⁹⁾

런던의 거주자와 방문객 그리고 기업들이 런던에서 거주·학업 혹은 관광, 투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공공 및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이다. 런던과 관련하여 도시의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정보들도 제공되고 있다.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과 녹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카테고리(postcode, district, facility type 등)에 따라 이들을 검색할 수 있다(living/Parks and open spaces). 런던 전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의 경로 및 교통수단 등도 검색할 수 있다(Virtual London).

〈표 20〉 런던 지역정보에 대한 콘텐츠

Living	Public sector jobs
	Parks and open spaces*
	Community and voluntary organisations
	School admissions
	Report it
	London observatory
Business	
Visiting	Virtual London*
London news	BBC London travel
	Transport for London news
	London weather
	Live traffic information
Find your nearest	Find your nearest
About	Accessibility
	Viewing options
	Listen to this website
	Languages
	Linking to us
	Help
	Feedback
	Sitemap
	Terms and conditions

19) <http://www.yourlondon.gov.uk>

(5) Online Planning²⁰⁾

Northern Ireland에서의 계획 수립 및 결정, 집행과 각종 관련 청구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재개발 지역 주민 등이 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환경과 건축 시뮬레이션 등을 확인하고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개진도 가능하다.

〈표 21〉 런던 공공지역서비스 콘텐츠

About Us	
News	
Products	Planning Online FREE search
	Planning Online FREE search(MAP)
	Planning Online Professional
Register	

(6) 카탈로니아 공간정보시스템²¹⁾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정부의 공식사이트로 정부의 조직 및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관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이다.

카탈로니아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에서 이주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관련된 정부의 도시 및 주거정책 그리고 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공급되는 실제 주택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카탈로니아의 지역일반현황과 고인프라,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3차원 공간정보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다.

20) <http://www.planningonline.co.uk>

21) <http://gencat.net>

〈표 22〉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정부 계획정보시스템 콘텐츠

News	Today's news	Today's news
	Previous news	Previous news
Services	Services and procedures portal	Services and procedures portal
	Online procedures	Online procedures
	Service search	Service search
Generalitat	Statute of Autonomy	Statute of Autonomy
	Guide to the Government of Catalonia	Historical origins
		Institutional map
		Competencies
		Financing system
		The territory's administrative organisation
	The Parliament	The Parliamen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Executive council
		Administration Structure
		Government action
Selection procedures		
Basic data		
List of services		
Bodies		
Who's who	Who's who	
WebsA-Z	Webs A-Z	Webs A-Z
Topics	Agriculture, Livestock, Fisheries	Agriculture, Livestock, Fisheries
	Association membership, Participation	Association membership, Participation
	Business, Industry and energy	Business, Industry and energy
	Catalan Language, Communication	Catalan Language, Communication
	Culture	
	Economy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Emergencies, Safety	Emergencies, Safety
	Employment	Employment
	Environment	Environment
	Health	
	Housing*	
	Justice	
	Mobility, Transport	Mobility, Transport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gion and Landscape, Urban planning*	Region and Landscape, Urban planning
	Social services	Social services
	Society, Citizenship, Families	Society, Citizenship, Families
	Sport, Leisure	Sport, Leisure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Tourism		
Trade, Consumption	Trade, Consumption	
Universities	Universities	
Catalonia	Territory and People	Territory
		Population
		Political organisation
		History
		National symbols
		Catalan language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Catalan cuisine
		Economy
	Catalonia in the world	
Visit Catalonia	Visit Catalonia	
Studying		
Working		
Investments and business	Investments and business	

4 소결

건축·도시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공공 기록물에 관한 제도는, 기록물과 정보의 관리와 법률에 관련된 제도 및 법제와, 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조사·기록에 관한 법·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의 기록정보에 관련된 법률은 크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 기록물 관리 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책 결정과 사업 시행의 각 단계의 기록물 생산 및 기록물 관리 전문 기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와 기록물을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도시분야의 공공 정보와 기록물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투기 우려와 정책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공개가 제한되어 왔다.

계획 수립 단계의 공식화된 조사 중, 미시적인 건축·도시공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의 현황조사 단계가 의무화 되어 있다. 개발 사업에 따른 조사·기록에 관한 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현재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없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역사적·문화적 관점의 조사 기록이기는 하나, 현존하는 구조물 보다는 과거의 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표조사 이후의 문화재 발굴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의해서 수 백년 혹은 수 천년 전 건축물이나 도시 공간의 흔적은 법률에 의해 조사·보호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도시와 건축물의 모습을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역사적·문화적 관점의 기록 구축의 개념은 취약하지만, 도시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국토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 사업들은 기록 정보의 유형으로 보면, 거시적 스케일의 도시 공간에 대한 참조적 기록 구축에 해당하며, 실제 기록의 과정에 있어서도 위성영상 혹은 항공영상에 의한 광역적 공간

기록 수단이 쓰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정보와 결합된 3차원 국토정보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국토 정보 사업의 공간 기록이 건축 공간 재현에 있어서 충분한 정밀도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국토 정보는 각 장소에 대한 기록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인 공간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국내 정책 사례 중, 토지공사의 지감자원 구축 사업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최근 개발되는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문화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의 개발 이전 모습과 신도시 사업의 추진 과정을 기록화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용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기록 정보 관리가 취약한 국내 상황과 달리, 프랑스나 네델란드와 같은 건축·도시분야 선진국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의 건축·도시공간 기록물 관리와 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활동하는 건축 및 도시분야 전문가의 활동과 담론을 전시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아카이브 시설을 통해 관련 기록물의 축적·관리하며, 각종 컨퍼런스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 논의를 생산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건축·도시공간 기록물 관리와 활용 체계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기록 구축 및 관리 못지않게, 박물관 등의 전문 시설 확보를 통한 활용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IV.

건축 · 도시공간 아카이브의 대상과 기록화 전략 연구

1. 개관
2.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체계
3. 시범 기록 구축 : 피맛길
4. 소결

(a u r i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대상과 기록화 전략 연구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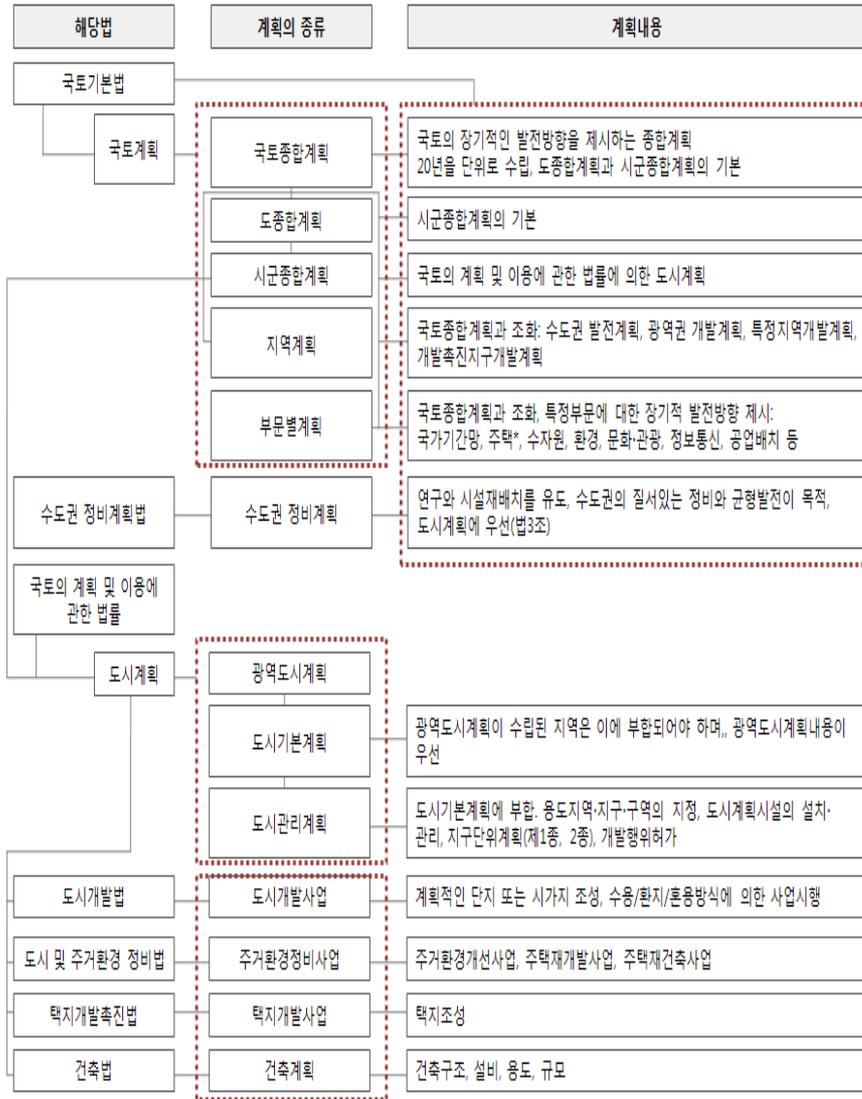
현대의 도시 공간은 공공 또는 민간의 계획과 투자로 실현되는 사업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기록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 및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체계와 그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존 공간에 대해서 기록구축조사를 실시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체계

1) 공간계획 및 사업의 체계

(1) 공간계획의 체계 및 절차

국내 공간계획은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의하여 공간의 범위와 계획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그림 20>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및 제도의 체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자료 :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박은관외, 2005)

〈그림 20〉 우리나라 공간계획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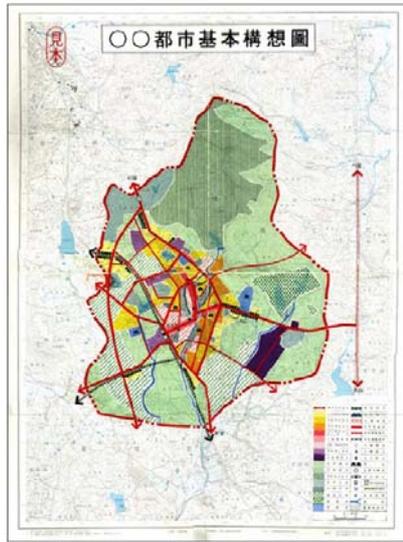
다양한 공간에 관련된 법정계획들 중 개별 도시단위의 공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²²⁾이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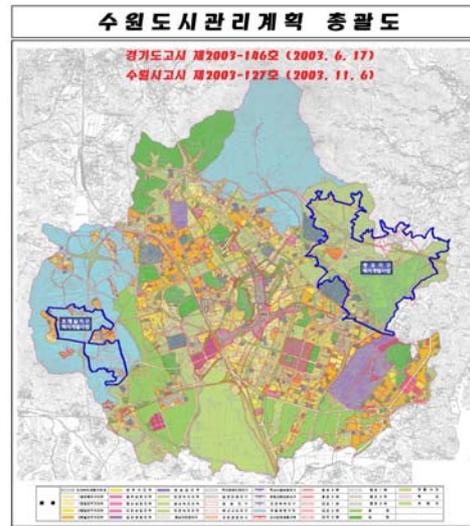
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계획의 수립과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행위 규제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용도 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각 계획들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계획도서와 심의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른 회의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생산된다. 특히, 도시 및 지역계획 등은 법정계획으로서, 입안-의견청취-승인 등의 절차에서 수많은 도서와 의견자료 등이 축적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도 각각의 작성지침에 따른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 등), 도시관리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도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도면과 자료들은 공간의 계획과 협의, 실현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변화의 이력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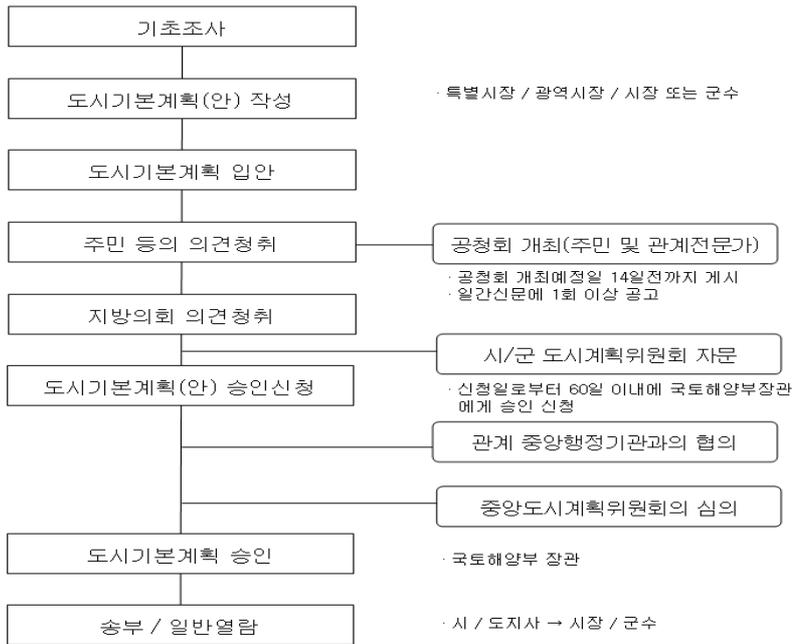
이렇게 공간의 기획-계획-설계-조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자료들은 계획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지자체 웹사이트의 행정정보 공개나 해당사의 실적 게시 등을 위해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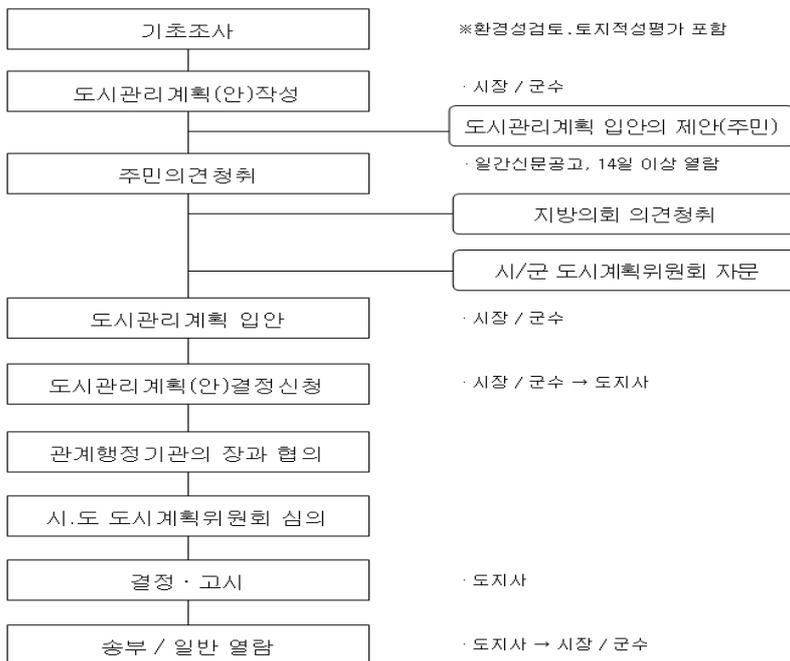
〈그림 21〉 도시기본구상도 예시



〈그림 22〉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그림 23〉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그림 24〉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그림 2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2) 주요 건축도시 사업의 체계 및 절차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²³⁾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총칭²⁴⁾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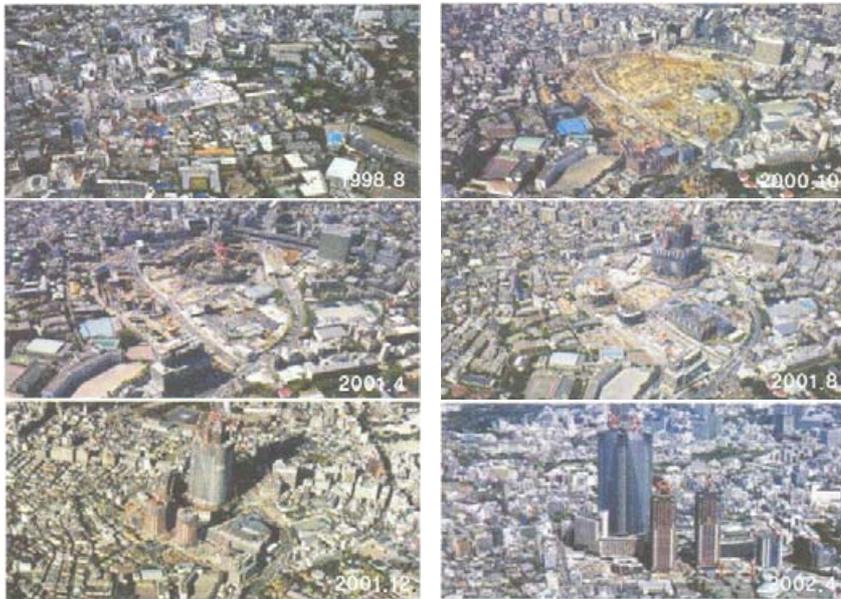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뉴타운 조성 등 실제로 행해지는 주요 도시 공간 관련 사업들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그 방법 및 절차의 기반은 일반적인 도시계획 및 사업의 틀을 따르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등의 절차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협의나 심의의 대상 및 조건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도시구조와 조직의 변화이력을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에 따라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도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계획설명서)의 자료화가 필수적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도서 등이 website에 공개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3) 다양한 공간 환경 개선 및 개발 사업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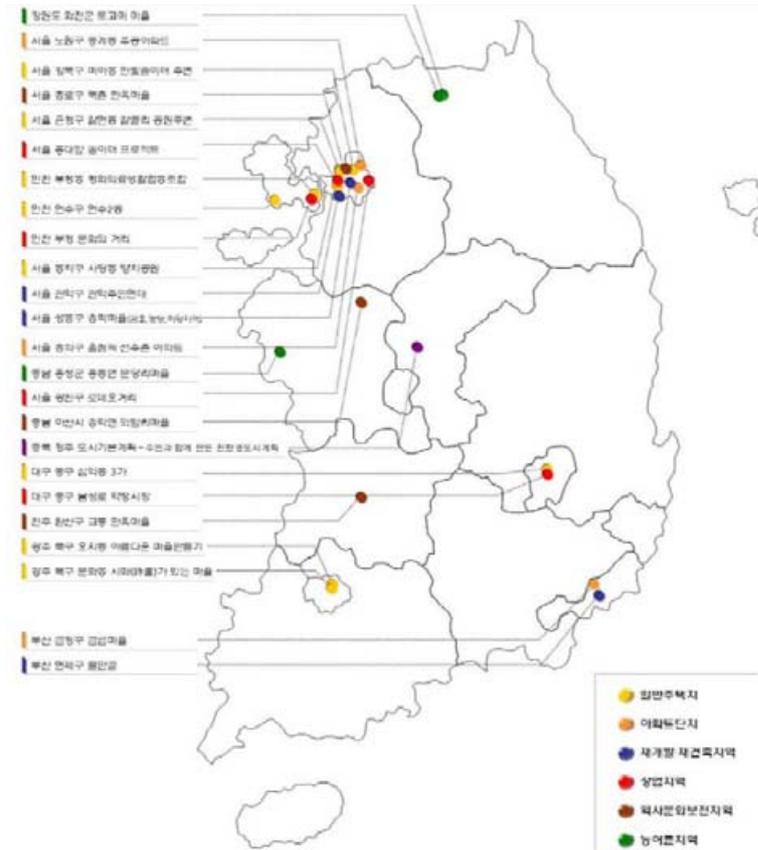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최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공간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들이 급증하였는데, 수도권관리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²⁵⁾들을 비롯한 국가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등이 있으며, 이밖에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어촌체험마을(국토해양부), 아름마을(행정안전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뉴타운개발사업(서울시), 아트폴리스조성사업(전주시), 안양아트시티21사업(안양시)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도시공간에 더욱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사업추진에 있어 공간개발에 관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도시계획결정도서의 아카이브를 개별사업의 카테고리 정리함으로써 자료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도시조직을 변화시키는 민간의 대단위 개발사업들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인허가 도서 및 실시설계 도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공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유형이 있으나 각 사업별, 회사별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통합적 관리나 정보공개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26〉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조직의 변화(일본 롯폰기 힐즈 사례)

25) 공공기관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그림 27〉 지역별 마을도시만들기 현황(자료:이명규,2006)

2) 공간계획 및 사업 현황

(1) 도시계획사업 현황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포함한 2007년 한 해 시행된 도시계획사업은 전국적으로 3,805개소, 438.6km² 규모이다.

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 있는데 지자체 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작년대비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서비스와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사업역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져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역시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범위도 수도권 중심에서 비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표 23〉 도시계획사업 현황

(단위 : km², '07년말)

구분	계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3,805	438.59	687	342.11	3,118	96.48
서울	1,578	28.69	12	5.83	1,566	22.86
부산	390	19.77	3	0.10	387	19.67
대구	89	2.71	3	0.23	86	2.47
인천	201	85.79	82	81.39	119	4.40
광주	161	23.94	21	15.45	140	8.49
대전	79	22.42	20	18.63	59	3.79
울산	45	14.92	42	14.64	3	0.28
경기	300	45.15	62	37.60	238	7.54
강원	65	10.44	30	8.65	35	1.79
충북	66	25.92	40	25.21	26	0.71
충남	75	11.33	35	9.71	40	1.61
전북	205	24.69	90	18.27	115	6.39
전남	174	23.09	29	13.65	145	9.44
경북	134	39.94	86	37.90	48	2.04
경남	195	45.20	108	41.05	87	4.15
제주	48	14.61	24	13.78	24	0.83

*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현황, '98~'07」

〈표 24〉 연도별 도시개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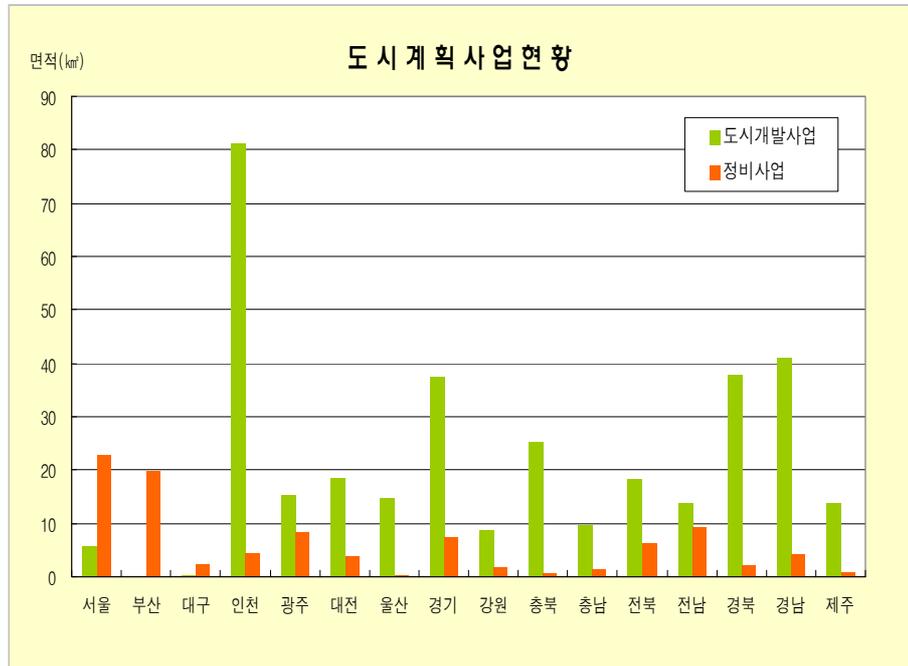
(단위 : 지구수/ 천m²)

년 도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공 공	민 간	공 공	민 간
계	149/66,824	59/27,569	75/25,487	10/12,774	5/994
2001	5/ 1,178	2/ 145	2/ 280	1/ 753	-
2002	8/ 3,595	5/ 3,284	2/ 41	-	1/270
2003	19/ 5,850	8/ 3,587	8/2,169	1/ 52	2/42
2004	29/ 15,234	13/ 4,912	13/9,854	3/ 468	-
2005	33/ 11,759	17/ 6,655	15/4,313	1/ 791	-
2006	30/ 9,890	10/ 5,008	18/4,686	1/49	1/147
2007	25/ 19,318	4/3,978	17/4,144	3/10,661	1/535

※ 1. 공공 : 민간구역지정 비율= 46% : 54%

2. 공공 : 민간 면적 비율 = 60% : 40%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현황, '98~'07」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현황, '98~'07」

〈그림 28〉 도시계획사업현황(2007)

〈표 25〉 도시개발사업 시행현황

(단위 : 지구수/천㎡, '07년말)

시·도명	전 체		완 료		시행중		미착수	
	지구수	면 적	지구수	면 적	지구수	면 적	지구수	면 적
합계	149	66,824	18	1,673	78	29,579	53	35,572
서울	7	9,124	-	-	4	5,137	3	3,987
부산	5	161	-	-	4	111	1	50
대구	3	231	-	-	1	83	2	148
인천	13	3,767	3	167	5	2,650	5	950
광주	7	1,891	2	32	2	118	3	1,741
대전	4	723	1	234	-	-	3	489
울산	5	2,176	-	-	3	1,335	2	841
경기	28	13,555	3	267	15	7,184	10	6,104
강원	8	1,047	3	198	1	70	4	779
충북	2	678	-	-	1	211	1	467
충남	18	15,440	1	129	11	2,802	6	12,509
전북	4	3,736	1	31	1	2,537	2	1,168
전남	6	2,176	1	24	2	708	3	1,444
경북	14	4,128	1	30	9	1,797	4	2,301
경남	21	5,331	1	131	17	3,490	3	1,710
제주	4	2,660	1	430	2	1,346	1	884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현황, '98~'07」

서울시는 역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규모로 도시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완료된 지역이 15개 지구 297,251㎡이며, 33개 지구 1,125,025㎡를 시행중이다.

이밖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2002년 시작된 시범뉴타운인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을 포함하여 26개 지구를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2012~2015년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표 26〉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 현황

(단위 : 개수, ㎡, 07년말)

	완 료		시행중		미시행	
	구역수	시행면적	구역수	시행면적	구역수	시행면적
2002	7	303,268	13	307,355	-	-
2003	23	1,155,798	27	764,476	-	-
2004	25	1,774,006	16	438,780	-	-
2005	17	1,337,761	15	577,517	-	-
2006	12	343,327	11	362,824	-	-
2007	8	229,328	24	966,968	38	1,539,917

자료: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 주 : 1) 완료 : 당해년도에 공사 완료된 지구.
- 2) 시행중 : 당해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지구.
- 3) 뉴타운사업의 주택재개발 사업 실적은 제외된 수치임.

〈표 27〉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단위 : 개수, m², 07년말)

	완료		시행중		미시행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2002	4	16,453	3	19,968	-	-
2003	1	2,055	9	82,351	-	-
2004	11	71,979	4	12,290	-	-
2005	7	33,662	3	26,659	-	-
2006	9	28,892	6	53,474	-	-
2007	7	37,923	9	158,057	-	-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담당관

〈표 28〉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구분	지구
시범뉴타운 (2002년 10월)	은평구 은평지구, 성북구 길음지구, 성동구 왕십리지구
2차 뉴타운 (2003년 11월)	종로구교남지구, 용산구한남지구, 동대문구전농·답십리지구, 중랑구중화지구 , 강북구미아지구, 서대문구가좌지구, 마포구아현지구, 양천구신철지구, 강서구방화지구, 영등포구영등포지구 , 동작구노랑진지구 , 강동구천호지구
3차 뉴타운 (2005년 12월, 2006년 1월, 2007년 4월)	동대문구 이문취경지구, 성북구(노원구)장위지구, 노원구 상계지구,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금천구 시흥지구, 영등포구 신길지구, 동작구 흑석지구, 관악구 신림지구,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창신·송인지구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담당관

(2)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전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 도시는 165개 시·군이며 5년 마다 재정비를 포함하여 매년 전국 5천여 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재정비되고 있다.

〈표 2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천㎡, '07년말)

도시명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3,314	1,001,252	2,155	599,010
서울특별시	232	60,481	-	-
부산광역시	304	49,098	-	-
대구광역시	308	50,980	-	-
인천광역시	92	155,274	8	1,391
광주광역시	19	13,473	-	-
대전광역시	238	43,841	-	-
울산광역시	176	26,557	-	-
경기도	792	311,177	396	115,520
강원도	156	27,850	241	141,666
충청북도	77	32,411	272	38,560
충청남도	182	44,139	307	58,687
전라북도	90	23,861	154	29,502
전라남도	197	59,367	156	65,527
경상북도	158	28,527	375	72,385
경상남도	262	65,035	186	33,274
제주특별자치도	31	9,180	60	12,692

주: 지구단위계획 유형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름

〈표 30〉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 km², '07년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도시계획시설	3,055.00	3,127.63	3,292.04	3,771.73	4,141.80	4,215.57	4,287.92	4,496.20
교통시설	991.78 (32.5)	1,033.43 (33.0)	1,002.09 (30.4)	1,038.19 (27.5)	1,343.12 (32.4)	1,356.27 (32.2)	1,387.89 (32.4)	1,424.63 (31.7)
공간시설	1,336.00 (43.7)	1,325.42 (42.4)	1,347.34 (40.9)	1,390.75 (36.9)	1,469.22 (35.5)	1,475.78 (35.0)	1,515.01 (35.3)	1,578.97 (35.1)
유통 및 공급 시설	66.11 (2.2)	78.50 (2.5)	79.92 (2.4)	99.13 (2.6)	100.85 (2.4)	103.59 (2.5)	112.70 (2.6)	115.73 (2.6)
공공문화체육 시설	345.96 (11.3)	346.49 (11.1)	354.11 (10.8)	448.78 (11.9)	460.13 (11.1)	500.33 (11.9)	514.38 (12.0)	595.85 (13.3)
방재시설	261.55 (8.6)	320.13 (10.2)	345.36 (10.5)	719.39 (19.1)	682.41 (16.5)	691.37 (16.4)	664.71 (15.5)	684.45 (15.2)
보건위생시설	53.60 (1.8)	53.66 (1.7)	163.22 (5.0)	18.34 (0.5)	24.70 (0.6)	25.39 (0.6)	24.46 (0.6)	25.25 (0.6)
환경기초시설	0 (0)	0 (0)	0 (0)	57.15 (1.5)	61.37 (1.5)	62.84 (1.5)	68.77 (1.6)	71.32 (1.6)

* ()는 전체 도시계획시설면적중 당해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임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현황, '00~'07」

(3) 기타 정부주도 개발 사업

이밖에도 수도권관리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계획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토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공간의 변화에 따라 기존 거리, 건물, 풍경 등 공간의 구조 또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표 31〉 2007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현황

유형	지역	사업명	
시범 도시	강원 속초시	SORAK MAPLE TOWN 조성사례	
	경기 안산시	광덕로·철로변 테마 공간 조성사업	
	인천 남구	비전(Mion)도시, 인천광역시 남구	
	충남 서천군	봄의도시 서천만들기 조성계획	
	광주 광산구	맛·멋의 남도난장 송정골 조성계획	
시범 마을	대구 중구 삼덕동	대구YMCA	
	광주 북구 각화동	광주 광역시 시화 문화마을 만들기 계획	
	부산 북구 화명2동	주민자치위원회·대천천네트워크	
	강원 동해시 망상동	푸른동해실천협의회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필벽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추진협의회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서울 중로구 가화동	한평공원에서 마을로 - 살고싶은 북촌만들기	
	서울 마포구 성산동	돌봄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성미산 만들기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산 남구 우암동	공동묘지의 소공원화(도시숲)조성	
	인천 계양구 이화동	농촌귀향도시 이화마을조성사업 - 계양 1동 주민자치위원회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웰빙테마파크 조성사업	
	광주 남구 도심철동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대전 서구 평촌동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증촌 꽃 마을 조성	
	경기 시흥시 정왕2동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	
	경기 수원시 송죽동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위원회	
	경기 과천시 갈현동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살고싶은 갈현동 만들기	
	경기 화성시 수화동	창문 예술마을 조성 사업	
	시범사업 평동	청주 평동 떡마을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전북 전주시 풍남동	전통향교마을 가꾸기사업	
	전남 순천시 도시동	주민과 함께 가꾸어나가는 희망의 순천만	
	전남 여수시 만덕동	만성 블랙샌드큐어 동네 만들기	
	경북 김천시 성내동	시범마을사업 추진협의회	
	경남 거제시 옥포동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 -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	
	제주 제주시 연동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지원 도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원흥이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사업
		충남 금산군	금산의 아주특별한 Shool Complex 프로젝트
		경남 창원시	자전거도시 창원 발전전략
대전 대덕구		로하스(LOHAS) 금강 프로젝트	
강원 영월군		풍경(역사·문화)과 정겨움이 있는 살고싶은도시 영월만들기	
전남 장성군		장성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秀행복타운	

3

시범 기록 구축 : 피맛길

사업 단계별 기록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 기록화 자체의 비중이 높은 부분은 사업 시행 이전 공간에 대한 참조적 기록구축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업과정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요구되기 보다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관련 주체들의 기록 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에, 장소 자체에 대한 기록은 다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소를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구득과 그것의 가공 및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시범적인 사례의 구축을 통해 그 기반여건 조성 및 그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다. 본 장에서는 시범 기록구축을 통해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 그 구현에 관한 일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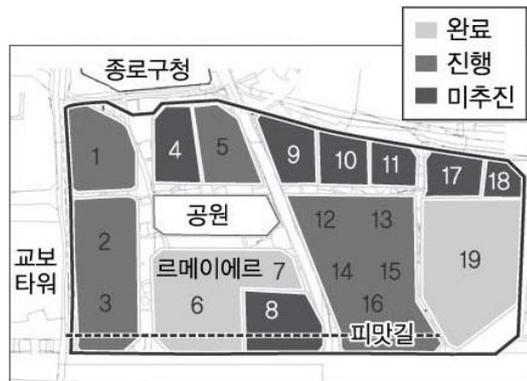
(1) 대상지 선정

시범 기록구축 대상지를 선정한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그 기준은 첫째, 역사·문화적으로 의미있는 공간, 둘째,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적절히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공간, 셋째, 도시 개발로 인해 미시적 공간 변화가 이루어져 공간의 변화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 넷째, 가까운 미래에 공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기록구축시 기록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 등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 이러한 공간을 물색한 결과, 뉴타운 사업대상지, 세운상가 재개발구역, 청진·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을 대상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후보지들이 공히 상기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으나, 특히 “청진·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지나는 고관들의 말을 피해 다니던 길이라는 뜻의 피마(避馬)에서 유래한 이른바 피맛골로서 역사가 깊고, 이후 한국근현대사에서 서민들의 술집과 음식점이 번성하여 타후보지에 비해 장소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록구축의 효용이 상대적

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욱이 피맛골에 포함되는 청진,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중 피맛길에 해당되는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제3, 8, 16지구의 정비계획안이 2008년 9월 제2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2008년 내 철거가 불가피해졌고, 공간 기록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역사·문화적 기록 가치, 공간 변화이력, 개발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 기록구축 대상지로서 피맛길(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일대를 선정하였다.



(그림 29)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 추진현황

(2) 공간적 범위

조사 대상 범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 외 46필지로서 종로 교보문과 후면부에서 종각부근의 SC제일은행 후면부에 이르는 약 300m의 피맛길과 피맛길에 면해 있는 40여개의 건물군²⁶⁾과 그곳에 입주해 있는 16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시간적 범위

공간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한 문헌조사는 피맛길로서 불리기 시작한 조선시대 이후부터 조사시점인 2008년 10월 현재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탐문 및 공간 실측 조사는 2008년 10월 현재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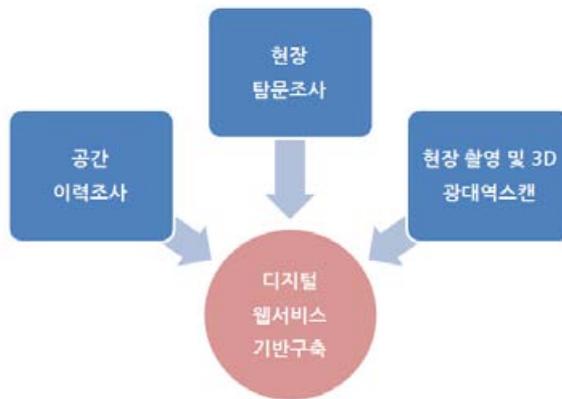
(4) 조사방법 및 절차

26)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제6구역은 2005년 이미 재개발되어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대상지에서 제외함

문헌 및 정책 자료를 통한 공간의 이력조사와 주민의 삶을 기록하기 위한 현장 탐문조사를 시행하고, 장소의 물리적 공간을 기록하기 위한 현장 촬영 및 3D 광대역 스캔을 시행하여 기록에 있어 내용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충족하도록 구성하였다.

공간의 이력조사에서는 종로 피맛길의 유래와 공간적 범위 및 변천과정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탐문조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과거 및 현재의 주민의 삶을 조사하여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물리적 공간은 VR (virtual reality) 영상 촬영을 통해 360° 각도의 물리적 공간의 현황을 기록하고 3D 광대역 스캔을 통하여 조밀한 cloud points로 공간을 실측하여 동영상으로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현한 공간의 이야기와 실물기록을 디지털 자료화 하여 웹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DB 기반을 구축하여 실제 서비스할 콘텐츠를 담아 시험서비스를 하였다.



〈그림 31〉 시범 기록구축의 구성 및 구현방법

2) 공간 이력조사

공간이력의 조사내용은 주로 연구문헌, 고지도, 기사, 관보 등의 문헌자료



* 붉은 선이 피맛길이며, 블록 번호는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구지정 번호이고 건물의 번호는 블록별로 편의상 분류한 번호임

〈그림 30〉 시범 기록구축 대상지역(종로 피맛길)

조사와 인터넷상으로 공개된 동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장소의 역사, 문화, 생활, 정책 및 계획 이력 등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내용을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문헌조사 결과

유형	세부 항목	조사 결과	조사 건수
연구문헌	연구논문	- 관련 문헌을 목록하고 원문을 구독하여 검토 보고서 작성 - 저자, 연도, 제목, 게재지 권호수 등 수록사항 목록 + 원문	21 건
	학술발표대회논문		
	기타 전문 자료 (학회지 수록 및 발표자료)		
단행본	지도	- 관련 문헌을 목록하고 원문을 구독하여 검토 보고서 작성 - 저자, 연도, 제목, 출판사 등의 정보의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책과 저자소개, 목차 및 피맛길이 언급된 부분의 원문 등 첨부	63 건
	학술서적		
	피맛길의 유래/사연		
	맛집/관광/기행		
	문학작품 속 피맛골		
기사	기사	- 관련 기사에 대하여 제목, 신문명, 보도일자 등을 목록하고 스크랩 - 동영상의 경우 작성자, 제목, 프로그램명, 방송사, URL 정보를 목록화 - 웹상에서 구독된 정보에 대하여 작성자, 제목, 홈페이지, URL, 작성일자를 목록화하고 원문 등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첨부	165 건
	뉴스 및 동영상		
	블로그/홈페이지		
정책자료	관보	- 게재기관, 고시명, 관보명, 발행일자 등을 목록화하고 원문을 스크랩	21 건
	시보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	- 행정동, 지번을 확인하여 대상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구독	81 건
	건축물대장		

피맛길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지나는 고관들의 말을 피해 다니던 길이라는 뜻의 피마(避馬)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종로를 지나다 말을 탄 고관들의 행차시 옆드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로 이면의 좁은 골목길로 다니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그 길은 피맛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피맛골은 이러한 피마의 풍습에서 발생한 지역의 이름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피맛길 주변에는 선술집이나 국밥집과 같은 서민적인 음식점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하면서 서민적 정취의 대명사로서 현재의 피맛길 구간이 피맛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표 33〉 피맛길 일대 재개발사업 이력

	발행일자	게재기관	고시명	관보명
1	1979.11.26.	건교부	서울도시계획청진외2개재개발구역결정 (건설부고시제428호)	관보제8406호
2	1981.12.24.	서울시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442호)	관보제9023호
3	1983.12.17.	”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668호)	관보제9620호
4	1984.05.01.	”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240호)	관보제9732호
5	1986.12.27.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928호)	관보제10523호
6	1987.01.16.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중정정 [서울특별시고시제928호]	관보제10537호
7	1987.12.14.	”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878호)	관보제10810호
8	1988.05.13.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335호)	관보제10930호
9	1988.06.17.	”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519호]	관보제10958호
10	1988.10.19.	”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서울특별시공고제720호)	관보제11059호
11	1988.12.06.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938호]	관보제11100호
12	1990.01.08.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564호)	관보제11421호
13	1990.07.02.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210호)	관보제11564호
14	1990.07.05.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218호)	관보제11567호
15	1990.12.19.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406호)	관보제11703호
16	1991.06.21.	”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180호)	관보제11849호
17	1997.11.03.	”	도심재개발청진구역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1997-339호)	관보제13748호
18	2007.07.12.	”	청진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및지형도면 73 (서울특별시고시제2007-235호)	시보제2781호
19	2008.10.16.	”	청진구역제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 36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65)	시보제2867호
20	2008.10.16.	”	청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 38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66호)	시보제2867호
21	2008.11.13.	”	청진구역및청진구역제12~16 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 235 (서울특별시고시제2008-409호)	시보제2873호

이러한 배경을 가진 피맛길은 각종 고지도들과 위성사진집 등 서울의 인상적인 공간적 정보를 수록한 서적, 도시 건축과 경관 분야의 연구 성과물,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피맛길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헌의 주제로 사용되었다. 또한 서민의 삶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맛집 소개, 관광 안내 및 기행문류의 문헌이나 기사나 개인의 블로그 등에서도 장소에 대한 느낌과 추억을 다루었으며, “여우, 술 마시는 날²⁷⁾”, “피맛골로 가련

다28)” 등과 같은 많은 문학작품에서 그 배경 혹은 작품의 소재사용하였다.

또한, 피맛길은 1979년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최초지정(건설부고시제1979-428호, 1979.11.22)된 이후 약 20여년간 개발계획 및 사업의 변경이 거듭되었으며, 2008년 9월 제2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이 구역에 대한 장기미집행 사업이었던 청진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실현이 가시화되었다.

피맛길 일대는 서민적인 음식점이 다수 업종을 이루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현존하는 건물들 중 60년대에 지어진 2층 규모의 목조와 연와조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32〉 폐업, 건물철거 작업 및 임대 안내문

3) 현장 탐문조사

현장탐문조사는 종로구 청진동 피맛길 중 청진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지구부터 제16지구에 이르는 구간내에 있는 총 41개의 건물, 158개의 점포가 포함되었다. 기간은 2008년 10월말 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 달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로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대에 현장을 방문하였다. 심층면접의 경우 한 건당 평균 면접 시간이 약 3-40분 이상 소요되었다. 피맛길에 인접한 업소들의 점주들과 해당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현장 인터뷰와 설문은 동영상, 녹음, 사진 등을 통한 현장 스케치 자료로 기록을 시행하였다.

대상지내 총 158개의 업소 중 폐업이나 이전으로 인한 탐문조사 불가 업소 및 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근에 공간이 변화된 르메이에르빌딩 등을 제외한 30개 업소에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인터뷰에 응해준 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7) 정대진, 2003, 『여우, 술 마시는 날』, 정은문화사.

28) 성지월, 2000, 『피맛골로 가련다: 탄국 성지월시 전집』, 백림, 서울.

〈표 34〉 피맛길 현장탐문조사 현황

분류		점포 수	비고
대상지 내 총 점포수		158	간판 등으로 상호 확인 가능한 점포 수 + 철거 작업 중인 곳은 건물수로 합산
시도	성공	11	이후 노점 형태의 구두수선소와 종로구청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담당자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13건의 탐문자료 기록
	주인이 거절	19	
소계		30	
시도 불가	폐업/이전	25	
	부재	9	
소계		34	
보류	A: 출입구가 피맛길에 면하지 않음	47	예비조사 결과 보류 결정
	B: 르-메이에르 빌딩	9	기 재개발 건물
	C: 16-7	47	
소계		94	

〈표 35〉 인터뷰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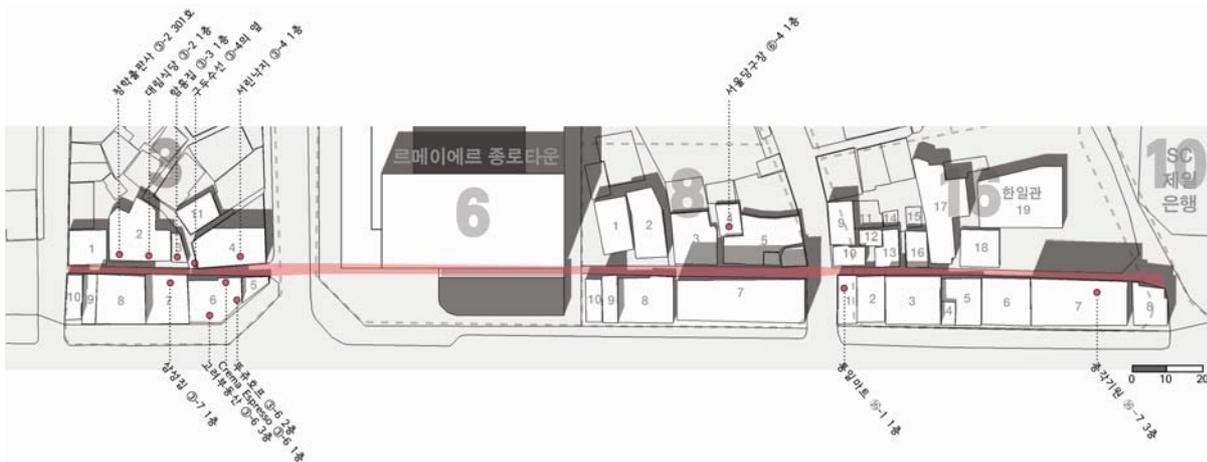
구분	질문 내용
피맛길의 사람들	이름, 나이, 직업, 상호, 정착시기 출신지, 성장기는 주로 어디에서? 그때의 피맛골은? 나의 가족, 나의 인생에서 피맛골은 어떤 의미, 종업원들은 어떤 분들? 주된 손님 층은?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모임 형태 등) 손님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 가장 기억에 남는 단골은? 이웃 간의 관계는?,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는?
내가 기억하는 피맛길	피맛길에 정착했을 당시 동네 여건은? 가게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업종 선택의 계기는? 작명 이유는? 시대별로, 기억에 남는 주요 사건들 특히, 주변 재개발과 관련된 공간적 변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가게를 옮기거나 내부수리를 한 적이 있는지? 피맛길의 전성기는 언제, 어떤 모습?, 피맛길의 가장 큰 특성, 매력은 무엇인지 오랫동안 피맛길을 떠나지 않은 이유 피맛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피맛길과 재개발	재개발로 피맛길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은? 이주 계획은? 새로운 입지 결정의 계기는? 다른 집들은 어디로 갔는지 떠난다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장소는, 물건은? 피맛길에서 꼭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피맛길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리울지 가게 이전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ex. 가게크기/ 종업원/ 매출/ 손님들/ 분위기/ 작업 공간/ 주변과의 관계)
피맛길의 하루	통근은 어디서, 어떻게?, 하루 중 피맛길에 머무는 시간은? 재료 등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은? 가장 바쁜 시간대는? 하루 매출은? 식사는 누구와 어떻게? 화장실은 어디로? 휴일이나, 일과 중 손님이 없는 시간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 길이 좁고 오래되어 좋은 점은? 불편했던 점은? 일상적 갈등은 없었는지 (ex. 호객이나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주 : 인터뷰 설문지는 부록 참조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피맛길과 관련한 인터뷰이의 개인사와 피맛길 재개발에 대한 인터뷰이의 의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인들의 기억과 일상이 피맛길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주로 피맛길에 정착하게 된 배경, 피맛길에 얽힌 추억과 가게의 운영 방식을 질문하였다. 한편 재개발에 대한 입장, 재개발 이후의 이주 계획과 관련한 인터뷰 질문들은 재개발로 대표되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방식이 어떻게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한 일부 상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인들이 많았으며 이는 인터뷰 기록을 다량 확보하지 못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현장탐문 조사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36〉 현장탐문 결과 기록자료

번호	상호	이름	성별	나이	동영상	녹음	메모	Photo
1	서울 당구장	김○○	여	56	○	-	○	○
2	삼성집	안○○	여	67	○	○	○	○
3	Crema Espresso	김○○	남	37	-	○	○	○
4	통일마트	홍○○	여	52	○	○	○	○
5	청학출판사	박○○	남	53	○	○	○	○
6	뚜주 호프	신○○	남	57	○	○	○	○
7	증각기원	이○○	남	70	○	○	○	○
8	고려부동산	송○○	남	44	-	○	○	-
9	종로구청	조○○	남	-	-	-	○	-
10	대림식당	석○○	여	-	○	-	○	○
11	구두방	박○○	남	53	○	-	○	○
12	함흥집	김○○	남	67	○	○	○	○
13	서린낙지	박○○	남	37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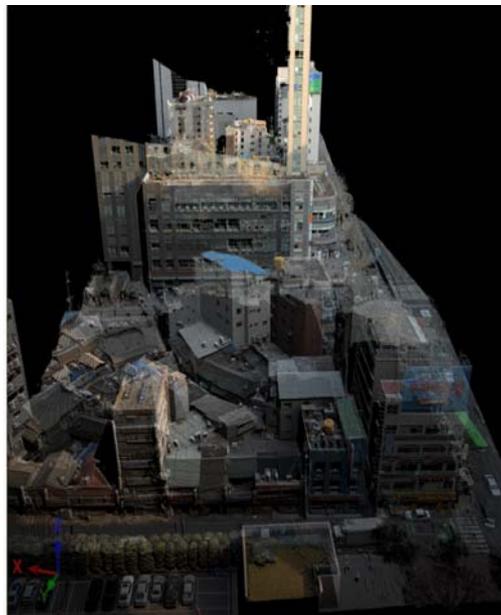


〈그림 33〉 현장탐문조사 업소현황

4) 물리적 환경의 기록화

물리적 환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그 한 가지는 피맛길 일대의 VR 영상 촬영하여 공간정보로서 완성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사이버투어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피맛길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 실내외 VR 70여개의 지점에서 영상을 구축하고 부가정보를 통합 적용한 사이버투어 구축하였다. 피맛길의 직선 동선을 따라 지점마다 360° 회전 VR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현장탐문조사가 진행된 10개 업소²⁹⁾에 대해서는 실내공간의 VR 영상도 구축하였다. 이 사이버 투어에는 현장탐문조사와 공간이력조사에서 구득한 기록자료를 화면에 링크하여 장소의 기억과 삶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또다른 하나의 물리적 환경 기록 방법으로 피맛길과 그 주변 건물들에 대한 3D 광대역 스캔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스캔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구축하였다. 3차원 광대역 스캔 장비를 이용하여 스캔하며 일정한 측정 포인트 간격으로 스캔한 원시 데이터 및 최적화 완성된 3D 폴리곤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피맛길 및 주변 건물 현황을 정확하게 3D 스캔 해야 하므로 1천만 화소 이상의 외장형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화질 칼라 데이터를 취득하여 후처리한 후 여러 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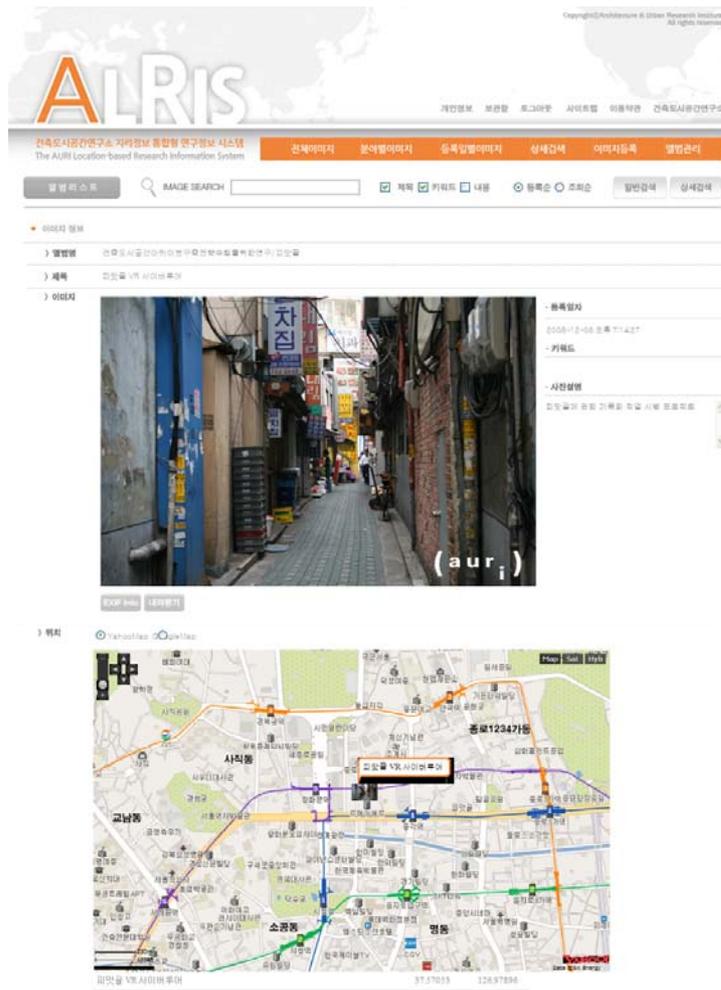
(그림 34) 3차원 레이저측량 데이터로 작성된 피맛길의 영상

29) 13개 현장탐문조사 업소 중 협소하고 임시의 영업장을 가진 구두수선소와 피맛길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진 종로구청 도시환경정비구역 담당자, 인터뷰에는 응했으나 동영상촬영을 거부한 커피숍을 제외

5) 조사 결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공간이력조사, 현장탐문조사, 공간실측조사 등을 통해 구축한 문헌, 영상, 이미지, 설문,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 3차원 공간데이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범적인 Main Database로서 기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켜 ALRIS(The AURI Location-based Research Information System)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범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시스템 상에서는 공간의 지리적 정보에 3차원 영상정보, 이미지 정보, 그리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외부 DB와의 정보 공유 프로토콜이 장착된 웹사이트로서 구동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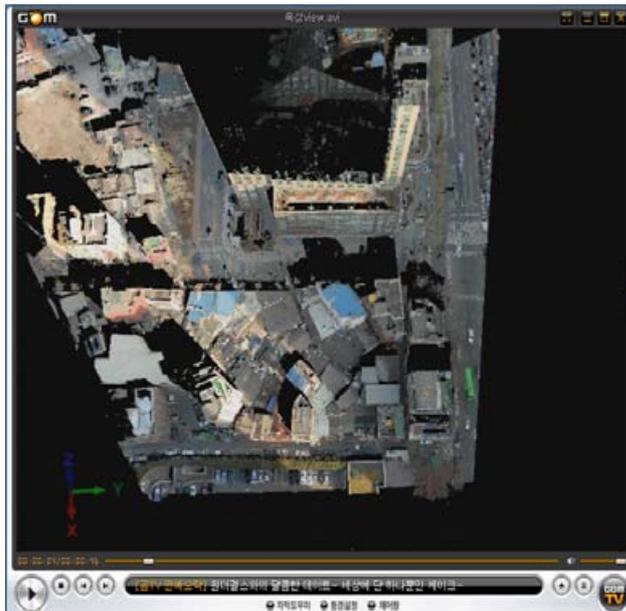


〈그림 35〉 시범 기록자료의 구동기반(ALRIS) 예시

<그림 35>과 <그림 36>는 ALRIS에서 2차원 지도에 연동된 3차원 VR 사이버 투어와 3차원 측량 동영상이며 이를 통해 실제의 공간을 사이버상으로 구현하여 실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3차원 VR 영상에는 현장의 이미지와 인터뷰 내용, 공간이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철거로 인해 멸실 예정인 공간에 대한 현재의 공간감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6> 피맛길 실내의 VR 영상구축 화면 예시



<그림 37> 피맛길 3D 실측 동영상

4 소결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내용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구현에 관한 일례를 제시해보고자 청진동 피맛길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기록을 구축하였다.

먼저 청진동 일대의 피맛길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공간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현장 탐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자료의 수집을 통해 지금까지 피맛길이 어떻게 기록되어 왔으며,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문헌, 단행본, 관련 기사 및 동영상과 웹페이지, 관보 등의 정책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고,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였다.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서도 피맛길에 현재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피맛길의 의미와 공간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별로 층수, 업종 및 상호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탐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탐문조사를 동영상, 녹음, 메모, 설문지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여 공간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의 형성과정 및 그 특징, 계획 및 정책의 변천 등의 공간이력정보의 기록을 구축하였다.

물리적 환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피맛길 일대의 VR 영상 촬영하여 공간정보로서 완성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사이버투어 구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맛길과 그 주변 건물들에 대한 3D 광대역 스캔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스캔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정지된 실물영상을 통해 사이버투어를 구축하고, 좌표로 측량된 점구름(cloud points)으로 이루어진 레이저 측량 데이터를 동영상으로 구현하여 향후 실물 모사구축 등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가공의 용이성을 고려하였다.

공간이력 조사, 현장 탐문조사, 그리고 물리적 환경 기록이라는 세 가지 방법의 공간 기록구축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 및 생성된 자료를 실제적으로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구현하였다.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가공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Main Database를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구상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공간정보기반의 image DB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인 공간의 이야기가 담긴 외부 DB와의 정보 공유 프로토콜이 장착된 웹사이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간기록 과정은 지금까지 공공에서 서비스해온 공간정보 기록들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의 공간정보기록이 건축도면이나 도시 계획정보, 혹은 지리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공간의 지감자원 및 현재 삶의 모습까지 담았다. 둘째, 지감자원 및 삶의 모습의 구현을 위하여 현지인의 인터뷰 영상 및 3차원적 공간 영상 및 3D 레이저 측량데이터, VR 영상을 구축하는 등 구현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공간정보를 DB 운영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진보된 형태의 공간아카이브 구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방안

1.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중점 추진 과제
3. 추진 전략

(a u r i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방안

1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국가적 차원의 건축·도시공간 기록 정책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이 우리나라의 정책·산업·문화의 정수이며, 이에 대한 기록은 관련 분야의 정책 개발과 연구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분야 및 학술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 계획 및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 기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기록관리 시설의 확보, 관련 기록 생산 및 관리의 고도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의 개발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 정책 추진 배경

현존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은 국가의 정책적·문화적·산업적 역량의 결집에 의해서 형성된다. 건축물과 도시 공간의 조성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 및 민간 자본이 투입되며, 국부의 기반이 된다. 현대의 건축·도시공간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주체의 고도의 협업 과정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관련된 정책 수립 분야, 산업 분야 및 학술 분야의 지식 창출을 위한 근간이 된다. 따라서 관련된 공공 기록물은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의 참조점이 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공공 기관은 우리의 건축과 도시 환경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기록화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흔적을 지우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가 정점에 달한 지금, 한국의 도시 공간은 장소의 역사적 맥락과 잠재력을 자산으로 삼아 문화적으로 풍성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공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개발 사업 추진 이전에, 기존 공간의 특성과 인문·사회적 맥락을 기록화하여 이를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후세에 지금의 도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장기지속적인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600년 조선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종로 피맛골과 같은 공간이 새로운 개발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로 사라질 예정이고, 경제 발전 시대의 유산인 세운상가의 모습도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이러한 도시 공간과 건축물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나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만, 소중한 한국의 건축·도시공간 문화유산임에 분명하다. 미국과 같이 역사가 길지 않은 국가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들었던 과거의 공간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미래의 건축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적 건축·도시공간 문화의 밑거름은 최고의 기예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 작품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건축물 그 자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목표

(1) 현대 건축·도시공간 문화의 기록 구축

기존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은 짧게는 정부수립 이전, 길게는 선사시대까지의 시간적 범위에 속하는 유물이나 유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문화재 실측기록 사업의 경우에도, 가깝게는 근대 건축물에 관한 기록구축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주로 근대 이전의 건축 유산에 관한 기록화 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건축·도시공간 기록 구축은 현존하는 도시공간과 건축물 및 새로운 공간의 창출 과정에 대한 기록화 및 관련 기록물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정책에는 과거에 생산된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에 관한 사항도 정책적으로 수집·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정부 수립 이전의 기록물 등에 관해서는 이미 문화재의 수집 및 관리 제도가 수립되어 있고, 관련 사업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건축·도시 기록관리 정책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록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2) 건축·도시공간 정책 및 계획 수립 경험의 축적

국토환경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국토환경 디자인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공공 발주와 관련된 공모전 수행 결과와 출판작품의 수집 및 관리, 공공의 건축·도시공간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의 기록화 및 공개 창구 마련, 사업 시행 이후의 결과에 대한 기록화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한국의 건축·도시문화 저변 확산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 분야에 관한 국제적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국가이미지 형성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30) 또한 안소민 외(2007)³¹⁾의 연구에서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도시경관혁신, 이미지 강화, 이미지 쇄신, 이미지 창출로 나누어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했으며, 그 결과 도시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도시공간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은 기존의 도시공간에 이미지에 관련된 강력한 정보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도시브랜드의 가치 향상 및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을 단순히 구축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건축·도시공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 교류의 기반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는 매우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0) 안종석(2007), “다차원적 국가이미지 요인구조와 중국 소비자의 국가이미지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v11(2) ;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국가이미지 형성에는 인지적, 규범적, 감성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런데 건축·도시공간의 수준에 관한 이미지는 이 중에서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31) 안소민·장동련·홍성민(2007), “도시경관의 디자인 혁신이 도시브랜드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72(4)

한편 앞으로의 건축·도시공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시민 사회의 계획 과정 참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건축·도시공간 문화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은 이러한 사회 전반의 건축·도시공간 문화 저변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기본 방향

(1)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기록 관리 체계 구축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주요 사업, 계획 및 정책 기록물은 우선 관련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정보공개제도 및 국가 기록물 관리 제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통합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 목록 DB 구축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활용에 대한 전반적 체계 정비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에 생산되던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혹은 기록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기록의 품질이 건축·도시공간이라는 기록 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 생산 단계의 문제를 포함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건축·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기록 방식에 있어서 올바르게 작성된 준공 도면은 건축 공간의 원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과거에 조성된 공간이나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의 공간을 기록 대상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통해 기록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록물 생산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대해 적합한 기록의 방법 및 내용적 기준을 확립하여, 이후의 정책 수립 및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정보를 생산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국토 정보 기반과 연계된 기록물 활용 서비스 개발

건축·도시분야 기록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반의 정보 공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적 참조가 필요한 정보는 디지털 국토정보 기반과 연계된 기록물 열람 및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보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점 추진 과제

1) 도시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건축·도시공간 기록구축 방안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고품질 기록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개발 사업이나 건축 행위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 기록 구축 및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기록 구축은 다음의 세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사업 시행 이전 상태에 대한 참조적 기록 구축

서울 도심부의 경우, 거의 모든 곳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화재 또는 사적 등으로 지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사적 공간에 대한 기록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개발이 이루어져, 600년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문화 자산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역사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수백년 역사를 지닌 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건축과 도시 공간은 그 자체로서 후세에 전해야 할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건축 행위 이전에 대상지에 대한 공간적 기록 구축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피맛골 기록 구축 작업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기록 구축에 있어서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정밀한 기록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현황에 대한 조사, 관련된 계획 및 정책

여건에 대한 조사가 입체적으로 수행되어 그 결과가 기록화 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간에 대한 참조적 기록 구축은 기록의 대상지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 '시청각 자료'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준공도면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와 희소성을 기준으로 전방위 파노라마 촬영이나 레이저 측량 등의 기록 수단을 활용하여 공간 자체의 원형을 정보화 하여 추후 연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업 추진 과정 및 계획 수립 과정의 기록 생산 및 관리 방안

건축·도시공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시행 및 계획·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이거나, 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정책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주요 디자인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기록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록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 건축 사업이나 신도시 계획 과정에서 설계 공모 등으로 국내외적 설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관련 출품작 등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여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모전 출품작 등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수장고 시설과 전시 공간이 요구되며, 이는 전문 관리시설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참조적 기록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참조적 기록 구축은, 도면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개의 시점이나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상세 도면은 건축물의 안전이나 보안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또한 건축 도면은 건축사의 창조적 고안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공공에 의해서 공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민간의 권익이나 건축주의 안전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활용 체계 강화

건축·도시 기록물의 구축 및 사회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 못지않게, 이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 해외의 주요 건축 기록물 관리 기관도 웹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도면 및 3차원 공간 정보 등 다양한 형식의 건축·도시 기록물의 열람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개발 및 구축에 있어서는 디지털 국토정보 기반과 연계하여 공간적 자료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 기록물 검색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 표준에 의한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전문 기록 관리 기관 확보

국내에는 건축·도시분야 기록물 전문 관리 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기반 시설로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도시 박물관 및 관련 도서의 수집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도서관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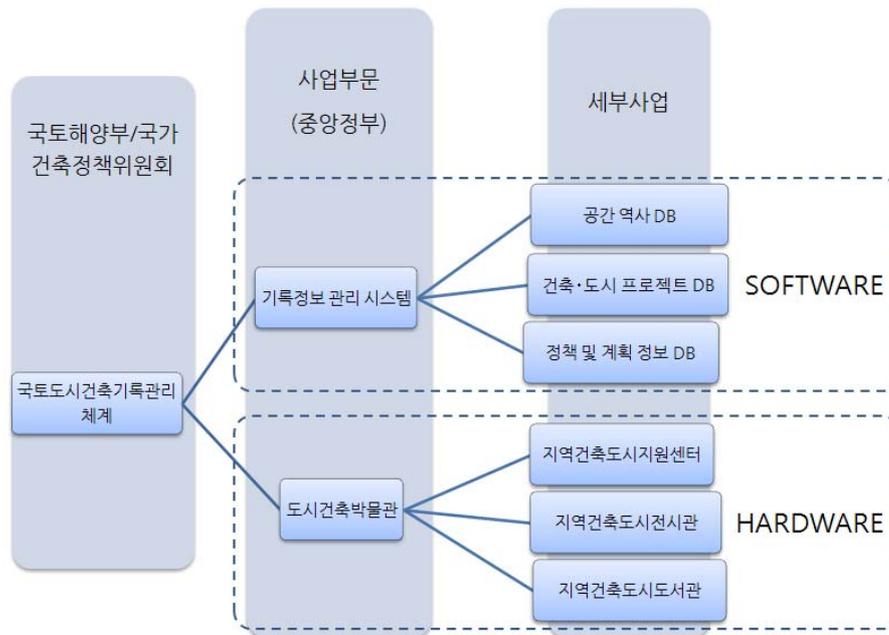
이러한 전문 기록물 관리 시설에는 각종 공모전 출품작, 사업 추진 과정의 원본 도면, 시청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 기록물의 합법적 소장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감독과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고려했을 때, 박물관 시설이 국토해양부의 준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건축·도시공간 기록물 중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고 구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지역별 전문 관리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박물관 시설은 이러한 지역 기록물 관리 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진 전략 3

1) 추진 체계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의 특성상 이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들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8〉 국가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추진 체계

주요 사업 부문은 기록정보의 구축 및 관리체제를 정비하는 소프트웨어 부문과, 도시건축 박물관이나 건축도서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하드웨어 부문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1) 소프트웨어 부문

건축도시 관련 기록물의 생산(기록화 사업), 행정 정보 및 설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물의 추적·관리(목록화 사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제별로는 주요 도시 장소의 역사적 참조 기록을 구축하는 공간 역사 기록물 생산 사업과 주요 공공건축물 및 도시 계획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록, 계획안, 공모전 출품작 등을 수집·관리하는 건축·도시 프로젝트 기록물 관리 사업,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는 정책 및 계획정보 DB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전문 관리 기관 확보

국내에는 건축 분야의 전문 박물관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도로 관련 박물관 시설의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기 추진중인 행정중심 복합도시(가칭)도시건축 박물관 사업이나, 건축도서관 건립 계획 등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가칭)지역 건축 지원 센터 등이 설립될 시 지역의 건축 박물관이나 기록물 관리 기능을 부여하되, 국가기록원의 관리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 박물관 및 도서관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기록관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세부 추진 전략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기록화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제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이전 공간에 대한 기록 구축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정책 결정 및 계획설계적 의사 결정 과정의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을 제도화하고, 전문 기관에 의한 기록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정책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실제 도시개발 사업의 주체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

변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 도심부 등, 도시 공간의 역사적 기록 구축이 시급한 지역을 (가칭)장소 기록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현황에 대한 기록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록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같은 관련 조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건축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단, 조사와 기록화의 주체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도시공간의 기록화 작업인 경우 정부 차원의 보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 맺음말

(a u r i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 및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에 소장된 건축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넘어서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의 동적인 변화에 관한 기록을 구축·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기록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관련된 민간 부문의 기록물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의미의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가의 설계 활동에 관한 민간 기록물과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서적 등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기록 구축 및 관리의 정책적 중요성과 방법론적 고도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기록 구축만으로 도시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맺음말 2

시범 기록화 작업의 대상지가 되었던 피맛골은 서울의 600년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역사 공간이지만, 마땅한 보존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보고서가 출간될 시점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과정에서 청진 도시환경 재정비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대상지의 참조적 기록 구축을 통해서 피맛골의 원형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장소 그 자체를 보존하고 가꾸는 사회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

1. 종로 피맛길 관련 문헌 및 현장탐문조사 결과
2. 종로 피맛길 일대 3D 실측조사 결과

(a u r i

참고문헌

1. 단행본

- 건설교통부(2008), 『세움터 사용자메뉴얼』
- 국토해양부(2008), 『도시계획현황, '98~'07』
- 국토해양부(2008),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방안시스템의 발전방향』
- 문화재청(2008),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 통계』
- 문화재청(2008),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 안종욱(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건설교통부
- 이한주(2008),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건설교통부
- 임은선(200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건설교통부
- 성지월(2000), 『괴맛골로 가련다: 탄곡 성지월시 전집』, 백림
- 정대진(2003), 『여우, 술 마시는 날』, 정은문화사.
- 행정안전부(2007), 『2007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 정기간행물 및 저널

- 김도년의(2003), “20세기 건축기록보존소와 빠비용 드 라흐스날”, vol.47, no.8, pp.30~32.
- 류연훈·김영하(2003), “도심재개발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 서울시 청진구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19, no.5, pp.123-130.
- 백경무(2003), “독일건축박물관”, 『건축』, vol.47, no.8, pp39~43.
- 서울특별시(200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새롭게 조성되는 ‘괴맛길’ ”, 2008-09-25.
- 신승수 외(2003), “네덜란드 건축협회:복합적 프로그램 운영의 조직적 구현”, 『건축』, vol.47, no.8, pp.44~48.
- 안소민·장동련·홍성민(2007), “도시경관의 디자인 혁신이 도시브랜드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72, no.4, pp.129~142.
- 안종석(2007), “다차원적 국가이미지 요인구조와 중국 소비자의 국가이미지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v.11(2)
- 장박원, 「서울 청진동 골목길 빌딩숲된다」, 『매일경제』, 2008-03-03.
- 전봉희·우동선·이우중(2004),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20, no.3, pp.94-103
- 전봉희 외(2003), “건축 아카이브의 보존, 운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KOSEF』, 한

국과학재단

정인하(2003), “한국 현대건축사 연구와 아카이브”, 『건축』, vol.47, no.8, pp18~19.

정현태(2003), 콜럼비아대학교 에이브리 건축 및 예술도서관, 『건축』, vol.47, no.8, pp.33~38.

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2.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2.29]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6.13]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2008.6.10 개정)]

4. 웹사이트

국가 기록원 나라기록 검색 <http://search.archives.go.kr>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구글 어스 <http://earth.google.com>

기록문화유산포털 <http://memorykorea.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런던 지역정보사이트 <http://www.yourlondon.gov.uk>

북아일랜드의 공간계획정보시스템 <http://www.planningonline.co.uk>

영국의 공간계획정보시스템 <http://www.planningportal.gov.uk>

영국의 공간계획검토시스템 <http://www.planning-inspectorate.gov.uk>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공간계획정보 시스템 <http://www.gencat.net>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Yu, Kwang Heum
Oh, Sung Hoon
Cho, Sang Kyu
Seong, Eun Young

1. Introduction

With recently increasing social demands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players of carrying out policie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quality of design required in related areas has been remarkably improved. To prop up changes in an environment of policy-making and to socially share experiences of diverse policy players, there is a need for advancement in management mechanism of social records with regard to space.

Unfortunately,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hen it comes to the reality facing us. For example, design models, presented to public competitions of design that are in search of optimal alternatives to design, have not been properly managed due to lack of criteria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even if the effort has been made to restor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orresponding locations during urban redevelopment, the absence of records for what the locations looked like before development has made it difficult to make an appropriate plans or designs. Furthermore, althoug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c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records and information on policies and projects of various players have not been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As a matter of fact, in the Article 3 of the Basic architectural Plan from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undamental

Law for Architecture(enacted in June 20 2008), it is stipulated that issues on establishment of record resources regarding an environment of buildings and spaces should be included in a bid to address problems associated with soc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for information of space records. However, studies on specific policy direction or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still insufficient at hom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produce a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order to establish national management mechanism dealing with records of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To this end, this study redefines a concept of an archive for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 based upon case studies of related system and policies and recommends concrete action strategies by conducting a pilot research into record establishment and evaluating a result from it.

2. Definition of the Archive for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A concept of an archive according to record and archive management means all the records themselves, produced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ctivities or management for the records. In general, 2 concepts of an archive, as a collection of

data by theme or as the entire body of records, are mingled together to some extent, but a genuine meaning of the architecture archive is the entire collection of public and private records based on activities of architects.

Since such a concept of the architecture archive is one that manages records centering on activities of architects, it has a shortcoming in 2 aspects as follows. Firs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s and cities, both of which have developed by closely interacting each other, it is necessary that changes in architecture space be understood in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policies, planning, projects for cities. Second, public records related to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takes much more time to go to a phase of historical records, in comparison to record resources in other areas. Therefore, when it comes to the management of the records of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it is extremely difficult that the policy of records management, mainly by the management agency of archives, can secure policy practical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redefines a concept for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as a mechanism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records regarding changes in urban space including architecture activities.

3. Analysis on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y Trend

From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s, regulations for public records related to changes in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are divided into 2 areas: regulations and legislation associated with management and laws for records and information; and law and regulations on investigation into and records of planning and development projects.

Concerning laws associated with information of public records, there are mainly two laws: one is to cover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resources; another is to handl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public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law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decide policies, produce records at each stage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place a special agency of record management in place. Meanwhile, the law for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public organizations makes it mandatory to publicize information of administrative work and records. However, a substantial part of public information and records for urban and architecture space has been banned to unveil due mainly to worries and concerns about speculation in real estates, and a possible impediment to those who carry out projects.

In the process of official examination conducted at the planning phase, status

investigation, done when a district plan is made, is required for microscopic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The regulation on investigation and records in accordance to a development project covers a series of evaluations for the impacts of environment, traffic and population by the evaluation laws for impacts on environment, traffic and disasters, and relates to investigation into the index of cultural assets and excavation by the protection law of cultural assets. Among them, however, is nothing that can be done to record current architectures and urban spaces. In addition, even investigations into the cultural asset index and excavation, focusing on investigation record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puts relics inherited from the past before current architectures.

Although a concept of establishing records from the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current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is nothing but insignificant,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system for land resources, needed to manage cities and decide policies, is seen as a key national agenda, attracting substantial amount of investment. Additionally, development of the 3-dimensional information system for land resources is ongoing, combined with information of architectures in the mid and long term. Probably, it will take much time until the space record by the digital information project secures the sufficient level of detail for reproducing architecture space. Furthermore, the digital information of land resources is not enough to be taken as the basis of proper policy-making for space since it does not have clear details, such as when information of each place were recorded.

In contrary, advanced countries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such as France or Netherlands, facilitate to share activities and forums of active experts in areas of architectures and cities by providing exhibitions, accumulate and manage related records through archive facilities and are equipped with an integrated system that produces forward-looking discussion through a variety of conferences an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4. Subjects of the Archives and Strategies for Recor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The record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s should be accessed as the entire process of recording physical shape, 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so the record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upon a urban development project accompanied by activities of architecture. By doing so, the record at the architecture level for urban space can be established.

The major area for records of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consist of 3 elements, such as policy, project and location. For planning and policy making, even information of changes in regulations for land use by a lot has been collected by the policy of the existing digital information for land resources. However, for the record of each location and the process of a project, work for recording has yet to be suffici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efforts to focus

on reinforc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rd for these areas and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manage and utilize them.

For the strategies for records based on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area requiring investment most is the establishment of reference records regarding locations. To this end, both a multi-faceted approach and special techniques are necessary. For practical direction to be set in this matter, I, as an author of this study, have conducted a pilot research into record, targeting Cheongjin Redevelopment Area in Jongro-gu, what is known as Pimatgol.

5. The National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The Policy on recor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should be started from regar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as essence of our culture, and records for the space should be produced and managed in order to use them as the basis of policy-making and researches in related areas. To set up policies on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and to prop up development in related industrial and academic area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nd manage systemic records regarding policies related, planning and proces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To make it happen,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policy, encompassing a key issue that secures a special facility of records management, that advances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records, and that develops the nation-wide service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people.

It is probably desirable that the policy of records management for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be implemented mainly by the National Commission for Architectural Policy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n the basis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undamental Law for Architecture. In addition, work on supporting to reform relate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companied, considering the fact that main players of a real urban development project have been diversified into public companies, local autonomic organizations and so on. For policies, it will be a better idea to push ahead with a measure that makes it mandatory to record what looked like before urban development project by designating a location that urgently requires historical records establishment for space, like the center of Seoul, as the Preservation Area for Recording a Location (provisional name).

6. Conclusion

his study suggests a concept of an archiv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nd provides a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the comprehensive context in order to make this concept reality. In particular, this study, going beyond measures to manage and use architecture records housed in the archives, offers an implementation strategy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manage and utilize records for dynamic changes in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on the basi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raises the level of precedent researches a step higher. However, this study does not go further than public records for architectural and urban areas. Therefore, to establish an archive of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in the genuine context, it is prerequisite to have follow-up researches with regard to how to manage and take advantage of private records for activities of architects and books with academic value.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even though it was fortunate to be able to record an original shape of Pimatgol by establishing reference records of the area targeted by Cheongj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such a work is far from the preservation of history and memory of the location even in a very narrow context.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nothing but important to record our living foundation and make it a better place to live in based on such an effort. However, more important is to pursue an aim to support the social effort to preserve and cultivate locations themselves.

Key words: Architecture records, urban space records, Archive, Recording, and Museum

부록 1.

종로 피맛길 관련 문헌 및 현장탐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종로 피맛길의 유래와 공간적 범위 및 변천과정에 대한 문헌조사
- 현존하는 피맛길 구간 중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탐문조사

(2) 조사 범위

① 공간적 범위

- 종로 교보생명 빌딩 뒤편 ~ 종각역 제일은행 후면부 사이의 피맛길 구간
- 피맛길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6구역(르메이에르빌딩) 제외)
 - 역사관련 문헌조사는 대상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종로 및 사대문 지역 포함



② 시간적 범위

- 문서상 확인이 가능한 시점 ~ 2008년 10월 현재

(3) 조사 기간

- 2008. 10. 29. ~ 11. 25. (토·일요일 제외, 약20일간)

(4) 조사 내용

① 문헌조사

- 종로 피맛길에 대한 기존 연구현황 리스트
 - 관련 연구제목, 연구자, 수록정보 등 서지정보 리스트
 - 원문이 있는 경우 파일정리 후 제공
- 종로 피맛길 및 주변(종로 및 사대문)지역의 공간 역사 문헌자료 현황 조사 및 수집
 - 피맛길의 유래, 범위 등
- 대상지역 공간 개발과정의 주민 인터뷰 자료 수집(신문, 연구자료, 방송 등)

② 현장 탐문조사

- 지역주민 인터뷰 (※질문예시를 참조하여 질문지를 작성)
 - 상업 현황
 - 재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르메이에르 빌딩 재개발사업에 따른 상가 이주실태 포함)
-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 면담(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담당자)
 -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및 진행상황 질의(진행상 문제점 등)

2) 조사배경

- 종로 이면의 피맛길은 600년 역사의 골목으로, 특히 90년대 이후 그 독특한 정취와 역사적 가치가 부각되며 널리 알려져 있다.

- 이 중 특히 교보빌딩에서 SC 제일은행까지 이르는 종로1가의 청진동 구간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민적인 식당들이 밀집해 있다.
- 이 일대는 1979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3년부터 제 6지구에 주상복합 용도의 건물(현 르-메이에르 빌딩)이 들어섰다. 최근 도심 업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다시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 2008월 말 현재 교보빌딩과 르-메이에르 빌딩 사이의 제 3지구, 제일은행 서쪽의 12-16 지구에 대해 토지 매입 및 사업 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1년이면 이 일대는 20층 이상의 고층 빌딩숲으로 바뀌게 된다.



3) 조사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피맛길이 사라지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다.
- 이것은 우리가 피맛길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의 문제와 닿아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공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일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 또한 기록의 결과물 뿐 아니라, 기록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 자체가 도시건축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의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자 한다.

4) 조사범위

(1) 내용적 범위

-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문헌자료의 수집을 통해 지금까지 피맛길이 어떻게 기록되어 왔으며,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맛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문헌조사에서는 연구문헌, 단행본, 관련 기사 및 동영상과 웹페이지, 관보 등의 정책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고,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였다.
- 현장에서는 먼저 현존하는 건물별로 층수, 업종 및 상호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고,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2) 공간적 범위

- 피맛길과 피맛골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공간적 범위를 지칭한다. 피맛길은 원래 말을 피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종로 이면의 좁은 골목길만을 의미하고, 피맛골은 구불구불한 골목들로 이루어진 그 배후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의뢰한 이번 조사의 일차적 대상지는, 청진재개발 구역 내 피맛길 중 교보문고에서 옛 한일관 건물까지의 약 300M에 이르는 범위이다. 여기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청진구역 제 3지구와 제 6지구(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 제 8지구, 제 16지구의 총 41개 건물이 포함된다.
- 문헌조사의 경우 ‘청진동’, ‘재개발’, ‘피맛길’, ‘피맛골’ 등의 검색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일차적 대상지뿐 아니라 피맛길 전체 혹은, 피맛골 지역 전반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였다.



청진동 피맛길 주변지역 조사 대상지

(3) 시간적 범위

- 문헌조사의 수집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8년 11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대상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웹에 기반한 검색 방식의 한계로 2000년대 이후의 자료가 주로 검색되었다.
- 현장조사는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1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총 3번의 보완 단계를 거쳐 12월 6일에 완료되었다.

2. 문헌조사

1) 조사범위

- 문헌조사에서는 피맛길의 유래, 범위, 변천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공간적, 학술적 기록들은 물론,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이미지와 기억, 감상들까지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피맛길의 모습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 문헌조사의 범위에는 연구문헌, 단행본, 관련 기사 및 동영상과 웹페이지 등 매체의 보도자료, 관보 등의 정책자료와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포함된다.
- 먼저, 다양한 학계의 학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피맛길에 대한 학술적인 성과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다.
- 피맛길에 대한 내용이 실린 단행본을 통해 피맛길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또 이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피맛길에 관하여 각종 신문과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통해 시기별 주요 변화들과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알 수 있다.
- 관보는 이 지역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재개발 지역 지정 등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일차적인 자료이다.
- 대장은 대상지 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2) 조사 및 분류 방법

- 연구문헌조사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학술 데이터베이스(KISS), 누리미디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PIA), Google 학술검색 등 웹 상에 구축되어있는 데이터베이

스를 중심으로 ‘피맛길’, ‘피맛골’, ‘종로/청진동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 수집한 자료는 학술적 위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식으로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위논문, 둘째는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그 밖에 논문은 아니지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학회, 전문출판사 등의 기관지에 게재되는 자료들이나, 각종 공공 및 학술행사의 발표자료 등이 있다.
- 단행본 조사는 ‘피맛길’, ‘피맛골’, ‘종로/청진동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웹 상에 구축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정보 수집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SOLARS)과 교보문고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 수집한 단행본은 다루는 주제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각종 고지도들과 위성사진집 등 피맛길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수록한 서적들이다³²⁾. 둘째는 학술서적으로 도시 건축과 경관 분야의 연구 성과물 뿐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피맛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는 피맛길의 유래 및 사연을 담은 서적으로, 좀 더 가벼운 형식으로 피맛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다. 넷째는 맛집 소개, 관광 안내 및 기행문류의 서적들로, 이런 관점은 기사나 블로그 등에서도 꽤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는 피맛길이 배경 혹은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 문학작품들이다. 검색 결과 중 원문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앞뒤 내용을 파악하여, 배경 공간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는 자료만을 포함시켰다.
- 보도자료 조사는 뉴스 포털사이트와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피맛길’, ‘피맛골’, ‘종로/청진동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가능한 해당 매체가 직접 제공하는 원문 페이지를 기준으로 원 저자와 보도 일자, url과 원문 등을 수집하였다. 검색된 자료의 형식에 따라 기사/뉴스 및 동영상 자료/ 블로그 및 홈페이지로 구분하였다.
- 관련 기사의 경우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피맛길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여 주제 및 관점에 따라 한 번 더 분류하였다. 재개발, 사업추진 현황이나 분양과 관련하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았고, 피맛길이 사라지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나 보전의 필요성, 개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도 많았다. 피맛길에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사연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들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맛집, 관광, 기행의 관점에서 피맛골을 소개한 기사들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신간 단행본을 소개하는 기사로서, 피맛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³³⁾.

32) 지도 검색을 위해서는 ‘고지도’ ‘서울/종로 지도’ 등 별도의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33) 이것을 다시 단행본 검색과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보완하였다.

- 뉴스 및 동영상 자료는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 매체 등에서 피맛길의 역사 및 재개발과 보존에 관하여 보도된 내용을 수집하였다. 피맛길 내의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들은 맛집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각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해서 소개되는 경향이 있다. 직접 자기 가게가 나온 보도자료를 모아서 홍보 및 고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개별 가게를 다룬 프로그램들은 그 양이 너무도 방대하고 ‘피맛길’ 등의 검색어를 이용한 일괄 검색이 어려운 데 비해 이번 조사 목적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 밖에 웹사이트의 형식으로 피맛길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 중 공식적이고 대표성을 띠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홈페이지를 일단 포함시켰다. 개인 블로그의 경우 웹 2.0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중요한 기록 및 소통의 매체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이 자유롭게 생산해내는 자료의 특성상 양이 매우 방대하고 자료의 공신력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선별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1) 블로그가 활성화 되어있고, 2) 피맛길과 관련한 사진, 일러스트, 동영상, 에세이 등 고유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3) 특히 재개발이 이슈화 된 이후의 저작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담았다.
- 정책자료 조사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 및 서울시청에서 발간하는 시보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종로’,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2001년 이후 관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 2000년 이전 관보에 대해서는 국가 기록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서울시보는 서울특별시 사이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하였다.
-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후 인근 구청에서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지번의 정보가 불확실하여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종로구청을 방문하였다.
- 연구 문헌, 단행본 및 보도 자료는 최근 자료부터 시대 역순으로 목록을 작성하였고, 정보는 시대순, 대장은 지번별로 정리하였다. 원문이 있는 경우 원문 자료도 첨부하였다.

3) 조사 현황

유형	세부 항목	조사 결과	조사 현황
연구문헌	연구논문	저자, 연도, 제목, 게재지 권호수 등 수록사항 목록 + 원문	21 건
	학술발표대회논문		
	기타 전문 자료 (학회지 수록 및 발표자료)		
단행본	지도	저자, 연도, 제목, 출판사 +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책과 저자소개, 목차 및 피맛길이 언급된 부분의 원문 등 첨부	63 건
	학술서적		
	피맛길의 유래/사연		
	맛집/관광/기행 문학작품 속 피맛골		
기사	기사	기사: 기자, 제목, 신문명, 보도일자 동영상: 작성자, 제목, 프로그램명, 방송사, URL 웹: 작성자, 제목, 홈페이지, URL, 작성일자 + 원문 등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첨부	165 건
	뉴스 및 동영상		
	블로그/홈페이지		
정책자료	관보	게재기관, 고시명, 관보명, 발행일자 + 원문	21 건
	시보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	행정동, 지번, 대장별 발급 사항	81 건
	건축물대장		

4) 조사 결과

(1) 연구 문헌

- 연구문헌조사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학술 데이터베이스 (KISS), 누리미디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DBPIA), Google 학술검색등 웹 상에 구축되어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중심으로 ‘피맛길’, ‘피맛골’, ‘종로/청진동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 수집한 자료는 학술적 위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식으로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위논문, 둘째는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그 밖에 논문은 아니지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학회, 전문출판사 등의 기관지에 게재되는 자료들이나, 각종 공공 및 학술행사의 발표자료 등이 있다.
- 조사 결과는 저자, 연도, 제목, 게재지 권호수 등 수록사항을 유형별로 목록으로 정리 하였고, 원문을 부록 1에 첨부하였다.

분류	발행 기관	조사 현황
연구논문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6 건
학술발표대회논문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8 건
기타 전문 자료 (학회지 수록 글 및 발표자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간 건축문화,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초고층건축포럼	7 건
합 계		21 건

(2) 연구 논문

- 김홍식, 2007, 「청진 6지구 시전행랑 유구에 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vol.16, no.3, pp.191-213.
- 진경혜, 2007, 『서울시 음식거리의 형성배경과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철재, 2004, 「실내공간 디자인 요소가 가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피맛골의 야간 경관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3, no.5, pp.215-222.
- 류연훈·김영하, 2003, 「도심재개발사업 실태와개선방안 / 서울시 청진구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19, no.5, pp.123-130.
- 오은숙·김영욱 외, 2003, 「공간구조와 보행량을 고려한 도시조명계획 방법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19, no.10, pp.93-100.
- 홍윤순, 2000, 「서울도심재개발 사업계획의 문제와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16, no.6, pp.113-120.

(3)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대익·김경배, 2007, 「노후 건축물 갱신유도를 위한 건폐율기준 완화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683-686.
- 김지혜·김경배, 2007,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노후건축물 갱신유도방안 연구 - 관수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6-55.
- 송희숙·김기호, 2007, 「도심부 주거관련 정책과 그에 따른 단위주거 일조문제」, 『한국도

- 시설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61-272.
- 김인영·김경배, 2006, 「관수동 피맛골의 이용실태, 문제점,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도시
시설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03-212.
- 유미소·정명원, 2006, 「도심부 내에 공존하는 전통문화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종로 내
의 피맛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집』, pp. 209-212.
- 정봉거·안현진 외, 2006,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높이규제정책 변화의 정당성 분석
- 서울시 청진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시설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61-70.
- 채진오·김경배, 2006, 「도심부 주차장 설치기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시
시설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81-388.
- 최재영·구자훈, 2004, 「수복재개발 사업시행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청진구
역 수복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241-252.

(4) 기타 전문 자료 (학회지 수록 글 및 발표 자료)

- 유현준, 2008, 「[프로젝트 리포트] 청진동 재개발 계획안」,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ol.52, no.4, 2008-04, pp. 85-88.
- 박성근, 2005, 「[특집] 청계천 복원과도심부 발전계획」, 『건축』, 대한건축학회, vol. 49,
no. 3, 2005년 3월호 pp. 28-31.
- 강형구·이진명, 2004, 우리나라 미래 도시의얼굴 in: 한국 초고층건축 실현화 기술과미래
(한국초고층건축포럼 심포지엄), 한국초고층건축포럼, pp. 23-29.
- 임진영, 2004, 「대규모 도심재개발, 낙후된 도심상권의 업그레이드인가, 또 다른 도시조직
훼손인가 - 세운상가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 『월간 건축문화』, 도서출판 에이
엔씨, vol. 282, 2004년 11월호, pp. 110-113.
- 김광중, 2003, 도심부계획의 주요 쟁점과 대안, in: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토론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년 5월, pp. 63-183.
- 김경배·김상인 외, 2003, 「청계천 복원과도심부 발전방향」,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03년 11월호, pp. 3-17.

양윤재·양승호 외, 2000, 「[논문]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 연구」,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vol.1, 창간호, 2000년 12월호, pp. 9-36.

(5) 단행본

- 단행본 조사는 ‘피맛길’, ‘피맛골’, ‘종로/청진동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웹 상에 구축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정보 수집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SOLARS)과 교보문고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 수집한 단행본은 다루는 주제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종 고지도들과 위성사진집 등 피맛길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수록한 서적, 학술서적, 피맛길의 유래 및 사연을 담은 서적, 맛집 소개, 관광 안내, 기행문류의 서적, 피맛길이 배경 혹은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 문학작품들이다. 원문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앞뒤 내용을 파악하여, 배경 공간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는 자료만을 포함시켰다.
- 조사 결과는 저자, 연도, 제목, 출판사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책 소개, 저자 소개, 목차 및 관련 정보의 URL과 피맛길이 언급된 부분의 원문 등을 함께 부록2에 첨부하였다.

분류	내 용	조사 현황
지도	각종 고지도들과 위성사진집 등 피맛길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수록한 서적	18 건
학술서적	학술서적으로 도시 건축과 경관 분야의 연구 성과를 뿐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피맛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서적	11 건
피맛길의 유래/사연	좀 더 가벼운 형식으로 피맛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서적	9 건
맛집/관광/기행	맛집 소개, 관광 안내 및 기행문류의 서적	12 건
문학작품 속 피맛골	피맛길이 배경 혹은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 문학작품	13 건
합 계		63 건

(6) 지도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편] 2007, 『고지도 목록 및 해제』, 문화재청, 대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편], 2006,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2005, 『朝鮮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

영진문화사, 2002, 『서울·수도권 정밀지도 : 도로·행정·관광·총괄편』, 영진문화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2000, 『지도로 본 서울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외, 2000, 『위성영상지도첩: 서울대도시권 [지도]』, 국토연구원.
- 이찬·양보경, 1995, 『서울의 옛 地圖』,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1994, 『古地圖와 古書로 본 서』,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
- 종로구, 1994, 『鍾路區誌』, 종로구.
- 종로구 [편], 1994, 『鍾路區 都市基本計劃(案)』, 종로구, 서울.
- 허영환, 1994, 『(定都 600年)서울地圖』, 범우사, 서울.
- 문화지도편찬위원회, 1992, 『서울의 문화지도』, 신구문화사.
- 이찬,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서울.
- 허영환, 1989, 『서울의 古地圖』, 삼성출판사, 서울.
- 국립지리원, 1979, 『韓國古地圖目錄』, 건설부국립지리원 서울.
- 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7, 『韓國 古地圖』, 한국도서관학연구회, 서울.
-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1971, 『韓國古地圖 解題』,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1959-60, 『(鍾路區)區勢一覽, 4292-93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7) 학술서적

- 전우용, 2008, 『서울은 깊다』, 돌베개.
- 조정송, 2006, 『현대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 한국학술정보.
- 이이화, 2004, 『한국사 이야기 22 -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한길사.
- 홍성태, 2004,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 홍성태의 서울 만보기』, 궁리출판.
- 강명관, 2003,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 김성홍, 2002, 『종로의 상업건축과 공간논리』, 서울학연구소.
- 이규목, 2002, 『한국의 도시 경관』, 열화당.
- 장규식, 2002, 『종로 시간, 장소, 사람 - 일제하 종로의 문화 공간』, 서울학연구소.
- 김기호, 2000, 『서울모습 사진담기를 위한 기획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 장승욱, 1997, 『한겨레 말모이 - 장승욱의 우리말살림사전』, 하늘연못.

이경재, 1993, 『청계천은 살아있다』, 서울신문사.

(8) 피맛길의 유래/사연

이수광, 2008, 『잡인열전』, 바우하우스.

이영미, 2008, 『광화문 연가』, 예담.

스콧 버거슨, 2007, 『대한민국 사용후기』, 캘리온.

김원일, 2004, 『피카소 - 예술과 사랑을 열정으로 불사른 생애』, 이룸.

노형석·이종학, 2004, 『모던의 유혹 모던의눈물』, 생각의나무.

신해곤, 2004, 『청개구리식 재건축 재개발 - 감성으로 완성하는』, 삼양미디어.

비데, 2003, 『한국의 일상 이야기 - 어느 프랑스인이 본 처가의 나라 꼬레』, 눈빛.

권영택, 2000, 『고대수를 아시나요』, 프로방스.

손수호, 1999, 『길썩의 미술』, 한울.

(9) 맛집/관광/기행

장태동, 2008, 『맛골목 기행 - 추억 찾아 떠나는 팔도 미각 순례기』, 랜덤하우스.

호야, 2007, 『서울여행 - 상아와 호야의 반짝이는 신서울 유람기』.

박미향, 2005, 『그곳에 가면 취하고 싶다』, 넥서스Books.

박영수, 2005, 『우리나라 문화 여행 -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후회하는』, 거인.

송기원, 2005, 『뒷골목 맛세상』, 이룸.

이동미, 2005, 『골목이 있는 서울 문화가있는 서울』, 경향신문사.

이희성, 2005, 『술꾼들이 즐겨 찾는 술집 100곳』, 김영사.

전영미, 2005, 『골목에서 서울찾기』, 랜덤하우스 중앙.

최준식, 2005, 『Soul in Seoul - 외국인에게 선물하는 서울의 멋』, 동아시아.

Weekly Friday, 2003, 『찾아라 숨은 맛집』, 랜덤하우스 중앙.

구로다 후쿠미, 2002, 『서울의 달인』, 창해.

편집부, 2000, 『서울 여기가 좋다』, 삼성출판사.

(10) 문학작품 속 피맛골

- 우한용, 2008, 『청명시집』, 문학의전당.
- 박인식, 2005, 『인사동 블루스』, 바움.
- 정숙진, 2005, 『나는 내 손을 사랑한다』, 에세이.
- 김용화, 2004, 『한 달만 바다를 임대할수 있다면』, 북랜드.
- 김선미, 2003, 『구경』,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명재, 2003, 『글쓰는 생활의 보람』, 새미.
- 이영식, 2003, 『공갈빵이 먹고 싶다』, 문학 아카데미.
- 정대진, 2003, 『여우, 술 마시는 날』, 정은문화사.
- 김시원, 2002, 『갈대밭 산조』, 지구문학.
- 박건삼, 2001, 『흔들리는 것이 바람 탓만은 아니다』, 소담출판사.
- 성지월, 2000, 『피맛골로 가련다: 탄곡 성지월시 전집』, 백림, 서울.
- 김재순, 1997, 『송송이반달이』, 문학아카데미.
- 한귀남, 1995, 『간큰남자 길들이기』, 산하.

(11) 보도자료

- 보도자료 조사는 뉴스 포털사이트와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피맛길’, ‘피맛골’, ‘종로/청진동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가능한 해당 매체가 직접 제공하는 원문 페이지를 기준으로 원 저자와 보도 일자, url과 원문 등을 수집하였다. 검색된 자료의 형식에 따라 기사/뉴스 및 동영상 자료/ 블로그 및 홈페이지로 구분하였다.
- 관련 기사의 경우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피맛길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여 주제 및 관점에 따라 한 번 더 분류하였다. 재개발, 사업추진 현황이나 분양과 관련하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 피맛길이 사라지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나 보전의 필요성, 개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다루고 있는 기사, 피맛길에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사연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 맛집, 관광, 기행의 관점에서 피맛골을 소개한 기사, 단행본을 소개하는 기사의 5가지 유형이 있었다.

- 뉴스 및 동영상 자료는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 매체 등에서 피맛길의 역사 및 재개발과 보존에 관하여 보도된 내용을 수집하였다. 개별 음식점이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해서 소개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그 밖에 웹사이트의 형식으로 피맛길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 중 공식적이고 대표성을 띠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의 경우 1) 블로그가 활성화 되어있고, 2) 피맛길과 관련한 사진, 일러스트, 동영상, 에세이 등 고유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3) 특히 재개발이 이슈화 된 이후의 저작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담았다.
- 기사의 경우 작성자와 제목, 신문명과 보도일자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원문을 부록3-4로 나누어 첨부하였다. 뉴스 및 동영상 자료는 작성자와 제목, 프로그램명, 방송사, URL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러닝타임, 시놉시스, 대본 등 기타 자료가 있는 경우 엔트노트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부록 5에 첨부하였다. 웹사이트 자료는 작성자, 제목, 홈페이지명, URL, 작성자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부록 5에 함께 첨부하였다. 모든 자료는 최근 것부터 시대 역순으로, 그 다음은 작성자명 순으로 정리하였다.

(12) 재개발/사업추진현황/분양 관련 기사

- 정지섭, 「[서울 도심이 바뀐다] 신축빌딩 숲에 '인공 뒷골목' - 〈1〉 청진동」, 『조선일보』, 2008-10-27.
- 이준현, 「청진동 재개발」, 『조선일보』, 2008-10-17.
- 신상진, 「'피맛길', 재조성 계획 확정 -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서울의새로운 명소로 재탄생 기대」, 『Daily정경News』, 2008-09-28.
- 김경두, 「먹거리 골목 '피맛골' 빌딩 사잇길 된다」, 『서울신문』, 2008-09-26.
- 김종한, 「피맛길, 마천루 숲으로- 23~24층 빌딩 4채 건설 잔여지구 정비안가결」, 『한국일보』, 2008-09-26.
- 박영석, 「'피맛길' 일대 마천루·중앙공원으로 탈바꿈 - 광화문역~종각역잇는 지하 보행통로 생겨」, 『조선일보』, 2008-09-26.
- 이헌재, 「[수도권]종로 피맛길 '고층 사무실' 탈바꿈」, 『동아일보』, 2008-09-26.
- 「종로 '피맛길' 일대 23~24층 빌딩 들어선다」, 『경향신문』, 2008-09-25.
- 김민진, 「종로 '피맛길' 재개발23~24층 빌딩 들어서 - 공평구역 등 철거재개발에도 모델 적용」, 『아시아경제』, 2008-09-25.

- 김성환, 「종로구 피맛길일대 오피스촌 탈바꿈」, 『파이낸셜뉴스』, 2008-09-25.
- 김소민, 「해장국 끓던 피맛길, 끝내 빌딩숲으로」, 『한겨레』, 2008-09-25.
- 김종민, 「서울 종로 피맛길, 어떻게 보존되나」, 『뉴시스』, 2008-09-25.
- 남호철, 「청진동 추억의 ‘피맛길’ 에 23~24층 빌딩 4채 세운다」, 『국민일보』, 2008-09-25.
- 문성규, 「종로 ‘피맛길’에 23~24층 빌딩 4채 들어선다」, 『연합뉴스』, 2008-09-25.
- 박성호, 「청진동 ‘피맛길’일대 빌딩숲으로 재탄생」, 『이데일리』, 2008-09-25.
- 박지웅, 「청진동 업무·상업타운 개발 ‘급물살」」, 『헤럴드경제』, 2008-09-25.
- 서울시청 보도자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새롭게 조성되는 ‘피맛길」」, 『연합뉴스』, 2008-09-25.
- 신선종, 「종로 피맛길 ‘오피스 빌딩촌’ 된다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23~24층 건물 4채 건립 가결… 옛길은 보전」, 『문화일보』, 2008-09-25.
- 신준봉·김태성, 「청진동 해장국집 골목 빌딩가로 변신」, 『중앙일보』, 2008-09-25.
- 원정호, 「‘해장국 거리’ 청진동, 고층 빌딩촌으로」, 『머니투데이』, 2008-09-25.
- 윤흥우, 「종로 피맛골 빌딩촌‘탈바꿈」」, 『서울경제』, 2008-09-25.
- 이호기, 「종로 맛집거리 ‘피맛골’ 고층빌딩들이 들어선다」, 『한국경제』, 2008-09-25.
- 이호승, 「종로 피맛길, 빌딩촌변신」, 『매일경제』, 2008-09-25.
- 차완용, 「서울 청진동 일대 개발안 통과…빌딩촌으로 개발 - 공동위, 대립3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도 가결」, 『건설타임즈』, 2008-09-25.
- 이진명·신현규, 「종로·을지로 확 달라진다」, 『매일경제』, 2008-09-03.
- 김종민, 「서울시, 청진동·피맛골 개발안심의 보류」, 『뉴시스』, 2008-08-28.
- 김종민, 「종로 피맛길 보존, 제대로 될까?」, 『뉴시스』, 2008-08-28.
- 한준규, 「600년 피맛골-청진동 해장국 골목 24층 빌딩숲에 묻힌다 - 서울시 보존노력에도 맞잡들떠나」, 『서울신문』, 2008-07-29.
- 이현주, 「재개발에 밀려나는 추억의 피맛골·청진동 길」, 『뉴시스』, 2008-06-10.
- 홍원상, 「[현장 Close up] 광화문 구(舊)도심, 빌딩 숲으로 변신중」, 『2008-05-21』.

- 장박원, 「추억의 해장국거리 종로구 '청진동' 고층빌딩촌 된다」, 『매일경제』, 2008-05-20.
- 김인철, 「서울 청진동에 24층 빌딩..'피맛길 재연」, 『연합뉴스』, 2008-03-27.
- 장박원, 「서울 청진동 골목길 빌딩숲된다」, 『매일경제』, 2008-03-03.
- 「종로청진동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분양 - 청계천 인근 상권 발달」, 『문화일보』, 2006-06-21.
- 김윤현, 「[광화문 르네상스] 뉴비즈니스·주거타운으로 발돋움」, 『주간한국』, 2005-06-16.
- 박종진, 「[광화문 르네상스] 문화와 전통이 숨쉬는 인간중심의 도심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의 심장부」, 『주간한국』, 2005-06-16.
- 조신, 「[광화문 르네상스] 광화문일대는 지금 리모델링 중」, 『주간 한국』, 2005-06-16.
- 허연희, 「종로 르·메이에르타운 6개월이상 공사 중단」, 『헤럴드경제』, 2004-07-15.
- 남준기, 「“청진동 '피맛골' 전면 발굴조사 필요”」, 『내일신문』, 2004-06-22.
- 김태식, 「"청진동 '피맛골' 전면 발굴조사 필요"」, 『연합뉴스』, 2004-06-21.
- 노형석, 「“피맛골 전면발굴 필요” - 명지대 건축문화연구소 "조선 건물터 유물 다수"」, 『한겨레』, 2004-06-21.
- 조운찬, 「“종로 피맛골 전면 발굴해야”」, 『경향신문』, 2004-06-21.
- 허연희, 「종로 '르·메이에르' 공사 문화재 발굴로 중단위기」, 『헤럴드경제』, 2004-05-28.
- 권재현, 「[수도권]청진동서 조선시대 건물터-백자 발견」, 『동아일보』, 2004-05-21.
- 김태식, 「청진동 피맛골 조선시대 건물지 흔적 확인」, 『연합뉴스』, 2004-05-21.
- 조운찬, 「청진동 피맛골 유구확인」, 『경향신문』, 2004-05-21.
- 박영신, 「종로 청진동 재개발 20년만에 속도붙는다..'르메이에르' 인기 폭」, 『한국경제』, 2004-05-04.
- 「눈에띄는 분양상품」, 『문화일보』, 2004-04-30.
- 모규엽,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 『국민일보』, 2004-04-28.
- 황석주, 「4월 22일 부동산 파일」, 『한겨레』, 2004-04-21.

- 배우한, 「르 메이에르 종로타운 모델하우스 오픈」, 『한국일보』, 2004-04-21.
- 황석주, 「주상복합 인파」, 『한겨레』, 2004-04-21.
- 도재기, 「종로 복판에 20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경향신문』, 2004-04-18.
- 「종로 복합상가 21일 모델 오픈 - 르·메이에르건설 분양」, 『헤럴드경제』, 2004-04-13.
- 「[분양이슈] 종로1가 청진동에 부는 투자과열 조짐우려」, 『경향신문』, 2004-06-04.
- 「종로1가 청진동에 부는 투자 열기 "종로타운" 분양 시작」, 『동아일보』, 2004-04-02.
- 「[분양 클로즈 업]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 '피맛골' 재개발... 주거·여가 원스톱 가능」, 『서울경제』, 2004-03-31.
- 신선중, 「종로 '피맛골' 에 20층 빌딩 - 2006년 12월 완공...상가-아파트 등 입주」, 『문화일보』, 2004-03-31.
- 허문명, 「[로비에서]피맛골철거중단 소동의 '뒷맛」, 『동아일보』, 2004-01-26.
- 허문명, 「종로 '피맛골' 재개발 계속한다...문화재청 중단명령 철회」, 『동아일보』, 2004-01-26.
- 주경복, 「종로 피맛골 철거공사중 기와-장대석조선유물 출토」, 『동아일보』, 2004-01-24.
- 조재영, 「종로 '피맛골' 철거공사 중단 명령 - 조선시대 유물 발견」, 『한국일보』, 2004-01-21.
- 김동국, 「[메트로현장] 변화바람 맞는 '해장국동네' 청진동 - '피맛골'은 한장의 추억으로 남나」, 『한국일보』, 2003-10-16.
- 정양환, 「[메트로 쟁점]종로 피맛골에 20층건물 신설」, 『동아일보』, 2003-09-17.
- 신선중, 「피맛골등 청진동 일대 건물원형유지 재개발」, 『문화일보』, 2003-09-01.
- 조재영,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연합뉴스』, 2003-09-01.
- 「청진동에 20층 복합상가 신축」, 『파이낸셜뉴스』, 2003-08-31.
- 「청진동에 20층 복합건물」, 『매일경제』, 2003-08-27.
- 오관철, 「종로 '피맛골' 다시 태어난다」, 『경향신문』, 2003-08-27.
- 김진수, 「청진동 먹자골목에 오피스텔 .. 올연말분양」, 『한국경제』, 2003-08-25.

- 심인성, 「서울 청진동에 20층짜리 대형 복합건물 건립」, 『연합뉴스』, 2003-08-25.
- 차지완, 「청진동에 대형 주상복합 선다...20층규모'종로타운' 신축」, 『동아일보』, 2003-06-24.
- 이주현, 「청진동 재개발 유보」, 『한겨레』, 2000-03-24.

(13) 보전/비판과 반성의 관점

- 김기태, 「오세훈 시장, 세계적 건축가로저스 경과 면담」, 『한겨레』, 2008-10-31.
- 정종택, 「[정종택의 지금은말할 수 있다] <31>아! 피맛골」, 『한국일보』, 2008-10-28.
- 김흥진, 「[만물상] 뒷골목 재개발」, 『조선일보』, 2008-10-17.
- 이재현, 「[수도권]피맛골 '신승관' 옮겨갔지만...」, 『동아일보』, 2008-10-15.
- 전상인, 「[동아광장]도시는기억으로 살아간다」, 『동아일보』, 2008-10-08.
- 윤후명, 「[시론] 사라지는 피맛골을 애도함」, 『조선일보』, 2008-09-11.
- 박재범, 「[길섶에서] 골목길」, 『서울신문』, 2008-09-05.
- 이중천, 「뒷골목의 미학... 피맛골, 후통(胡同), 야나카(谷中)」, 『하이서울뉴스』, 2008-08-11.
- 김기태, 「'피맛골' 보존 이번엔 제대로?」, 『한겨레』, 2008-07-11.
- 성시윤, 「종로 피맛골 '맛 골목' 사라진다」, 『중앙일보』, 2008-03-05.
- 윤재석, 「[한마당] 피맛길」, 『국민일보』, 2008-03-05.
- 지영호, 「청진동, '개발의 삼질'에 묻히다 - [머니위크 기획]자본에밀린 먹거리·불거리」, 『머니투데이』, 2008-02-29.
- 유선희, 「“북촌 한옥마을도 사라질위기” - 안창모교수 '역사도시 서울' 포럼서 진단 ... "시 개발 정책 분별 없다"」, 『한겨레』, 2005-01-25.
- 권재현, 「사회학자 흥성태교수 서울 무분별 개발 비판」, 『동아일보』, 2004-07-12.
- 윤진, 「“이명박시장 재개발사업 고삐풀린 개발주의” - 강홍빈 전 부시장 쓴소리」, 『한겨레』, 2004-06-07.
- 김동식, 「[김동식의 문화읽기] 추억으로 남을 뒷골목」, 『주간한국』, 2004-04-08.
- 조경진, 「[문화칼럼]사라지는 골목, 사라지는 文化」, 『동아일보』, 2004-03-26.

- 이광표, 「[메트로 스케치]올해 서울에서 사라진 것들」, 『동아일보』, 2003-12-26.
- 김진애, 「[문화칼럼]개발과보전 ‘두 토끼’ 잡기」, 『동아일보』, 2003-10-17.
- 김회평, 「〈오후여담〉 피맛골의 비명」, 『문화일보』, 2003-08-16.
- 신재연, 「"피맛골을 살려주세요" - '예술인 사랑방' 종로대로 뒷골목술집 등 철거위기」, 『한국일보』, 2003-08-03.
- 강기희, 「슬픈 영혼들이 떠도는거리」, 『오마이뉴스』, 2003-03-30.

(14) 관련 인물 인터뷰_사연

- 김진명·박세미, 「4대문 안 골목들 사라지다」, 『조선일보』, 2008-10-17.
- 김화성, 2008-9월호, 문 달은 ‘酒黨’의 해방구 ‘시인통신’ 哀詞 - 죽은 시인의 골목 ‘피맛골’ 아, ‘시통’의 시대여!, in: 신동아.
- 손동우, 「[세상 그리고 사람]사라지는 피맛골… ‘열차집’ 주모 우제은씨」, 『경향신문』, 2008-07-24.
- 송진원, 「옛모양 사라져가는 청진동 해장국골목」, 『연합뉴스』, 2008-07-14.
- 김기태·김정호, 「서울 도심 ‘떡자골목 추억’ 이 철거된다」, 『한겨레』, 2008-07-11.
- 이현주, 「'굿바이' 청진동 한일관」, 『뉴시스』, 2008-06-05.
- 노희영, 「재개발 진행 종로 '피맛골' 일대 표정」, 『서울경제』, 2008-05-20.
- 김송이, 「600년 역사의 거리 피맛골사라지나」, 『2008-03-09』.
- 이충형·정선언 외, 「종로 한일관 70년 만에 문 닫는다」, 『중앙일보』, 2008-01-18.
- 유혜성, 「[유혜성의 감성25시] 시인통신 한귀납」, 『주간한국』, 2006-01-19.
- 황인찬, 「[술맛 나는 집]인사동 ‘시인통신」, 『경향신문』, 2004-07-01.
- 유선영, 2003-10-08, [독자세상] 사라지는 피맛골 너무 아쉽다, in: Weekly 경향.
- 최성진, 2003-09-06, 피맛골 그리워 어쩌나, in: Weekly 경향.
- 왕태석, 「'골목안 풍경' 사진작가 김기찬씨 - 살갑던 그 골목...사람은 간데 없고」, 『한국일보』, 2003-07-22.

(15) 맛집/관광 관련 기사

- 노정연, 2008-9월호, [동네 이야기]추억으로 사라지는 서민들의 놀이터 ‘피맛골’, in: 레 이디경향.
- 박재은, 「[박재은의 名品 먹거리] 매콤매콤… 졸깃졸깃… "추억 한접시추가요"」, 『한국 일보』, 2008-06-14.
- 김경두, 「피맛골, 추억 속으로 - 무교동낙지골목·다동 먹자골목 철거 예정」, 『서울신문』,
- 김경운, 「[이색거리 탐방] (5) 종로구피맛길과 순랏길 - 서민 정취 물씬 ‘손 맛의 천 국’ 」, 『서울신문』, 2007-02-27.
- 김영남, 「[트래블]서울 골목길엔 추억이 있다」, 『경향신문』, 2005-10-25.
- 유지영, 「[서울 돋보기]〈9〉 피맛골- 종로1번지 '밥집' 좁은골목 직장인·대학생들 북적북 적」, 『헤럴드경제』, 2005-03-21.
- 황인찬, 「[술맛 나는 집]인사동 ‘시인통신’ 」, 『경향신문』, 2004-07-01.
- 김중혁, 「피맛골 유명맛집 5선…서민의 가격 임금의 밥상」, 『스포츠 한국』, 2004-03-17.
- 이경택, 「〈서울의 골목 & 거리〉 보글보글~ 情끓는 ‘먹자 골목’ 」, 『문화일보』, 2003-10-09.
- 유성식·김진각 외, 「[포커스] 사라져가는 것들 그 낭만에 대하여…」, 『한국일보』, 2001-11-05.
- 이강윤, 「서울의 얼굴 종로 ‘피맛골’ …情넘치는 ‘서민의 거리’ 」, 『국민일보』, 2001-11-05.
- 이성원, 「종로의 먹자골목 '피맛골'아세요? - 낙지.해장국.곱창.막걸리등 서민음식 푸짐」, 『한국일보』, 2001-11-01.
- 차지완, 「[여행]종로 피맛골서민의 서민에 의한 '추억의 거리」, 『동아일보』, 2001-08-21.
- 차지완, 「[음식]600년 추억의거리 종로 '피맛골'을 아십니까」, 『동아일보』, 2001-08-21.
- 「[음식]우리 동네 맛집-교보빌딩 주변의 맛집들 」, 『동아일보』, 2001-03-27.

이지누, 「피맛골의 빈대떡」, 『월간 사회평론 길』, 1994-9월호.

(16) 책 소개 기사

윤완준, 「[인문사회]피맛골… 땅거지… 600년 서울 파노라마」, 『동아일보』, 2008-05-10.

최재봉, 「문학작품·문인 일화로 비빈 맛집」, 『한겨레』, 2005-12-30.

장재선, 「사람 냄새를 찾아 ‘세 갈래’ 향해 - 원로·중진·소장작가 6인 여행기 출간」, 『문화일보』, 2005-12-29.

권귀순, 「서울 뒷골목엔 낭만이 옹기종기」, 『한겨레』, 2005-10-28.

이종원, 「서울, 알고보면 ‘따뜻한 동네」」, 『경향신문』, 2005-10-23.

구본준, 「걱정과 상념의 물결…운명갈린 근대」, 『한겨레』, 2004-01-30.

최영창, 「파란눈에 비친 ‘꼬리의 참모습’ - 한국의 일상 이야기/ 에릭 비데 지음 / 눈빛」, 『문화일보』, 2003-11-20.

오미환, 「조선의 뒷골목 풍경」, 『한국일보』, 2003-08-15.

정충신, 「〈책읽기세상보기〉 청계천은 살아있다」, 『문화일보』, 2002-12-20.

김현덕, 「[클릭! 책세상] 구로다후쿠미씨」, 『국민일보』, 2002-05-30.

김영화, 「서울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 - 국적불명 스카이라인 파괴된전통 도시경관」, 『한국일보』, 2002-03-14.

(17) 뉴스 및 동영상

최희진, 「도시 개발의 그늘...추억속 '골목길' 사라진다」, 『SBS 8뉴스』, SBS,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84796,
2008-10-12.

이현용, 「서울 종로 피맛골, 추억 속으로」, 『YTN 뉴스』, 연합뉴스,
http://www.ytn.co.kr/_ln/0103_200807260403134082, 2008-07-16.

이병희, 「서울시, 종로 '피맛길' 주변에 '특화거리' 조성」, 『SBS 8뉴스』, SBS,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76324,
2008-09-25.

- 심승보, 「2580 Minutes 사라지는 피맛골」, 『시사매거진 2580』, MBC,
http://imnews.imbc.com/boomup/all_full/2234592_5243.html, 2008-11-04.
- 스팟 TV, 「사라지는 피맛골」, 스팟 TV,
<http://www.pandora.tv/my.spottv/12826237>, 2008-03-18.
- 성시윤, 「사라지는 피맛골, 맛집을 찾아서2」, 『TV Week&』, Joins TV,
http://tvout.joins.com/Index_Search.asp?listType=S&searchWord=피맛골&stype=1, 2008-07-25.
- 성시윤, 「사라지는 피맛골, 맛집을 찾아서1」, 『TV Week&』, Joins TV,
http://tvout.joins.com/Index_Search.asp?listType=S&searchWord=피맛골&stype=1, 2008-07-25.
- 김송이, 「600년 역사의 거리 피맛골 사라지나」, 노컷 TV,
<http://www.pandora.tv/my.nocutv/12597633>, 2008-03-07.
- 「[마켓&트렌드] 종로 피맛길 '맛 골목' 속으로」, 『뉴스와 생활경제』, SBS,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04727,
 2008-04-16.
- 「종로 길 탐방」, 『내고장 문화유산』, 서울시 인터넷방송,
http://tv.seoul.go.kr/2008_createive/c_vod.asp?MuCode=020705&cat1=11&cat2=78&cat3=0&idx=2727, 2007-09-28.
- 「서울의 골목 2 [서민들의 땀이 살아있는 골목]」, 『디자인@서울』, 서울특별시 인터넷방송,
http://tv.seoul.go.kr/2008_createive/c_vod.asp?MuCode=020201&cat1=10&cat2=70&cat3=0&idx=955, 2005-09-23.
- 「종로 '피맛골' 철거공사 중단 명령」, 『YTN 뉴스』, YTN,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ion_id2=&office_id=052&article_id=0000024726, 2004-01-21.

(18) 블로그 및 홈페이지

- 반달곰, 「대림(종로/청진동)...피맛길의 생선구이집...」, in 종로구 맛집,
<http://blog.naver.com/28ssan/30038168595>, 2008-11-18.

- 반달곰, 「열차집(종로구/청진동)...빈대떡에 한잔...」, in 종로구 맛집,
<http://blog.naver.com/28ssan/30035857498>, 2008-09-19.
- 황진국, 「청진동 재개발, 그 식당들은 모두 어디로...」, in 진국의 서울 산책,
<http://blog.naver.com/hwangjinkook/90033461625>, 2008-07-25.
- 황진국, 「피맛길」, in 황진국의 서울사용법,
<http://blog.naver.com/hwangjinkook/90032723984>, 2008-07-01.
- 황진국, 「피맛길, 그곳에선 모두가 배고픈 손님」, in 진국의 서울산책,
<http://blog.naver.com/hwangjinkook/90032281431>, 2008-06-17.
- 반달곰, 「서린낙지(청진동/피맛길)...예전의 맛은 아닌거 같고...」, in 다녀온 음식점,
<http://blog.naver.com/28ssan/30030480152>, 2008-04-26.
- 반달곰, 「청진옥(청진동/피맛길)...수육과 선지해장국에 한잔...」, in 종로구 맛집,
<http://blog.naver.com/28ssan/30030472599>, 2008-04-25.
- 반달곰, 「참새집(청진동/피맛길)...꼬치구이에 마무리 하기 좋은 집...」, in 종로구 맛집,
<http://blog.naver.com/28ssan/30029849996>, 2008-04-08.
- 반달곰, 「신승관(청진동/피맛길)...짜장면으로 명성을 쌓은 집...」, in 다녀온 음식점,
<http://blog.naver.com/28ssan/30029825416>, 2008-04-07.
- 자유인, 「종로1가 서린낙지」, in Brand New - 맛집 멋집,
<http://blog.naver.com/najayuin/150027892643>, 2008-02-13.
- 푸디, 「침 오랜만의 신승관」, in 악식가의 미식일기,
<http://blog.naver.com/foodi2/30026951985>, 2008-01-25.
- 종로구청 문화체육과, 「추천 - 피맛골 관광코스」, in 종로 역사문화관광홈페이지,
<http://tour.jongno.go.kr/wcms4/page?pageId=270017513>, 2007-08-29.
- 종로구청 문화체육과, 「종로의 명소, 피맛골」, in 종로 역사문화관광홈페이지,
<http://tour.jongno.go.kr/wcms4/page?pageId=270011504>, 2007-08-29.
- 푸우우(exotica), 「종로 피맛길 한식당 - 한일관」, in 내맘대로 음식점 평가,
<http://blog.naver.com/exotica/10007553966>, 2006-08-20.
- 이진백·김대식 외, 「찌뽕이한 골목 풍경, 피맛골 ① 찾아가기」, in Corky's BBQ,
<http://blog.naver.com/lee21cc?Redirect=Log&logNo=50004014705>,
2006-04-25.

불꽃, 「추억의 피맛길을 살리자」, in 좋은생각,

<http://msflame.egloos.com/828968>, 2006-01-28.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 형태와 경관 홈페이지」, in, <http://seoul.cric.or.kr/>,

1999-2000.

(19) 정책자료

- 정책자료 조사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 및 서울시청에서 발간하는 시보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종로’, ‘재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2001년 이후 관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 2000년 이전 관보에 대해서는 국가 기록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서울시보는 서울특별시 사이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하였다.
- 청진구역이 관보 등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9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와 관련한 결정 사항들(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공사완료 공고, 구역변경결정 등)이 관보와 시보를 통해 알려졌다.
- 관보와 시보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정보들 외에, 청진구역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는 서울시의 2001 서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2004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다.
- 이 밖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청진구역의 재개발과 보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자료의 양에 비해 실질적인 내용은 승인, 보류 등으로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조사의 자료 수집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관보와 시보 자료의 수집 현황 및 발행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자료는 시대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원문은 부록 6으로 첨부하였다.

분류	조사 내용	조사 현황
관보	계재기관, 고시명, 관보명, 발행일자 + 원문	17 건
시보		4 건
합계		21 건

(20) 관보 발행 목록

	발행일자	게재의뢰 기관	고시명	관보명
1	1979.11.26.	건교부	서울도시계획청진외2개재개발구역결정 (건설부고시제428호)	관보제8406호
2	1981.12.24.	서울시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442호)	관보제9023호
3	1983.12.17.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668호)	관보제9620호
4	1984.05.01.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240호)	관보제9732호
5	1986.12.27.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928호)	관보제10523호
6	1987.01.16.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중정정 [서울특별시고시제928호]	관보제10537호
7	1987.12.14.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878호)	관보제10810호
8	1988.05.13.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335호)	관보제10930호
9	1988.06.17.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519호]	관보제10958호
10	1988.10.19.		청진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서울특별시공고제720호)	관보제11059호
11	1988.12.06.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938호]	관보제11100호
12	1990.01.08.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564호)	관보제11421호
13	1990.07.02.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210호)	관보제11564호
14	1990.07.05.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218호)	관보제11567호
15	1990.12.19.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406호)	관보제11703호
16	1991.06.21.		청진구역제5-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180호)	관보제11849호
17	1997.11.03.		도심재개발청진구역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1997-339호)	관보제13748호
18	2007.07.12.		청진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 73 (서울특별시고시제2007-235호)	시보제2781호
19	2008.10.16.		청진구역제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 36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65호)	시보제2867호
20	2008.10.16.		청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 38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66호)	시보제2867호
21	2008.11.13.		청진구역및청진구역제12~16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 지형도면 235 (서울특별시고시제2008-409호)	시보제2873호

(21) 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번별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행정동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비고
청진동	119-1	○	8부	
	120-3	○	외 2필지	
	121	○	외 1필지	
	122	○		
	123	○		
	127	○	○	
	128	○	○	
	129	○	외 1필지	
	130	○		
	146	○		르메이에르
	150	○	○	
	151	○	○	
	152	○	○	
	153	○	○	
	294-1	○	○	
	295	○	○	
	277-4	○		
	299	○	○	
	300-2	○		
	300-1	○	○	
	301	○		
	302-2	○	외 1필지	
	302-3	○		
	302-6	○		
종로1가동	17	○	○	

행정동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비고
	18	○	○	
	18-1	○		
	19-1	○	외 1필지	
	19-2	○		
	20	○	2부	
	21	○	외 1필지	
	22-2	○	외 1필지	
	24	○	외 1필지 (청진동 146)	르메이에르
	31	○	외 1필지	
	32	○	○	
	33-1	○	○	
	36	○	○	
	39-1	○	외1 필지	
	39-2	○	○	
	40	○	○	
	41	○		
	42	○	○	
	43	○	외 1필지	
	44	○	○	
	45	○	외 3필지	
	46-2	○		
	47	○	외 1필지	
	계	47	34	81건

3. 현장탐문조사

1) 조사범위

- 현장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종로구 청진동 피맛길 중 청진 도시환경정비구역 제 3지구부터 제 16지구에 이르는 구간이며, 총 41개의 건물, 158개의 점포가 포함되었다.
- 현장조사는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한 달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로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대에 현장을 방문하였다. 심층면접의 경우 한 건당 평균 면접 시간이 약 3-40분 이상 소요되었다. 현장조사에 할애된 전체 일정과 낮은 응답률, 가게를 운영하는 인터뷰이의 입장, 학생 신분인 조사자의 현실적인 스케줄 등이 작용하여 총 5일 동안 하루 평균 3건의 인터뷰가 책정되었다.
- 현장조사의 내용에는 피맛길에 위치한 점포들의 점주들과 해당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현장 인터뷰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한 현장 스케치가 포함된다.

2) 예비 조사

- 현장에서의 자료수집과 인터뷰를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기에 앞서 현장기초조사 및 문헌조사가 선행되었다.
- 약 이틀에 걸친 기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자료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실질적인 현장 인터뷰를 위해 현장 분위기를 익혔다. 이 과정에서 청진구역 제3지구에 위치한 건물들의 층수 및 지번, 상호 등이 조사되었으며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자 목록이 작성되었다. 기초 조사의 결과물은 다음 장에 실려 있다.
- 한편 현장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층 인터뷰를 준비하기에 앞서 Robert S. Weiss의 “Learning from Strangers” 와 같이 사회학 및 민속학 분야에서 정성적 연구 방법론을 다룬 여러 저서들을 분석하였고, 국내 아카이브 구축의 선례로서 2008년 7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아현동 지역에 대한 도시민속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 이를 통해 인터뷰 대상의 선정 방법, 인터뷰 질문 작성 요령, 인터뷰의 평균 소요 시간, 과 같이 인터뷰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학습하였다. 또한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자가 인터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목표와 어떤 심리적 위치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숙지할 수 있었다.

3) 조사 방법

(1) 인터뷰 대상 설정

- 파일럿 조사와 일부 문헌 검색을 통해 파악된 대강의 인물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 오래된 식당이 밀집한 제 3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인터뷰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 현장 조사에서는 식당 이외의 다양한 업종, 이를테면 슈퍼마켓, 당구장, 숙박업소, 안경점, 주차장 관리인, 부동산, 카페 등의 가게의 점주들을 우선 섭외 대상자 목록에 포함시켜 가급적이면 그동안 언론에 비교적 노출되지 않은 인물들의 진술을 골고루 확보하고자 하였다.
- 인터뷰 기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 1가 변의 건물 중 입구가 피맛길에 면하지 않는 점포들은 우선 섭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지점의 비중이 높고(19/47건, 약 40.4%) 도심 상업가로로서의 종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맛길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피맛길과 관련한 인터뷰이의 개인사와 피맛길 재개발에 대한 인터뷰이의 의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상인들의 기억과 일상이 피맛길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주로 피맛길에 정착하게 된 배경, 피맛길에 얽힌 추억과 가게의 운영 방식과 같은 질문들이 정리되었다.
- 한편 재개발에 대한 입장, 재개발 이후의 이주 계획과 관련한 인터뷰 질문들은 재개발로 대표되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방식이 어떻게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3) 인터뷰 접근 방법

- 인터뷰는 대개 현장 방문 후 즉석적인 제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점주의 일시적 부재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간대를 잡아 차후에 다시 방문하였다.
- 인터뷰에 앞서 조사자는 조사자의 신원과 소속, 인터뷰의 목적을 밝혔으며 동영상 촬영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게 내부의 촬영 등이 추가로

진행된다는 점을 모든 인터뷰이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일부 표출되었다.

- 많은 인터뷰이들이 인터뷰 자체보다 동영상 등의 기록 방식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의 목록은 몇 번의 수정을 거쳤으며, 설문 형식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이가 인터뷰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직접 작성하거나 구두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 심층면접에서는 조사자가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키는지 조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민속학 연구 등에서 주로 쓰이는 상주조사 등의 방법에 비해 이번 조사는 기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외부 관찰자의 시선을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조사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인터뷰 내용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한 한 쉬운 어휘를 사용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며, 인터뷰이의 발언에 적절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인터뷰이와 가깝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한 일부 상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조사자가 인터뷰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다.
-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로 많은 인터뷰를 경험했다는 점도 조사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었다. 또한 기존의 인터뷰들이 특정 대상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섭외 대상자는 자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

(4) 조사 현황

- 대상지 내 총 159개의 점포 중 30곳에 인터뷰를 시도하여 총 13건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 34건에 대해서는 인터뷰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중 재개발 때문에 폐업하거나 이전한 곳(점포 또는 건물)이 25건이었고, 특히 사업 추진이 빠른 제 16지구에서는 11개 건물이 이미 철거에 들어가 있었다. 또한 낮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업종이거나, 점포 문이 닫혀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9건 있었다.
- 제 6지구의 재개발로 신축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건물 내의 점포들은 대부분이 신규 입점한 업체들로, 업종과 시설, 분위기 등이 피맛길 내의 기존 점포들과 확연히 다르다. 그나마 미진, 청진옥 등 원래 피맛길 변에 있다가 다른 구역의 재개발 때문에 르-메이에르로 옮겨온 음식점들의 경우 이전 전후의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번 접근을 시도했으나, 이들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데다 이전과 함께 분점 등을 확장한 경우가 많아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

분류		점포 수	비고
대상지 내 총 점포수		158	간판 등으로 상호 확인 가능한 점포 수 + 철거 작업 중인 곳은 건물수로 합산
시도	성공	11	+ 노점 형태의 구두수선 + 종로구청 담당자 총 13건의 인터뷰
	주인 부재로 거절	8	
	주인이 거절	11	
소계		30	
시도 불가	폐업/이전	25	
	부재	9	
소계		34	
보류	A: 출입구가 피맛길에 면하지 않음	47	예비조사 결과 보류 결정
	B: 르-메이에르	9	
	C: 16-7	47	
	소계	94	

- 제 16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입점 업체 수가 많은 7번 건물에는 이전계획 없다는 공고문과 철거될 예정이라는 공고문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보상 절차에서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부 사진 참조) 기초조사 단계에서 간판 및 건물 내 안내판을 참고하여 업종과 상호명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실제 인터뷰를 시도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지하~2층의 음식 업종은 야간 영업, 폐점, 프랜차이즈 등의 이유로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층 이상의 점포 대부분이 정보 및 서비스 업종(여행사, 유학원, 결혼정보회사, 직업소개소 등)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 중 몇 곳을 시도해 본 결과, 1) 자신들은 피맛길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2) 인터뷰 의도와 내용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3)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유사 업종의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 더 이상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제 16지구 7번 건물의 안내문

◦ 전체 업소에 대한 인터뷰 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진구역 현장조사 인터뷰 시도 현황

건물	상호-업종	시도			시도 불가		보류		
		성공	주인 부재	거절	폐업이 전	부재	A	B	C
제 3지구									
1	버거킹(음식업)						○	○	
	열차집(음식업)		○						
	우정집(음식업)			○					
2	대림(음식업)	○							
	참새집(음식업)		○						
	부동산					○			
	청학출판사(출판사)	○							
	한양상사(인쇄업)					○			
3	중은문학사(출판)					○			
	함흥집(음식업)	○							
4	서린낙지(음식업)	○							
	Arabica(음식업)		○						
	풍문사(인쇄업)						○		
	운정(음식업)						○		
5	메르덴 치과						○		
	일 서예원						○		
6	일 서예원				○				
	Crema Espresso(음식업)	○							
	한평 분식(음식업)				○				
	김밥천국(음식업)						○	○	
	뚜쥬커피호프(음식업)	○							
7	고려부동산	○							
	화성기원			○					
	화성당구장				○				
	현 피아노			○					
	사주와작명			○					
7	갈릴리투어			○					
	삼성집(음식업)	○							
	시대패션						○		
	다소미(음식업)						○		

건물	상호-업종	시도			시도 불가		보류		
		성공	주인 부재	거절	폐업이 전	부재	A	B	C
	스피드부동산						○		
	삼원보청기						○		
	번역공증						○		
8	라꾸라꾸(음식업)						○	○	
	T world						○	○	
	TEXAS(음식업)						○	○	
	오서방(음식업)						○		
	PC방						○		
	무비존 비디오 DVD영화관						○		
	영재여행사						○		
	9	로티보이(음식업)						○	○
	10	코닥(현상소)						○	○
헌혈의집							○	○	
밝은미소치과							○		
아기이름작명							○		
신토부동산							○		
11	남원집(음식점)			○					
	한성광업기술조사소					○			

제 6지구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	SHOW								○
	숲(카페)								○
	Andrew's Tie(남성 잡화)								○
	Bonespe Bread(베이커리)								○
	7 Eleven(편의점)								○
	T-World								○
	LG PixDix(가전 매장)								○
	종로일번가부동산								○
	미진(음식업)		○						
함흥냉면(음식업)								○	

제 8지구

1	태양안마시술소					○			
2	청궁가요주점					○			
	청진모텔			○					
3	한정식복림		○						

건물	상호-업종	시도			시도 불가		보류		
		성공	주인 부재	거절	폐업이 전	부재	A	B	C
4	서울당구장	○							
5	쌍쌍호프		○						
	쌍쌍노래방					○			
6	일식주점 춘산				○				
7	농협						○	○	
	농민신문사						○	○	
8	올리브영(잡화)						○	○	
	명인만두(음식업)						○	○	
	새뜰보리밥(음식업)						○		
9	맥도날드(음식업)						○	○	
10	오기텔레콤						○		

제 16지구

1	통일마트	○							
	제중약국				○				
	툼스빌(음식업)				○				
	비디오방						○		
	보신사(전당포)				○				
2	한진투자금						○		
	마쭈(음식업)				○				
	분죽(음식업)				○				
	박환실비뇨기과피부과				○				
3	최인평의안				○				
	신한은행 ATM						○	○	
	던킨도넛(음식업)						○	○	
	다미락(음식업)				○				
	아이러브피씨방						○		
	해피하우스(고시원)						○		
	동서코포레이션(사무실)						○		
4	영안(사무실)						○		
	워너빌고시원				○				
	비스트로(음식업)						○		
	신발가게				○				
	두르가(음식업)						○		
	아르고피씨방						○		

건물	상호-업종	시도			시도 불가		보류		
		성공	주인 부재	거절	폐업이 전	부재	A	B	C
5	종로떡방		○						
6	진미홍어(음식업)			○					
	엘레강스스포츠(의류)						○		
7	굽자나호프집					○			
	뚜레주르(음식업)						○	○	
	할리스커피						○	○	
	프레스코(음식업)						○	○	
	세진유학원		○						
	생각나는사람들(여행사)			○					
	온누리직업소개소			○					
	종각기원	○							
	우프코리아(여행사)								○
	흥지여행사								○
	서울아카데미교육원								○
	석원여행								○
	원웨이딩결혼정보								○
	에이플러스여행사								○
	보람컨설팅								○
	굿모닝월드여행사								○
	신도여행								○
	차이나로(유학원)								○
	배재항공여행사								○
	직장인신용대출								○
	필 코리아								○
	서울나래유학원								○
	유학코리아								○
	보청기								○
	젠 유학								○
	코스모트래블								○
	종로취업정보								○
레드투어								○	
주연마사지								○	
에이스결혼정보								○	
두루원(생식)								○	

건물	상호-업종	시도			시도 불가		보류		
		성공	주인 부재	거절	폐업이 전	부재	A	B	C
	웰스터디유학원								○
	세진유학원								○
	세부스터디								○
	스킨캡틴쿡여행사								○
	에듀월드								○
	글씨검정교육원								○
	성호탑항공								○
	연수전문								○
	일본유학원								○
	퍼펙라인								○
	카르마에듀유학센터								○
	아카데미유학원								○
	리눅스투어								○
	이지고잉크리에이션								○
	구미컴퓨터								○
8	GS25(편의점)						○	○	
	광명당콘택트			○					
	신원이엔지개발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한일관(요식업)				○				
계		11	8	11	25	9	47	(19)	47
		30			34		94		
		158							

4) 조사 결과

(1) 기초조사

- 기초조사에서는 현장에 대한 기본 정보로 대상지역 내 건물들의 층수 및 지번, 상호 등이 조사되었으며,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자 목록이 작성되었다.

(2) 건물 및 점포 현황 조사

- 청진구역 제3지구(교보문고 - 르메이에르 구간)

번호	지번	층수	상호-업종	비고
1	302-3 302-2	3	1-3 버거킹(음식업)	
2	302-5 301 300-2	3	1 열차집(음식업), 우정집(음식업), 대림(음식업), 참새집(음식업), 부동산 2 열차집(음식업), 청학출판사(출판사) 부동산, 한양상사(인쇄업) 3 좋은 문학사(출판)	
3	300-1	2	1 함흥집(음식업) 2 불명	
4	295	5	1 서린낙지(음식업), Arabica(음식업), 풍문사(인쇄업) 2 운정(음식업) 3 메르덴 치과 4 일심 서예원 5 불명	
5	22-2 22-4	2		간판건물 내부 비어있음.
6	21 21-1 21-2 21-3 21-4	5	1 Crema Espresso(음식업), 한평 분식(음식업), 김밥천국(음식업) 2 뚜쥬커피호프(음식업) 3 고려부동산, 화성 기원 4 화성 당구장 5 현 피아노, 사주와 작명, 갈릴리 투어	
7	20 20-1	2	1 삼성집(음식업), 시대패션, 다소미(음식업) 2 스피드 부동산, 삼원 보청기, 번역 공증	
8	19-1 19-2	7	1 라꾸라꾸(음식업), T world, 2 TEXAS(음식업) 3 오서방(음식업), PC방, 무비존 비디오 DVD 영화관 6 영재여행사 (4,5,7층 확인 불가)	
9	18 18-1	1	1 로티보이(음식업)	
10	17 17-1	5	1 코닥 (현상소) 2-3 현혈의 집 4 밝은 미소 치과 (병원) 5 아기이름 작명 (작명소), 신토 부동산(부동산)	
11	299	2	1 남원집(음식업) 2 한성광업기술조사소	

① 청진구역 제 6지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

□ 피맛길 보존 부분에 면한 점포들만 조사

번호	지번	층수	상호-업종	비고
1	남측 서에서 동으로		SHOW, KTF 직영매장 광화문점	
2			숲 (카페)	
3			Andrew's Tie (남성 잡화)	
4			Bonespe Bread (베이커리 카페)	
5			7 Eleven (편의점)	
6	북측 서에서 동으로		T-World, SKT 직영 광화문점	
7			LG PixDix (가전 매장)	
8			종로 일번가 부동산	
9			미진 (한식, 메밀전문)	
10			함흥냉면	

② 청진구역 제 8지구 (르메이에르-농협 구간)

번호	지번	층수	상호-업종	비고
1	153	4	1-4 태양 안마시술소	
2	152	B1 4+옥탑	B1 청궁 가요주점 1-4 청진 모텔	
3	151	1	1 한정식 복림	
4	150	1	1 서울 당구장	
5	130 129	2	1 쌍쌍호프 주점 이자카야 2 쌍쌍 노래방	
6	128	3	3 일식 주점 춘산 (폐업)	
7	36	B1 10	농협 농민 신문사	
8	33-1	2	1 올리브 영 (잡화점), 명인만두 2 새뜰 보리밥	
9	32	6	1-3 맥도날드 매장 4-6 맥도날드 사무실	
10	31	3	1 오가 텔레콤 SHOW 대리점 2-3 오가텔레콤 사무실	

③ 청진구역 제 16지구 (농협 - 제일은행 구간)

번호	지번	층수	상호-업종	비고
1	39-2 39-4	4	1층	통일마트,
			2층	툰스빌(요식업), 비디오방,
			3층	보신사(전당포), 한진투자금융,
			4층	
2	39-1	4	1층	마쭈(요식업)

번호	지번	층수		상호-업종	비고
			2층	본죽(요식업)	
			3층	박환실비뇨기과피부과	
			4층	최인평의안	
3	40 40-1	6	1층	신한은행 ATM, 던킨도넛(요식업)	
			2층	다미락(요식업)	
			3층	아이리브피씨방	
			4층	해피하우스(숙박업)	
			5층	동서코퍼레이션(사무직), 영안(사무직)	
			6층	워너빌고시원	
4	41 41-1	3	1층	비스트로(요식업), 신발가게	
			2층	두르가(요식업)	
			3층	아르고(피씨방)	
5	42	2	1층	종로떡방	
			2층	종로떡방	
6	43 43-1	1	1층	진미홍어(요식업), 엘레강스스포츠(의류업)	
7	44 44-2 45 46 46-1 46-2	10	지하	굽자나호프집	
			1층	뚜레주르(요식업), 할리스커피	
			2층	뚜레주르, 프레스코(요식업)	
			3층	세진유학원, 생각나는사람들(여행사), 온누리직업소개소, 중각기원, 우프코리아(여행사), 홍지여행사, 서울아카데미교육원	
			4층	석원여행, 원웨딩결혼정보, 에이플러스여행사, 보람컨설팅, 굿모닝월드여행, 신도여행, 차이나로(유학원, 어학원),	
			5층	배재항공여행사, 직장인신용대출, 필코리아, 서울나래유학원	
			6층	유학코리아, 보청기, 쟈유학, 차이나로, 코스모트래블	
			7층	종로취업정보, 레드투어, 주연마사지, 에이스결혼정보	
			8층	두루원(생식), 웰스터디유학원, 세진유학원, 세부스터디, 스킨캡틴룩여행사	
			9층	에듀월드, 글씨검정교육원, 성호탐항공	
10층	연수전문, 일본유학원, 일본유학지원본부, 퍼펙라인, 카르마에듀유학센터, 아카데미유학원, 리눅스투어, 이지고잉크리에이션, 구미컴퓨터				
8	47 47-1 47-2	6	1층	GS25(편의점)	
			2층	광명당콘택트	
			3층 이상	신원이엔지개발	
9	125	현재 이미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확인 불가			
10	127				
11	125				

번호	지번	층수		상호-업종	비고
12	125				
13	123				
14	123				
15	123				
16	122				
17	120-3 121				
18	119-1				
19	119-1	1	1층	한일관(요식업)	이전

(3)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자 목록

① A 구간 (제 3 구역)

- [주요 맛집] 열차집, 삼성집, 함흥집, 참새집, 남원집, 서린낙지 등
- [기타 업종] 골목 내 커피전문점, 관리사무소, 기원, 인쇄소, 부동산, 작명소

② B 구간 (제 6 구역)

- [주변 재개발 지역에서 르메이에르로 이전한 점포]
 - 청진옥, 미진, 감춘, 육쟁이 할머니집, 장원집, 제주도복집
- [부동산]
 -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분양률, 공실률, 주변 개발 수요, 개발 후 경제 전망
- [기타 새로 입점한 점포]
 - 입지의 계기, 상권 및 매출, 피맛길에 대한 인지 정도, 주변 지역에 대한 전망

③ C 구간 (제 8 구역)

- [피맛길 북측] 청진모텔 (주인과 장기 투숙객), 복림(한정식), 서울 당구장, 쌍쌍호프
- [종로 변] 명인만두 (신생 점포이면서 블록에서 유일하게 앞뒤로 입구가 남)

④ D 구간 (제 16 구역)

- [사라진 맛집] 시인통신(폐업), 신승관 (소공동으로), 한일관(강남으로) 경비아저씨
- [근린 업종] 통일마트, 제중약국, 광명당 안경

[특수 업종] 여행사, 직업소개소, 유학원, 전당포, 해피하우스 or 고시텔

⑤ 그 외 관계자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 연구자 김현경

종로구청 담당자 조영수 팀장

전 시인통신 주인 한귀남

그 외 단골 손님, 개발업자 등

5) 인터뷰 구성안

(1) 피맛길 현장조사 인터뷰 질문 초안

① 피맛골의 사람들

이름, 나이, 직업, 상호, 정착시기

출신지, 성장기는 주로 어디에서? 그때의 피맛골은?

나의 가족, 나의 인생에서 피맛골은 어떤 의미

종업원들은 어떤 분들?

주된 손님 층은?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모임 형태 등)

손님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 가장 기억에 남는 단골은?

이웃 간의 관계는?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는?

② 내가 기억하는 피맛골

피맛골에 정착했을 당시 동네 여건은?

가게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업종 선택의 계기는? 작명 이유는?

시대별로, 기억에 남는 주요 사건들

- 특히, 주변 재개발과 관련된 공간적 변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 가게를 옮기거나 내부수리를 한 적이 있는지?
- 피맛골의 전성기는 언제, 어떤 모습?
- 피맛골의 가장 큰 특성, 매력은 무엇인지
- 오랫동안 피맛골을 떠나지 않은 이유
- 피맛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③ 피맛골의 하루

- 통근은 어디서, 어떻게?
- 하루 중 피맛골에 머무는 시간은?
- 재료 등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은? 가장 바쁜 시간대는? 하루 매출은?
- 식사는 누구와 어떻게? 화장실은 어디로?
- 휴일이나, 일과 중 손님이 없는 시간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
- 길이 좁고 오래되어 좋은 점은? 불편했던 점은?
- 일상적 갈등은 없었는지 (ex. 호객이나 쓰레기 배출 문제 등)

④ 피맛골과 재개발

- 재개발로 피맛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은?
- 이주 계획은? 새로운 입지 결정의 계기는? 다른 집들은 어디로 갔는지
- 떠난다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 가장 애착이 가는 장소는, 물건은?
- 피맛골에서 꼭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 피맛골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리울지
- 가게 이전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 (ex. 가게크기/ 종업원/ 매출/ 손님들/ 분위기/ 작업 공간/ 주변과의 관계)

□ 피맛길 현장조사 설문지

피맛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도시건축보전계획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서 재개발을 앞둔 청진동 피맛골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피맛골의 모습을 불완전한 기록을 통해서나마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피맛골이 어떤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피맛골을 그리워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잠깐 시간 내주시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피맛골의 모습을 남겨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은, 도시건축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1차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좀더 체계를 갖추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도움에 감사 드리며, 연구 내용이나 추진 상황, 수집된 자료의 처리 등에 대해 의문점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연구원 | 성은영 | 031-478-9651 |
| * 서울대학교 도시건축보전계획연구실 | 석사과정 | 남궁지희 | 010-2980-0471 |
| | | 박민정 | 016-312-2854 |
| | | 엄수진 | 011-9313-8968 |

⑤ 피맛골의 사람들

이 름 :

나 이 :

성 별 :

출신 지역 :

거주 지역 :

⑥ 피맛골의 가게들

귀하의 상호와 업종은 무엇입니까?

업종 선택과 상호 작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입주 시기는 언제입니까?

입주 이후로 업종이나 가게 내부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습니까?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임대료는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예전과 비교할 때, 요즘의 경기와 매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⑦ 내가 기억하는 피맛골

처음 피맛골에 정착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피맛골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이며, 특히 어떤 점에서 어려우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피맛골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리우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기억하는 피맛골은 () 이다.

⑧ 피맛골과 재개발

- 재개발로 피맛골이 없어지는 데 대한 의견은?
- 재개발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은?
- 재개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십니까? 계속 하신다면 언제, 어디로 옮기실 예정이십니까?
- 피맛골에서 꼭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 새로 들어설 건물에 바라는 점은?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맛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손님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도시건축보전계획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서 재개발을 앞둔 청진동 피맛골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피맛골의 모습을 불완전한 기록을 통해서나마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피맛골이 어떤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피맛골을 그리워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잠깐 시간 내주시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피맛골의 모습을 남겨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은 도시건축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1차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좀더 체계를 갖추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도움에 감사드리며, 연구 내용이나 추진 상황, 수집된 자료의 처리 등에 대해 의문점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성은영 031-478-9651

* 서울대학교 도시건축보전계획연구실 석사과정 남궁지희 010-2980-0471

박민정 016-312-2854

엄수진 011-9313-8968

□ 피맛골의 사람들

1. 이 름 :
2. 나 이 :
3. 성 별 :
4. 직 업 :
5. 거주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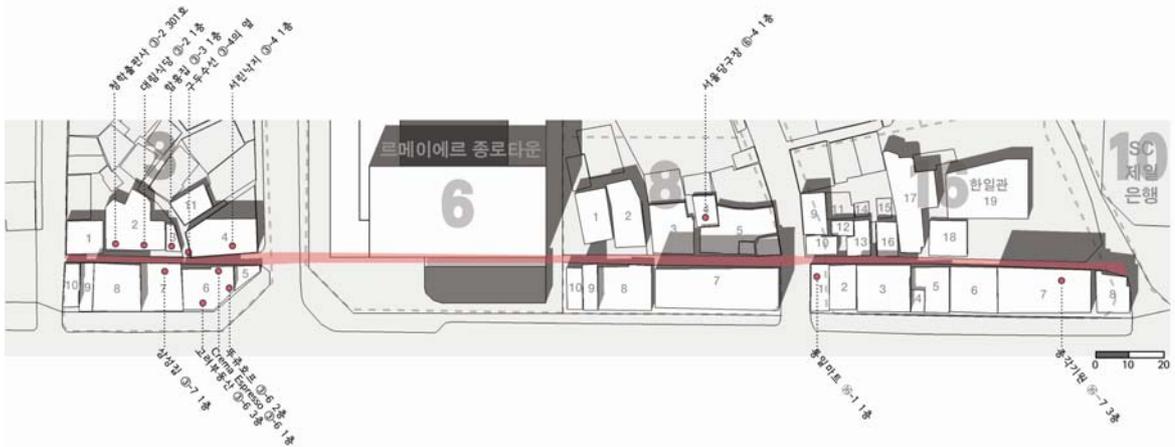
□ 피맛골과의 인연

6. 피맛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매우 잘 안다.
 - 2)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
 - 3) 적당히 아는 편이다.
 - 4) 아주 조금 안다.
 - 5) 잘 모른다.
7. 피맛골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1) 토박이라 원래 잘 알았다.
 - 2) 주변 지역을 자주 다니며 알게 되었다.
 - 3)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
 - 4)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 5) 책이나 신문, 방송, 블로그 등을 통해 접했다.
 - 7) 기타 ()
8. 피맛골을 언제부터 방문하셨습니까?
9. 피맛골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1) 주 () 회
 - 2) 월 () 회
 - 3) 연 () 회
10. 주로 어떤 목적으로 피맛골을 방문하십니까?
 - 1) 식사
 - 2) 술자리 등의 모임
 - 3) 관광
 - 4) 기타 ()
11. 피맛골을 방문하시는 이유는?
 - 1) 가까워서
 - 2) 값이 싸서
 - 3) 분위기가 좋아서
 - 4) 단골집이 있어서
 - 5) 도심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곳이라서
 - 6) 기타 ()

□ 내가 기억하는 피맛골

12. 피맛골의 첫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13. 피맛골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14. 재개발로 피맛골이 곧 없어진다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15. 피맛골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리우실 것 같으십니까?
16. 피맛골에서 꼭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7. 새로 들어설 건물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18. 내가 기억하는 피맛골은 ()이다.

(2) 인터뷰: 가게-인물별



번호	상호	이름	성별	나이	동영상	녹음	메모	Photo
1	서울 당구장	김○○	여	56	△		○	○
2	삼성집	안○○	여	67	○	○	○	○
3	Crema Espresso	김○○	남	37		○	○	○
4	통일마트	홍○○	여	52	○	○	○	○
5	청학출판사	박○○	남	53	○	○	○	○
6	부추 호프	신○○	남	57	○	○	○	○
7	종각기원	이○○	남	70	○	○	○	○
8	고려부동산	송○○	남	44		○	○	
9	종로구청	조○○	남	-			○	
10	대림식당	석○○	여	-	○		○	○
11	구두방	박○○	남	53	○		○	○
12	함흥집	김○○	남	67	○	○	○	○
13	서린낙지	박○○	남	37	○	○	○	○

- 총 11명의 점주들과 1명의 이용객, 1명의 구청 공무원이 심층 인터뷰와 기록에 응했으며 이 중 11명이 동영상 촬영을 허락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현황은 위와 같다.
- 인터뷰 업소의 배치와 유형을 보면, 제 3지구의 식당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지구에서는 제 8지구 한 업소, 제 16지구의 두 업소가 있고, 그 외 업종으로는 당구장, 커피전문점, 마트, 출판사, 호프집, 기원, 부동산, 구청, 구두수선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 2.

종로 피맛길 일대 3D 실측조사 결과

1. 실측조사 개요

1) 목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리 정보 통합 연구정보 시스템 구축
- 피맛길 기록 보존
 - 멸실 예정인 종로 피맛길 구간에 대한 3차원 측량 조사, 문헌조사,
 - 개별 업소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사라져가는 도시 공간에 대한
 - 최소한의 문화적 자산 보호
- 좋은 건축 및 좋은 도시 공간 사업 시범 아카이브 구축
- 도시 공간 계획 및 정책 이력 DB 구축

2) 주요 조사 내용

- 피맛길 골목 지상 3D 스캔
- 피맛길 건물 옥상에서 건물 상부 3D 스캔
- 피맛길 골목 지상 TMOZS 데이터 및 주변 건물 옥상에서 스캔한 데이터 전체 Align
- 3D 스캔 칼라 데이터 기반의 동영상 제작, 웹서비스

2. 3D 스캔 작업 방법

1) 3차원 광대역 스캔 장비를 이용하여 스캔하며 측정 포인트 간격

- 8mm~30mm 이내로 하며, 스캔한 원시 데이터 및 최적화 완성된 3D
- 폴리곤 데이터를 생성한다.

2) 피맛골 현황을 정확하게 3D 스캔 해야 하므로 1천만 화소 이상의 외장형

-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화질 칼라 데이터를 취득 한다.

3. 조사 프로세스

1) 3D 광대역 스캔

피맛골 지역을 정밀 스캔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장착 후, 스캔 예상지역과 스캐너 설치 지역을 설정 후 후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스캔 한다.

□ 지상 스캔

- 빠른시간내에 좁은 지역을 정밀하게 스캔 하기 위해 파노라마 형태로 스캔을 한다.

□ 옥상 스캔

- 넓은 지역을 정밀 스캔하기 위하여 오버뷰를하여 간단 스캔을한 뒤 정밀 스캔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정하며 정밀스캔을 한다.

2) 측량(스캔) 데이터의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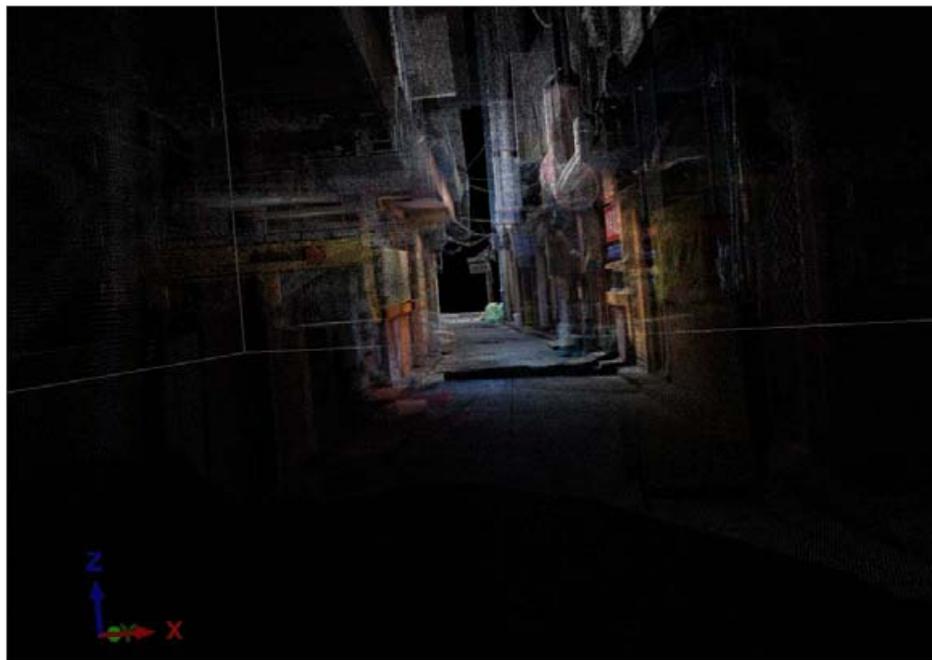
지상과 옥상에서 스캔을 하여 스캔데이터와 칼라 데이터를 취득한다



디지털 카메라를 스캐너에 장착한 모습



피맛길 골목 스캔 데이터



피맛길 골목 칼라 데이터



건물 스캔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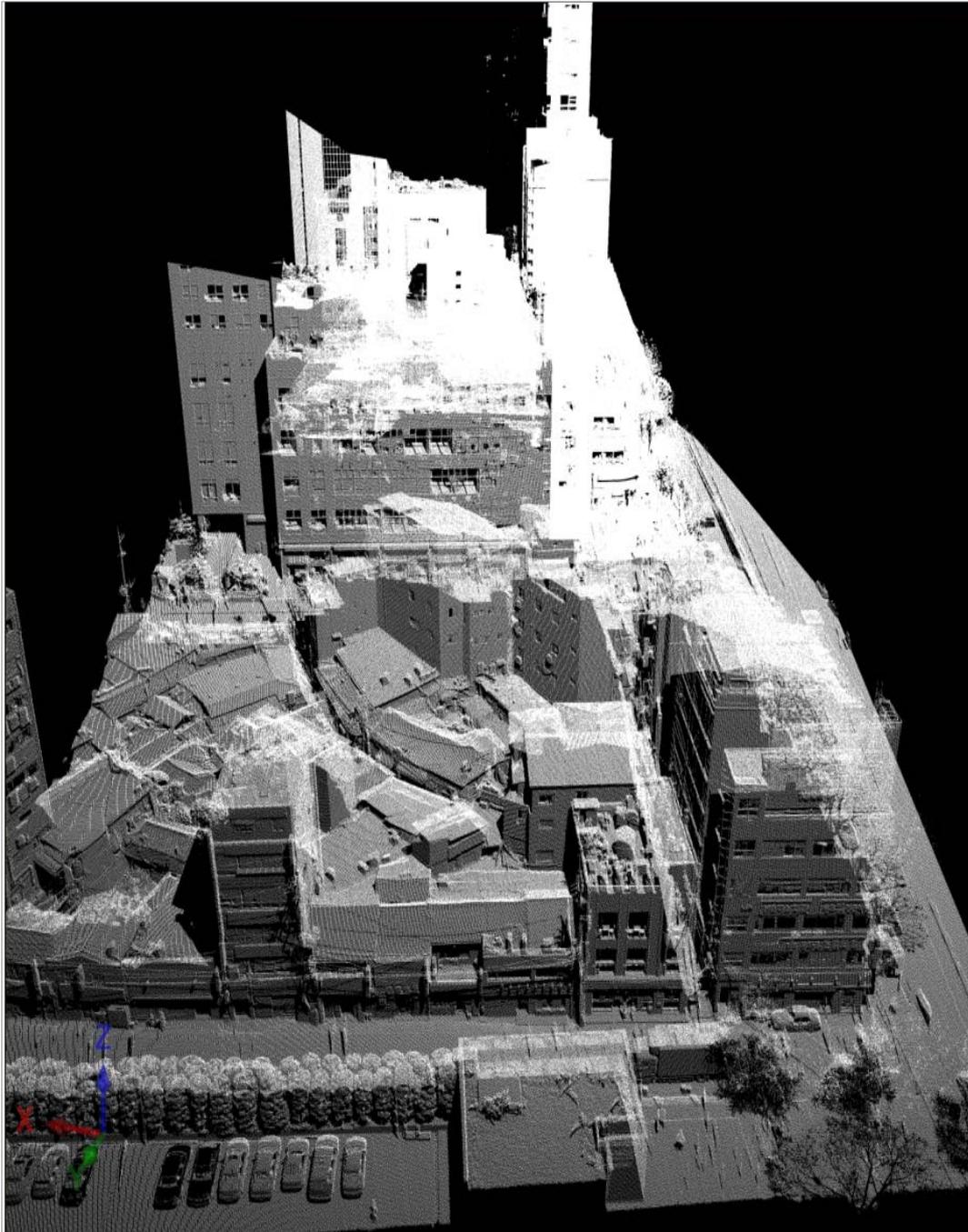
피맛길 골목 시작부분 스캔 데이터



육상 스캔 데이터

3) 스캔데이터의 정합(Registration)

지상스캔 데이터와 옥상스캔 데이터를 정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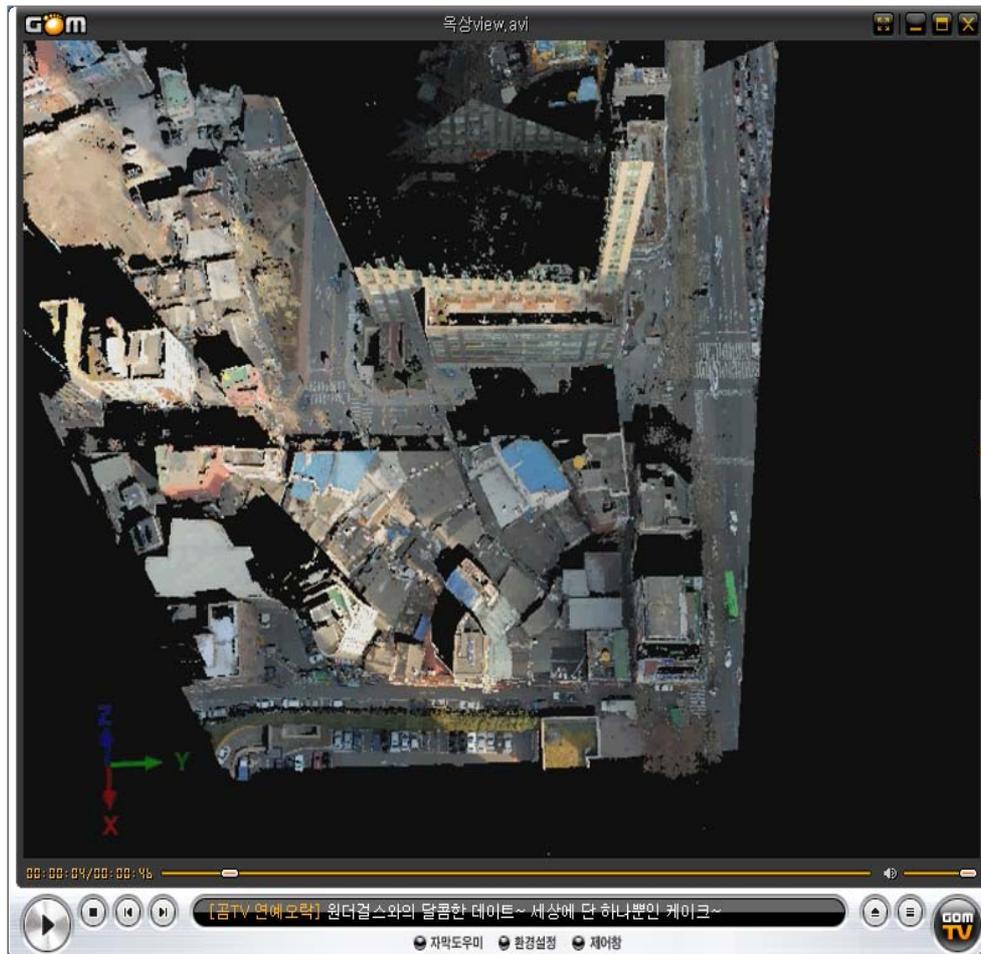




정합된 스캔 데이터

4) 동영상 데이터 제작

후처리 소프트웨어인 RiscanPro를 이용하여 Align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한다.



동영상 캡처 화면

4. 장비사양(Hardware)

1) RIEGL LMS-Z390

RIEGL의 LMS-Z390 광대역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은 높은 성능의 장거리 3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업능력을 가진 RiSCAN PRO 소프트웨어,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표현하는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로 이루어져 있다.

(1) 주요기능

High Accuracy & High Re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고고학) & 문화유산 스캔 ▶ 건축물 외관 측정 ▶ 지형학 & 채광측정 ▶ 터널 측량 ▶ 도시 모델링 & 토목 공학 ▶ 공장 자동화
------------------------------------	---

(2) 주요사양

주요사양	RIEGL LMS-Z390
정확도(Accuracy)	4 mm (single shot) 2 mm (averaged)
측정 범위(Measurement Range)	최고 300 m (반사율 80%), 최고 100 m (반사율 10%)
측정 속도(Measurement Rate)	초당 최고 11,000 pts
스캔 범위(Scanning Range)	0° 부터 80° (수직) 0° 부터 360° (수평)
광 원(Laser Type)	Laser Class 1
스캔 최소 거리(Minimum Range)	1m

2) RIEGL LMS-Z420i

RIEGL의 LMS-Z420i 광대역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은 높은 성능의 장거리 3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업능력을 가진 RiSCAN PRO 소프트웨어,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표현하는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로 이루어져 있다.

(1) 주요기능

High Accuracy & High Re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관 측정 ▶ 구조물 조사 ▶ 지형학 & 채광측정 ▶ 해안선 측량 ▶ 도시공학 & 모니터링 ▶ 도시 모델링
------------------------------------	--

(2) 주요사양

주요 사양	RIEGL LMS-Z420i
정확도(Accuracy)	10 mm (single shot) 5 mm (averaged)
측정 범위(Measurement Range)	최고 1000 m (반사율 80%), 최고 300 m (반사율 10%)
측정 속도(Measurement Rate)	초당 최고 11,000 pts
스캔 범위(Scanning Range)	0° 부터 80° (수직) 0° 부터 360° (수평)
광 원(Laser Type)	Laser Class 1
스캔 최소 거리(Minimum Range)	2m

5. 사용프로그램(Software)



1) RiSCAN PRO (광대역 스캔 데이터 처리 전용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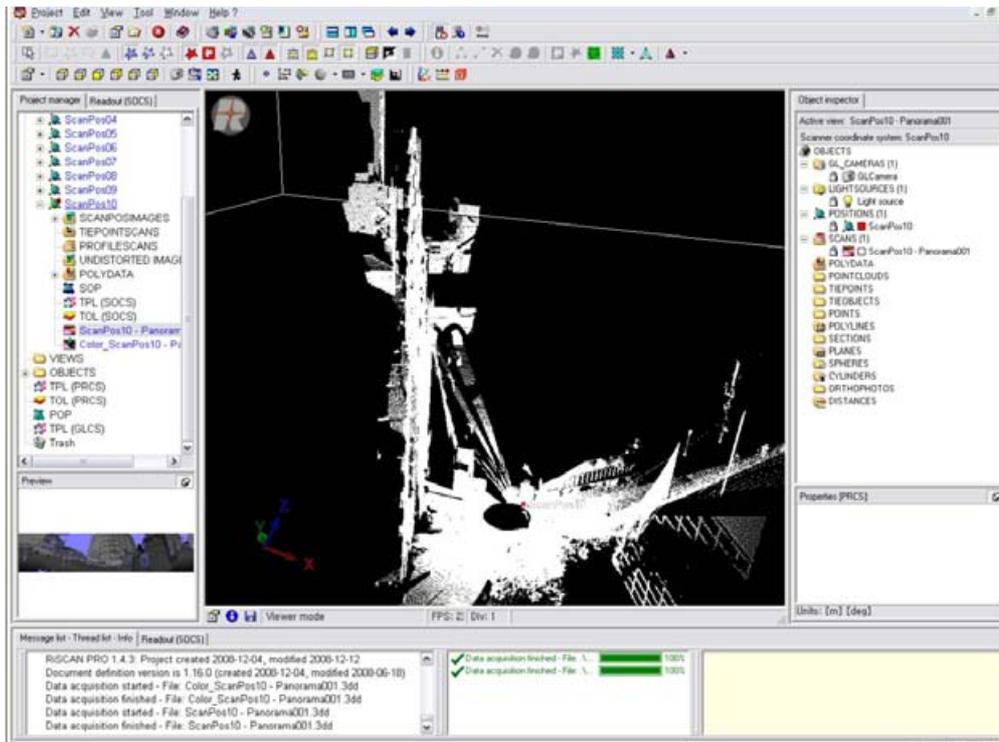
RiSCAN PRO는 RIEGL의 3D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인 LMS-Z 시리즈 장비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3D 영역을 완벽히 커버할 수 있는 LMS-Z 시리즈 장비들을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획득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자인 되었다.

또한, RiSCAN PRO는 후처리 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며,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은 스캔 데이터의 Point Cloud로부터 메쉬를 생성하고, 모든 레이저 측정물에 칼라값을 입히며, Texturing 메쉬를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실에 가깝도록 Merge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후처리 역시 가능하다.

RiSCAN PRO는 모든 사용자의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스캔 데이터 후처리를 작업하기 위해 데이터를 매끄럽게 옮길 수 있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되었다.

(1) Data Visualization and Data Processing

- 파노라마 스캔
- 측정물의 정밀한 스캔 & 고해상도 이미지 취득
- 레이저의 상하좌우 왕복 자동 측정 모드
- 선택 정밀 측정 모드
- TCP/IP 또는 RiPORT 드라이버로 스캔 데이터 전송
- Global Coordinate System으로 스캔 데이터를 On-line 정합
- Point Cloud 데이터를 2D / 3D, True Color 또는 Color Code로 생성
- AutoCAD & MicroStation과 연동하여 2D 도면작업 연계 가능
- 부피와 표면적의 계산 가능
- 특징형상을 추출하고, 스캔 데이터 다 시점에서 측정 가능
-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동영상 작업 가능
- Polygon Mesh 생성 가능
- Smooth / Decimate 기능
- OFFLINE 스캔 Library 지원
- 파노라마 이미지 자동 생성 (Image VR 제작 가능)



RiSCAN PRO 화면

2) Leios Studio (포인트 스캔 데이터 후처리 프로그램)



Leios Studio 는 우선적으로 스캐너에서 얻은 3차원 스캔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 정합 (Registration)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여러 점군 데이터를 조합 하고 각 점 군 데이터를 폴리곤 메쉬로 삼각형화(Triangulate)시킨 후 완전한 하나의 3차원 모델로 완성시키며, AutoCAD, PhotoShop, Illustrator등의 프로그램과 완벽히 호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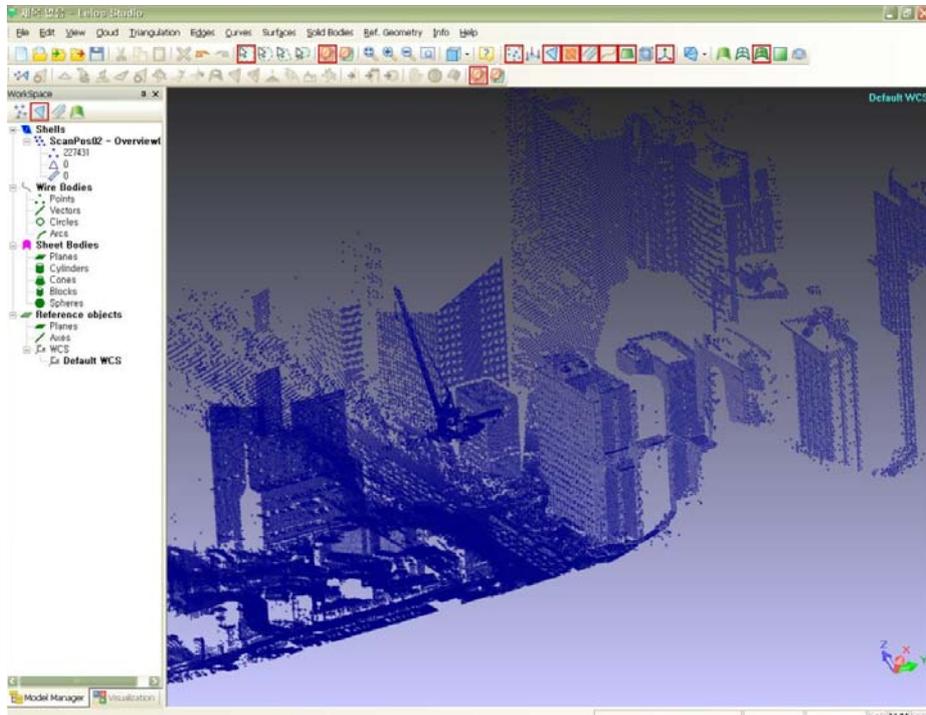
따라서, Leios Studio 으로 완성된 어떤 스캔 데이터 모델도 AutoCAD, PhotoShop, Illustrator 등의 프로그램으로 쉽게 데이터 변환이 가능하다.

- 수억 Polygon 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보유 프로그램
- 검증된 정밀도
- 최고의 정확도와 스피드를 보장하는 정합 (Registration)
- & 병합 (Merging) 알고리즘
- 대용량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 가능함은 물론이고 역 설계 가능
- 스캔 데이터의 거리측정 및 등고선 생성 및 단면 생성가능
- 스캔 데이터를 AutoCAD에서 3차원 모델링을 지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얻은 여러 스캔 데이터를 하나로 조합 (Registering)하는 기능은 3차원 스캔 데이터 처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Leios Studio의 정합 (Registration) 기술은 서로 다른 스캔 데이터들을 최소의 에러 발생률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이루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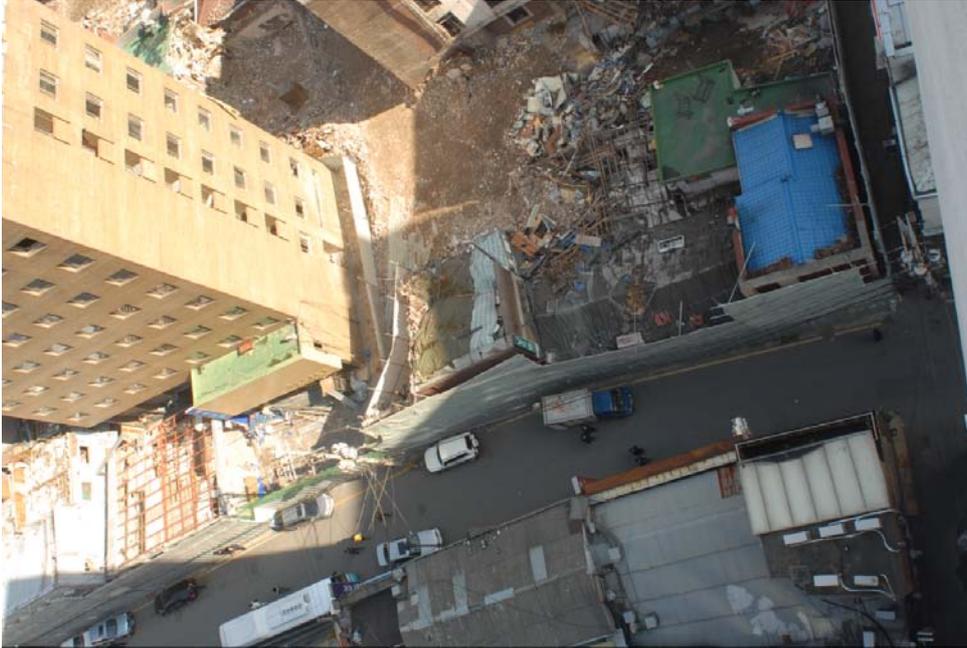
Leios Studio의 정합 (Registration) & 병합 (Merging) 기능은 다중 CPU 연산을 가능케 하며 동시에 최상의 양질 결과물을 생성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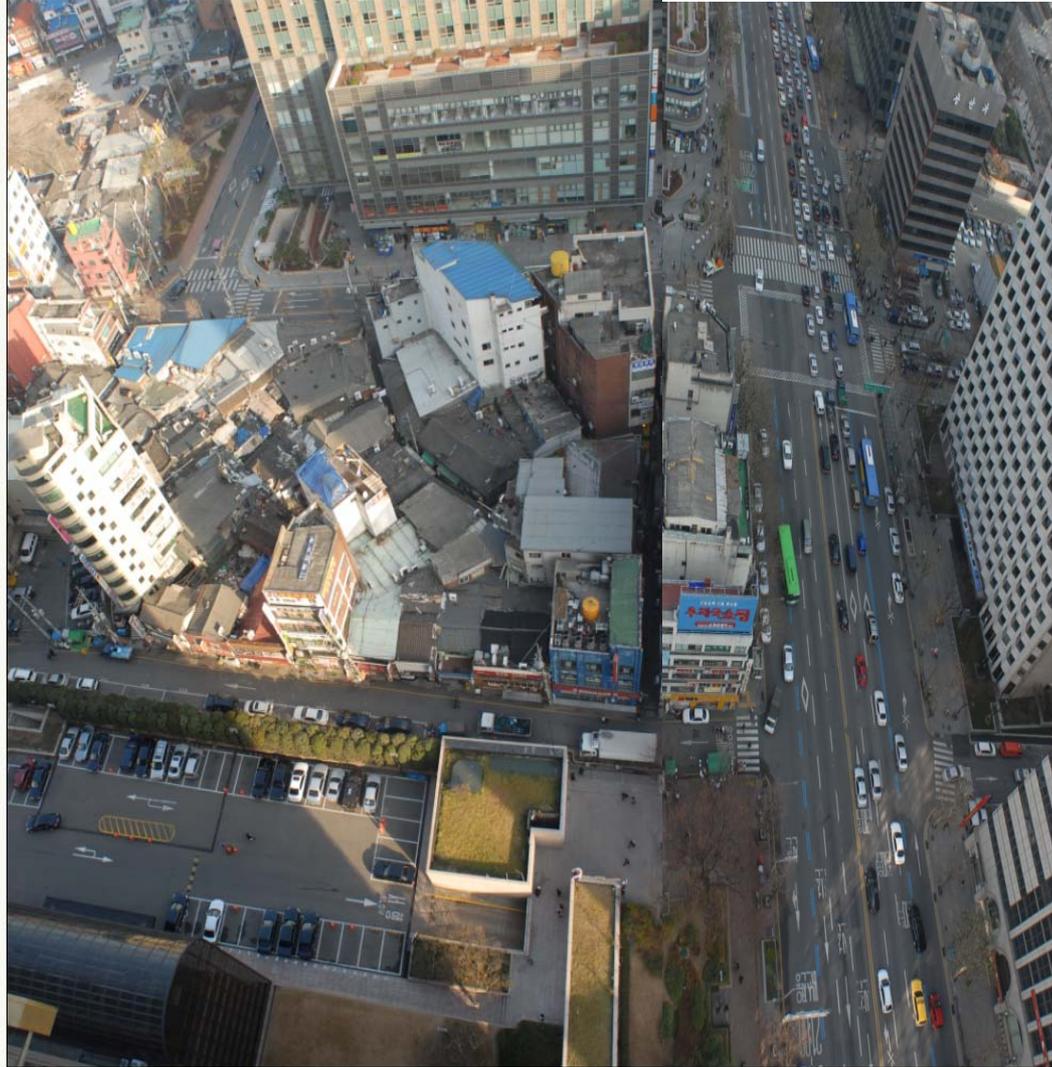
LEIOS STUDIO 화면

6. 작업 현장 사진

1) 농협건물 옥상에서 바라 본 골목사진



2) 교보타워 옥상에서 바라본 사진



3) 피맛길 골목 현장 사진

